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양성평등
경북
여성일자리
창출



연구 요약



연구요약

1 연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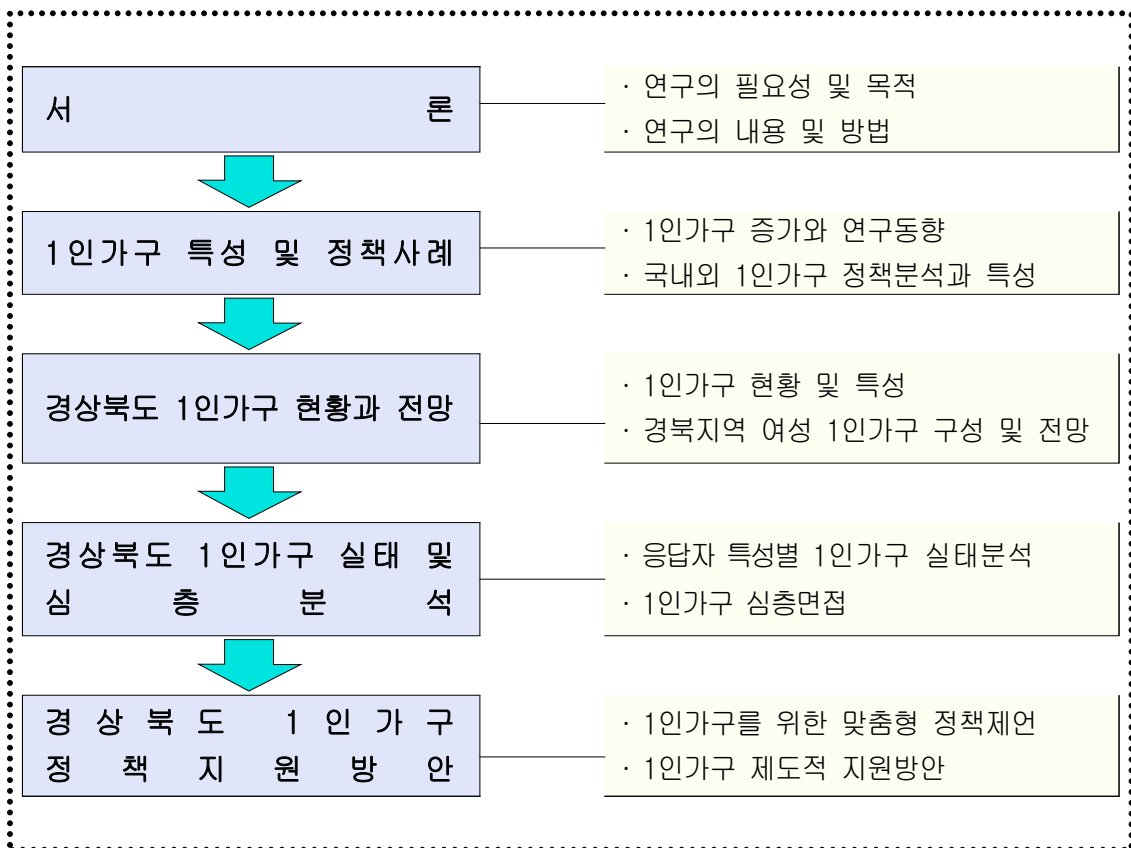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가구구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가족 및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의미 변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가족해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혼 연기,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으며, 2010년 기준 1인가구는 24.0%에서 2015년 27.2%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북지역 1인가구는 2010년 28.8%에서 2015년(30.3%) 1.5%p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 1인가구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형성요인, 연령, 젠더, 계층 등에 따라 각기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 1인가구의 젠더, 세대, 지역별 대응방안 및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외 1인 가구와 생활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1인가구 특성과 정책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경북지역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에 관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경북지역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법을 병행하였다. 경북 지역 20대에서 60대 이상 1인가구 500명을 중심으로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령대별 1인가구로 사는 경험담을 심층면접한다. 그 내용은 안전한 주거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지원, 생활만족도, 노후준비 및 설계, 정책지원 분야 등을 살펴본다.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 특성에 관한 양질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구성체계



2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사례

- 1인가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1인가구는 법적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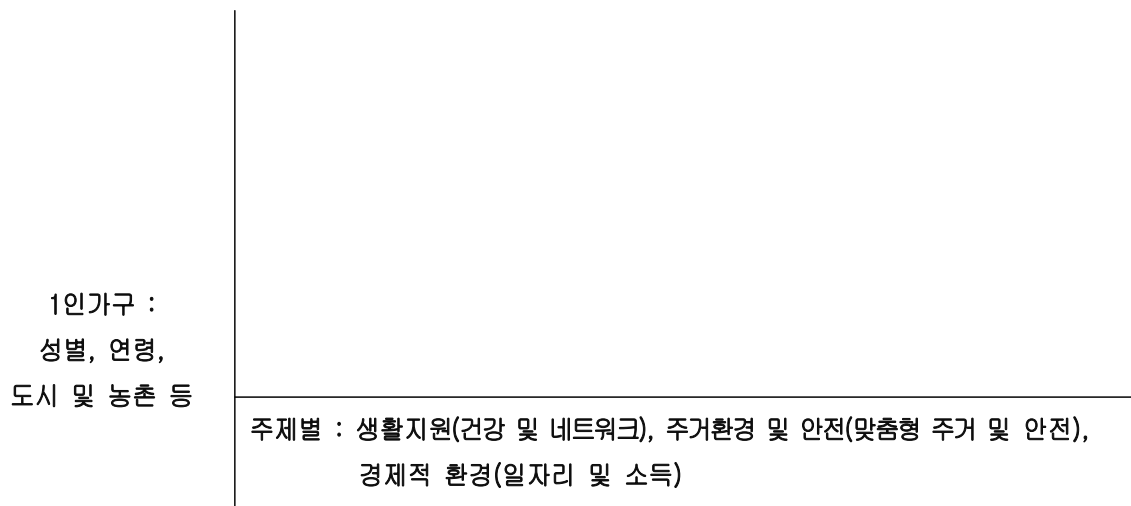
[표 1] 1인가구 개념

구 분		1인가구 지칭용어	개 념
배화옥	1993	단독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여운경· 양세정	2001	단독가구	◦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
통계청	2005	1인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차경옥	2006	1인가구	◦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김혜영	2007	1인가구	◦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변미리 외	2008	1인가구	◦ 혼자 사는 사람들,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
한지희 외	2011	1인가구	◦ 통계청의 표준정의에 따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정경희 외	2012	1인가구	◦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으로 1인가구 거주자
김혜영	2014	1인가구	◦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혼자 생활하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생활하는 가구
이병호	2014	1인가구	◦ 법적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독신가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학계에서도 두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동일한 것으로 사용
※ 본 연구에서의 1인가구 ⇨ 법적으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 국내외 1인가구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구형태 변화 및 1인가구 증가 및 특성, 관련연구 동향 등에 대한 분석으로 첫째,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및 정책적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외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별(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 및 안전, 일자리 및 소득) 유형에 대한 연구가 그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시사점을 통한 본 연구의 주요 타겟

- 국내 1인가구지원 정책사례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용지원, 돌봄 및 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무엇보다도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등도 무인 택배함의 설치·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택배함의 유지·관리 및 택배함 이용 등과 관련된 개선점·한계점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외 1인가구의 증가는 서유럽과 북미, 일본 등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외 1인가구지원 정책사례는 주거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뚜렷한 시점에 기존의 침체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동체 주도, 사회임대형 주택을 모색하는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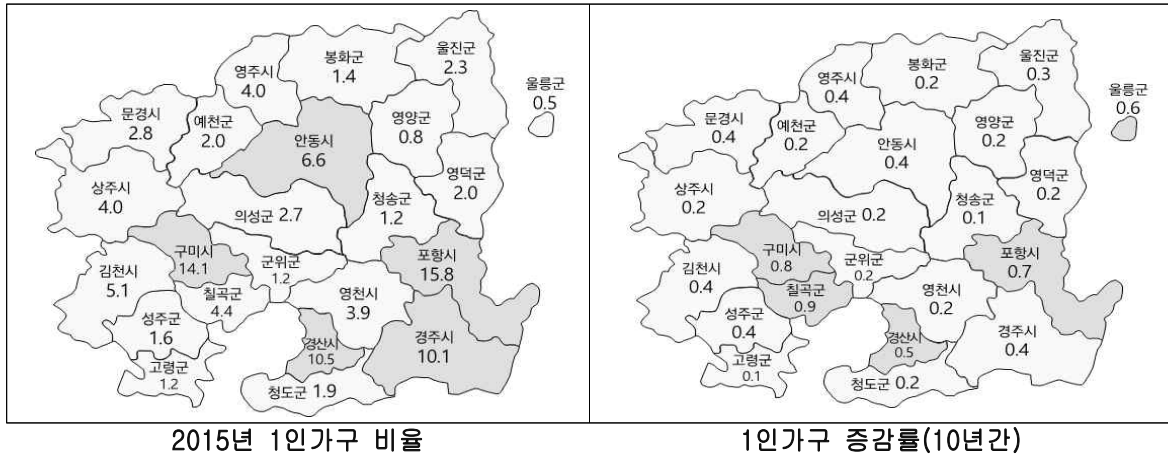
[표 2] 국내외 주요정책 시사점

구 분	시사점
국내	◦ 1인가구지원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용지원, 돌봄 및 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 마련 ◦ 사회보장제도가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정 나이 이상인 자 등에 초점 → 조건을 갖추지 못한 1인가구는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 건강은 노인 1인가구를 포함한 노인 전체, 안전 관련 서비스는 여성 1인가구를 포함 → 생애 주기별 여성 1인가구의 건강 관련 서비스, 안전관련 서비스 등의 대상층을 보다 확대 필요 ◦ 주거지원의 내용 역시 대부분이 주택구입 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주택공급 등에 초점 → 적절한 주거환경의 유지·관리 및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을 다루는 주택정책 부족 ◦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등도 무인 택배함의 설치·공급에 초점→택배함의 유지·관리 및 택배함 이용 등과 관련된 개선점·한계점에 관한 논의 거의 전무
국외	◦ 국외 1인가구지원은 주거정책과 연관성이 높음 ◦ 1인가구의 증가 추세에 뚜렷한 시점에 기존의 침체된 임대주택을 활성화,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동체 주도, 사회임대형 주택을 모색하는 정책이 활성화에 초점

3 경상북도 1인가구 현황 및 전망

1) 경상북도 1인가구 구성 및 특성

- 2015년 경북지역 1인가구는 322천 가구로 일반가구(1,062천) 중 30.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6.4%, 여성 53.6%로 여성 1인 가구가 7.2%p 더 많다. 1990년대에 비해 18.1% 증가하였으며, 남성 1인가구는 10.6% 증가하였다.
- 시·군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에 많은 1인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1인가구의 증감률을 보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칠곡군,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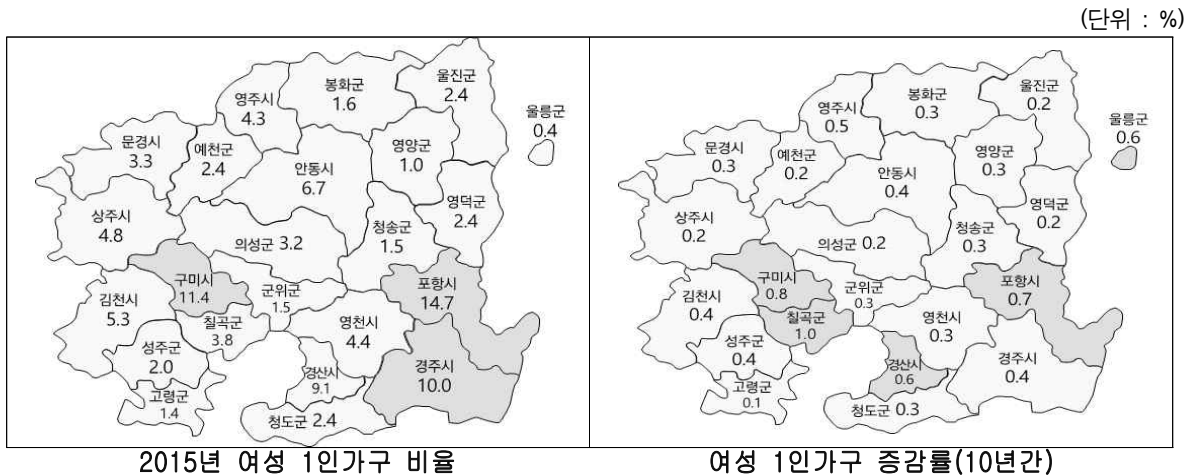
2015년 1인가구 비율

1인가구 증감률(10년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그림 3] 경북지역 1인가구 분포 현황

- 여성 1인가구는 약 172천 가구였으며,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에 많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여성 1인가구는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울릉군이 증가하였다.



2015년 여성 1인가구 비율

여성 1인가구 증감률(10년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그림 4]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 분포 현황

- 남성의 1인가구는 약 149천 가구였으며,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등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최근 10년간 남성 1인가구는 경산시에 많은 증가가 있었고, 청송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consists of two maps of Gangwon-do, South Korea, illustrating th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2015. The left map shows the absolute number of elderly residents in thousands, while the right map shows the percentage of the elderly population relative to the total population. Both maps use a color scale from light gray (low) to dark gray (high).

Left Map: Absolute Number of Elderly Residents (in thousands)

Municipality/County	Value (thousands)
문경시	2.0
예천군	1.3
안동시	6.4
영양군	0.5
영덕군	1.2
의성군	1.8
청송군	0.7
포항시	17.4
영천시	3.1
경주시	10.3
경산시	12.8
청도군	1.1
고령군	1.0
성주군	1.1
김천시	4.6
구미시	18.7
철곡군	5.3
군위군	0.8
영주시	3.4
봉화군	1.2
울진군	2.0
울릉군	0.6

Right Map: Percentage of Elderly Population

Municipality/County	Value (%)
문경시	0.4
예천군	0.3
안동시	0.5
영양군	0.1
영덕군	0.2
의성군	0.3
청송군	-0.2
포항시	0.6
영천시	0.1
경주시	0.4
경산시	7.8
청도군	0.4
고령군	0.0
성주군	0.4
김천시	0.5
구미시	0.7
철곡군	0.8
군위군	0.2
영주시	0.3
봉화군	0.2
울진군	0.3
울릉군	0.7

남성 1인가구 증감률(10년간)

[그림 5] 경북지역 남성 1인가구 분포 현황

- ## 2) 경상북도 여성 1인가구 특성

- | vii |



이 범죄발생 부분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인가구 중 취업자는 남성의 경우 청년이 45.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50.0%로 노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근로만족도, 임금수준, 복리후생 등 근로여건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1인가구 모두 만족도가 대체로 떨어지는 편이었다.
-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100만원 미만 51.8%, 100~200만원 미만 21.2%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 66.1%로 남성 1인가구(34.8%)에 비해 31.3%p 높게 나타났다.

4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분석

1) 1인가구 특성

주요 내용
◦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 29.6%가 10년 이상 : 여성(39.6%), 50~60대 이상(47.8%), 농촌 지역(45.1%), 중학교 졸업 이하(55.9%), 사별(49.4%)이 10년 이상
◦ 1인가구 선택은 51.0%가 비자발적, 49.0%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 : 자발적 선택은 남성(55.7%), 20~40대(79.7%), 도시지역(56.5%), 대학 졸업 이상(80.0%), 비혼(82.0%)에서 높음.
◦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47.6%가 배우자와의 사별, 직장 또는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34.0%),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8.7%), 배우자와의 이혼·별거(5.7%), 가족과의 불화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서(2.2%)
◦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는 경제력(55.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한 주거환경(13.8%) : 여성은 경제력(59.2%)과 안전한 주거환경(15.6%)에서, 남성은 요리 및 가사활동(13.2%)에서 높음.
◦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이 66.5%로 높은 반면에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54.9%가 심리·정서적 외로움으로 가장 높음.



2)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요 내용

- 1인가구의 신체건강 상태는 56.4%(매우 건강함 9.4% + 건강한 편 47.0%)가 건강
- 정신건강 상태는 68.4%(매우 건강함 9.8% + 건강한 편 58.6%)가 건강
- 1인가구로 있어서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 하는 행동은 응답자의 57.7%가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
- 여성은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한다(68.2%), 남성은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한다(55.3%)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위급한 상황 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에 관해 76.6%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23.4%가 도와줄 사람이 없음.
-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3.4%가 친구로 가장 높음.
- 여성은 친구(54.4%)와 형제·자매(24.8%), 남성은 친구(74.0%)와 부모(32.2%)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 건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 및 서비스는 건강지원체계 마련이 3.98점으로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 시스템 3.92점,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3.88점, 간호서비스 제공 3.87점, 급식지원 서비스 제공 3.69점

3)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주요 내용

- 1인가구 주택 유형은 39.4%가 단독주택으로 가장 높음.
- 주택 소유형태는 응답자의 43.1%가 자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29.9%), 전세(16.6%), 기타(5.4%), 무상(5.0%)
- 주택 선택 시 고려하는 분야는 38.2%가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이며, 직장, 학교와 인접 지역(31.7%), 주변지역의 안전성(12.9%), 주거환경이 좋아서(12.7%) 등
- 여성은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 40.2%, 남성은 직장, 학교와 인접해서 39.5%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의 크기 및 구조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내외 악취 3.44점, 주택 및 주거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3.41점, 실내외 소음 3.34점, 프라이버시 확보 3.37점
- 1인가구의 임대주택 또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의 필요성은 84.1%(매우 필요 22.4% + 필요 61.7%)가 필요
-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의 필요 정도는 80.6%(매우 필요 25.3% + 필요 55.3%)가 필요



주요 내용
◦ 1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필요성은 78.2%(매우 필요 23.7% + 필요 54.5%)가 필요 ◦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는 1인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 전세 및 월세 등의 자금 대출 지원이 4.02점으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3.98점 ◦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 가급적 이른 귀가를 하고 있다가 각각 49.6%로 가장 높음. ◦ 여성은 가급적 이른 귀가(66.2%), 남성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41.8%) 높은 비율 차지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는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 53.3%로 높게 차지 ◦ 여성은 주택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56.5%), 남성은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71.4%) 가장 높은 비율임. ◦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는 대중교통 시간확대(4.02점)와 좁은 골목길 CCTV 설치(4.01점)가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주택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강화(3.97점), 1인가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및 활성화(3.92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안전시스템 마련(3.87점)

4)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주요 내용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3.42점)과 직업 안전성(3.20점)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내용(3.19점), 근로시간(3.16점), 급여(소득) 수준(2.88점) ◦ 주된 경제소득원은 34.1%가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33.3%가 본인소득 ◦ 여성(42.4%)과 50~60대 이상(55.4%), 농촌지역(40.1%), 중학교 졸업 이하(59.0%), 100만원 미만(53.1%)는 정부 및 기관의 지원 ◦ 남성(39.6%)과 20~40대(57.6%), 도시지역(36.0%), 대학 졸업 이상(69.0%), 100만원 이상(84.7%)은 본인소득 ◦ 한 달 평균 지출액은 49.0%가 50만원 미만고, 50~100만원 미만이 32.2% ◦ 최근 1년간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은 43.8%가 식생활비로 꼽았고, 이어서 보건의료비(19.0%), 주 생활비(15.3%), 의생활비(9.1%) ◦ 1인 가구의 소비생활을 위해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으로 소평형 주택이 16.0%로 가장 높았고, 식료품(13.7%), 1인 가구 전용 매장(11.8%),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10.0%) ◦ 1인 가구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가 해야 할 분야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3.9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세제혜택 확대(3.84점),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 제공(3.79점), 한시적 생계비 지원(3.73점)



5) 1인가구 만족도 및 필요 정책

주요 내용
1인가구의 각 분야별 만족도는 친구와의 관계가 3.74점으로 가장 높음. 형제자매와의 관계(3.66점), 부모님(혹은 자녀)와의 관계(3.65점), 직장생활 혹은 학교 생활(3.53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3.46점) - 경제상태(2.78점)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1인가구로서 주택 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이용경험,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 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과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이용경험은 전무한 수준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분야는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 및 안전지원 정책(34.5%), 경제지원 정책(26.0%) 등

5 정책지원 방안

1)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①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가칭) 마련

- 경북지역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가칭)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반면에 경북은 고독사가 제외된 독거노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주거복지지원 조례(가칭) 마련

- 주거지원 대상과 관련한 사항에서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여성독거노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가칭) 마련	◦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 독거노인 지원 조례에 고독사 예방 등을 포함하여 개정
경상북도 주거복지지원 조례(가칭) 마련	◦ 주거지원 조례 내용에 1인가구를 포함하여 개정

2)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① 건강지원서비스 정보 공유 및 대상층 확대

- 1인가구의 고독과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관계 및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건강관리나 영양 관련 정보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1인가구의 경우 불규칙한 식사시간, 잦은 외식 및 인스턴트 섭취 등으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한 섭취,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인, 특히 고령 여성 등에 국한된 현재 건강 관련 서비스의 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속하는 1인가구 전반에 서비스의 대상층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1인가구를 위한 소셜 팸 및 소셜다이닝 활성화

- 소셜 팸(사회적 가족)은 1인가구 간을 서로 연결하여 일종의 사회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연령의 1인가구가 공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소셜다이닝은 즉석식품 등으로 혼자 식사를 해결하던 1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관심사 공유 및 건강한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① 원룸 등 안전한 소형주택 확대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건설비율확대, 임대형태로 주택 공급, 임대아파트 분양 시 취약한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건설시 안전 관련한 내용을 기준에 포함(CCTV 설치 등)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1인가구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같이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건축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②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

- 국외 사례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1년부터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 특성에 맞춰 개조된 주택에서 살아도 혼자 생활하는 과정에서 고독사, 관계단절, 낙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 1인가구를 위해 공동체주택의 공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한 안전한 마을 인증제 도입

-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인천시 부평구에서 여성친화도시 구축의 한 사례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마을 구축의 시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하여 안전한 마을 인증제를 도입하여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입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① 1인가구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 미취업 상태인 청년 1인가구 및 중·장년층 1인가구는 취업 했으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경북 지역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마련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취업·창업지원 등과 같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을 뿐 일자리와 관련된 1인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 1인가구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취업훈련 및 일자리연계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취업지원 T0 사후관리 지원

- 1인가구는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독립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의존의 상태에 있는 독립과 의존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현재의 정책들은 취업관련 전문교육 실시 및 일자리 연계 등에 그치고 있어, 취업을 한 이후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취업지원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취업지원 정책 활용도 제고

- 경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1인가구의 취업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취업지원 정책 또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북지역의 산업구조, 근로환경, 미취업자 등의 실태 및 욕구를 반영 하여 1인가구를 위한 취업지원 실태를 실시하여 정책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 0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II.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사례 / 09

- 1. 1인가구 증가와 연구동향 11
- 2. 1인가구 국내외 주요정책 19

III. 경상북도 1인가구 현황 및 전망 / 29

- 1. 경상북도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31
- 2. 경상북도 여성 1인가구 특성 46

IV.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분석 / 63

- 1. 설문조사 분석 65
- 2.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43
- 3.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148

V. 결론 및 정책지원 방안 / 151

- 1.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가칭) 마련 153
- 2.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155
- 3. 주거환경 및 안전 158
- 4.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165

참고문헌 / 168



표목차

[표 II-1] 1인가구 개념	12
[표 II-2] 국내 연구동향 분석	15
[표 II-3] 시도별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19
[표 II-4]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20
[표 II-5] 여성 1인가구 생활안전지원 정책	22
[표 II-6] 여성 1인가구 고용 및 공동체 참여 관련 정책	22
[표 II-7] 국내외 주요정책 시사점	28
[표 III-1] 경북지역 1인가구 변화	31
[표 III-2] 전국 및 경북지역 일반가구 및 1인가구 구성비	32
[표 III-3] 시·군별 일반가구 및 1인가구 구성	32
[표 III-4] 가구 유형별 변화	35
[표 III-5] 경북지역 연령별 1인가구 수 및 구성비	37
[표 III-6] 연령별 1인가구 변화	38
[표 III-7] 세대별 1인가구	39
[표 III-8] 세대별 1인가구의 교육정도	40
[표 III-9] 세대별 1인가구의 사회활동	41
[표 III-10] 세대별 1인가구의 활동제약	42
[표 III-11] 세대별 1인가구의 거주기간	43
[표 III-12] 세대별 1인가구의 직업	44
[표 III-13] 세대별 1인가구의 산업별 취업	45
[표 III-14] 경북지역 1인가구의 스트레스(전반적인 일상생활) 인식 정도	46
[표 III-15] 경북지역 1인가구의 스트레스(가정생활) 인식 정도	47



[표 III-16] 경북지역 여가활용 방법	48
[표 III-17] 경북지역 여가활동 만족도	48
[표 III-18] 경북지역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	49
[표 III-19] 경북지역 사회적 관계별 소통 정도	50
[표 III-20] 경북지역 1인가구 주택유형	51
[표 III-21] 시·군별 여성 1인가구 주택유형	53
[표 III-22] 시·군별 남성 1인가구 주택유형	54
[표 III-23] 경북지역 1인가구 점유 형태	55
[표 III-24] 경북지역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발생)	56
[표 III-25] 경북지역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사회안전)	56
[표 III-26] 시도별 1인가구 고용률	57
[표 III-27] 경북지역 1인가구 취업자 비율	58
[표 III-28] 경북지역 직업별 1인가구 취업자 규모	58
[표 III-29] 경북지역 1인가구 경제활동상태	59
[표 III-30] 경북지역 근무여건 만족도	60
[표 III-31] 경북지역 월평균 소득	61
[표 III-32] 경북지역 소득 만족도	61
[표 III-33] 경북지역 지출 항목	62
[표 III-34] 경북지역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	62
[표 IV-1] 조사개요	66
[표 IV-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67
[표 IV-3]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	68
[표 IV-4] 1인가구 선택	70
[표 IV-5]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	71
[표 IV-6]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	72
[표 IV-7]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	74
[표 IV-8]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75
[표 IV-9] 신체건강 상태	76



[표 IV-10] 정신건강 상태	78
[표 IV-11]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하는 행동	79
[표 IV-12] 위급한 상황 시 도와줄 사람	81
[표 IV-13]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82
[표 IV-14]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이유	84
[표 IV-15] 건강지원체계	86
[표 IV-16] 상시 상담서비스	87
[표 IV-17] 간호서비스	88
[표 IV-18] 도움 요청시스템	89
[표 IV-19] 사회적 지지 강화서비스	90
[표 IV-20] 주택 유형	91
[표 IV-21] 주택 소유형태	93
[표 IV-22] 주택 선택시 고려 사항	95
[표 IV-23] 대중교통	97
[표 IV-24] 문화시설	98
[표 IV-25] 이웃과의 교류	99
[표 IV-26] 방법상태	100
[표 IV-27]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	101
[표 IV-28]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	102
[표 IV-29] 주거환경 개선 지원	103
[표 IV-30]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	105
[표 IV-3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도	106
[표 IV-32] 살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	108
[표 IV-33] 범죄 발생 우려 장소	109
[표 IV-34] 2인 이상 가구 대비 범죄 노출 위험도	111
[표 IV-35] 주택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법 활동 강화	112
[표 IV-36] 좁은 골목길 CCTV 설치 확대	113
[표 IV-37]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안전시스템 마련	114



[표 IV-38] 대중교통 시간 확대	115
[표 IV-39] 주택 및 원룸 보안장치 강화	116
[표 IV-40]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및 활성화	117
[표 IV-41] 경제적 활동	119
[표 IV-42] 일의 형태	120
[표 IV-43] 급여(소득) 수준	122
[표 IV-44] 근로시간	123
[표 IV-45] 주된 경제소득원	124
[표 IV-46] 한달 평균 지출액	126
[표 IV-47] 최근 1년간 지출이 가장 큰 비중	127
[표 IV-48]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	129
[표 IV-49]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 제공	130
[표 IV-50] 다양한 일자리 제공 필요도	132
[표 IV-51]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34
[표 IV-52] 주택 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135
[표 IV-53]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 대출 지원	136
[표 IV-54] 공공임대주택	137
[표 IV-55]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 근로	138
[표 IV-56] 안심택배서비스	139
[표 IV-57] 상담서비스	140
[표 IV-58]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 분야	142
[표 IV-59]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특성	143
[표 IV-60] 주요결과 요약	148
[표 V-1]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155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의 구성체계	7
[그림 II-1] 국내 선행연구 분석	15
[그림 II-2] 국외 선행연구 분석	17
[그림 II-3] 시사점을 통한 본 연구의 주요 타겟	18
[그림 II-4] 지역포괄케어시스템	24
[그림 II-5] 미국 SRO 지원체계	26
[그림 II-6] 샌프란시스코 SRO : 낡은 호텔 개조	26
[그림 III-1] 경북지역 1인가구 분포 현황	33
[그림 III-2]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 분포 현황	33
[그림 III-3] 경북지역 남성 1인가구 분포 현황	34
[그림 III-4] 경북지역 가구 유형별 변화	36
[그림 III-5] 시·군별 1인가구 주택유형	51
[그림 IV-1]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	69
[그림 IV-2]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	71
[그림 IV-3]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	73
[그림 IV-4]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	73
[그림 IV-5]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75
[그림 IV-6] 신체건강 상태	77
[그림 IV-7] 정신건강 상태	77
[그림 IV-8]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하는 행동	80
[그림 IV-9] 위급한 상황 시 도와줄 사람	80
[그림 IV-10]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83



[그림 IV-11]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이유	83
[그림 IV-12] 건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85
[그림 IV-13] 주택 유형	92
[그림 IV-14] 주택 소유형태	92
[그림 IV-15] 주택 선택시 고려 사항	94
[그림 IV-16]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96
[그림 IV-17]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	104
[그림 IV-18]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	104
[그림 IV-19]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도	107
[그림 IV-20] 살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	107
[그림 IV-21] 범죄 발생 우려 장소	110
[그림 IV-22] 2인 이상 가구 대비 범죄 노출 위험도	110
[그림 IV-23]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8
[그림 IV-24]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118
[그림 IV-25] 일의 형태	121
[그림 IV-26] 일자리 만족도	121
[그림 IV-27] 주된 경제소득원	125
[그림 IV-28] 한달 평균 지출액	125
[그림 IV-29] 최근 1년간 지출이 가장 큰 비중	128
[그림 IV-30]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	128
[그림 IV-31]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131
[그림 IV-32] 1인가구의 분야별 만족도	133
[그림 IV-33]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 분야	141

I. 서론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1인가구의 확산은 한국 사회·문화와 생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는 첫째, ‘내 멋대로 1코노미’ 현상이다. 1인과 이코노미를 연결한 1코노미는 가족 등 공동체를 대체하는 얼로너(aloner)들로 이루어졌다. 혼밥, 혼술 등을 특징으로 하며 캥거루족이 그 대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각자도생(各自圖生) 현상이다. 공공의 문제해결 능력을 불신하고, 가족의 연대감도 약해지는 가운데 각자도생의 개인주의적 생존전략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셋째, 율로라이프¹⁾ 가치관의 확산이다. 1인가구 중심의 개인주의가 정착되면서 인생가치관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1인가구 증가는 ‘솔로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택 및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가족단위의 가구와 차별화된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요구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가구구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가족 및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의미 변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가족해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혼 연기,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노인인구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1인가구의 증가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으며, 2010년 기준 1인가구는 24.0%에서 2015년 27.2%로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북지역 1인가구는 2010년 28.8%에서 2015년(30.3%) 1.5%p 증가하였다(통계청, 2015).

1) 율로(YOLO, You Only Live Once)는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는 가치관에 기반한 현재중심적 삶의 모습이 널리 퍼져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 가구형태는 1~2인의 소규모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의 가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구형태는 1~2인의 소규모 가구가 주변적 가구형태에서 보편적 가구형태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가족변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구형태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김혜영, 2014). 가구형태의 소규모화는 전통적으로 사회체계로서 사회화 및 돌봄의 기능을 담당했던 가족의 역할 및 기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이 다양화되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세속화, 다원주의 같은 문화적 변화, 노동 유연성과 같은 경제적 변화, 그리고 보건의료기술 및 정보기술의 기술적 변화를 들 수 있다(문소정, 2008; 정경희 외, 2012). 가족형태에서 1인가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1인가구를 광의적 차원에서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가족에 대한 법적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7조 가족의 범위). 이러한 법적 정의에 의하면 1인가구는 가족의 형태가 아니다. 하지만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안호용, 김홍주, 2000; 김혜영, 2008; 최연실, 2013; 이성은, 2015; Mincer, 1977; Aldrich & Cliff, 2003; Ackerman, Fries, & Windle, 2012; Dixon et al, 2014). 사회 정책적으로도 1인가구는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대응하고 있다(변미리, 2008; 정경희 외, 2012).

위와 같이 1인가구가 가족의 한 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가족의 전반적 변화 양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 가족의 변화 양상은 인구학적 변화, 가족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구형태의 변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 등에서 나타난다.

1인 가구는 다인가구와 비교해 여성, 청년층,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은 단기정책 뿐만 아니라 장기차원의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 1인가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과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1인가구는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하여 가족 및 친척으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고용불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범위에서는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형성요인, 연령, 젠더, 계층 등에 따라 각기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젠더, 세대, 지역별 대응방안 및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1인 가구와 생활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1인가구 특성과 정책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경북지역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에 관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경북 지역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0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 기반으로 하여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동향분석을 통하여 여성 1인가구 증가현상을 살펴본다.

둘째, 경북지역 1인가구를 중심으로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등의 설문조사 및 심도 있는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심층면접에서는 1인가구로서 일의 의미, 삶의 태도, 결혼 및 가족 관련 의식과 태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 바탕으로 여성 1인가구 특성에 따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법을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5년마다 제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국내외 현황 등을 살펴본다.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경북지역 20대에서 60대 이상 1인가구 500명을 중심으로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령대별 1인가구로 사는 경험담을 심층면접한다. 그 내용은 안전한 주거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지원, 생활만족도, 노후준비 및 설계, 정책지원 분야 등을 살펴본다.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 특성에 관한 양질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0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방법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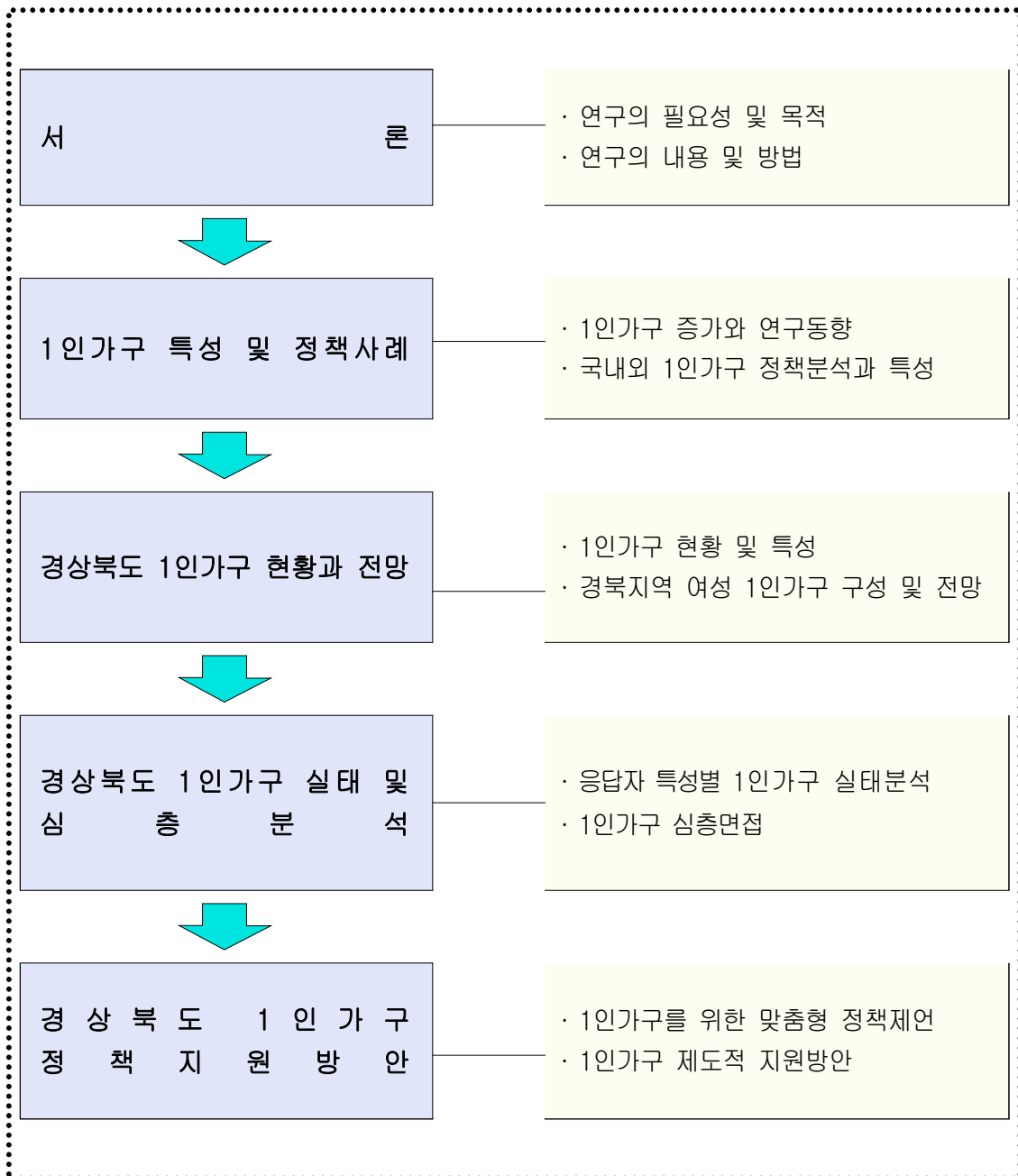
제2장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사례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연구동향, 국내외 주요 정책분석과 특성을 살펴본다.

제3장 경북지역 1인가구 현황과 전망은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 구성 및 전망을 진단한다.

제4장 경북지역 1인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 및 심층분석은 20대에서 60대 1인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의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에 관한 제도적 지원방안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 -1] 연구의 구성체계

II.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사례





II.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사례

01 1인가구 증가와 연구동향

1) 1인가구 개념

1인가구는 ‘혈연가구’, ‘5인 이하 비혈연 가구’와 함께 ‘일반가구’로 분류되며, “혼자서 살립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된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리고 근무지 변경, 배우자 및 자녀의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1인가구에 포함되고 있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따라서 현재 1인가구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법적 배우자가 있지만,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 등도 1인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통계표준용어로서 정의한 1인가구와는 달리 법적 보호 내지 지원의 대상으로서 1인가구 개념을 정의할 때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따로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이준우 외, 2014: 30). 한편, 1인가구와 쉽게 혼용되는 또 하나의 개념인 ‘독신가구’는 법률적 혼인 여부에 보다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혼 1인가구’는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주민등록상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로 정의된다(이성은 외, 2012: 12). 즉 현재 법적·사실적으로 무배우자로서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배건이·정극원, 2013: 21).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1인가구란 주거가 독립되고, 동거인이 없으며,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세 가지 요건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준우·장민선, 2014: 30).

이젠 가족 개념과 1인가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혼인·혈연·입양으로 연결된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정의에서 1인가구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가족의 기능도 동일 가구의 단위를 넘어서 수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과 1인가구 두 개념 사이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공통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1인가구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가구형태부터 법적으로 배우자가 존재하여도 혼자 생활하는 가구까지 포괄하고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독신가구라고 학술적으로 다루어진다(조명은, 2002). 이와 같은 1인가구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1인가구는 법적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표 II -1] 1인가구 개념

구 분		1인가구 지칭용어	개 념
배화옥	1993	단독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여윤경· 양세정	2001	단독가구	◦ 가구원이 한 명인 경우
통계청	2005	1인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차경옥	2006	1인가구	◦ 성인 한 명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
김혜영	2007	1인가구	◦ 현재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단독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혼자 생활하는 가구
변미리 외	2008	1인가구	◦ 혼자 사는 사람들, 독립된 공간에서 의식주의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는 사람
한지희 외	2011	1인가구	◦ 통계청의 표준정의에 따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정경희 외	2012	1인가구	◦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개인으로 1인가구 거주자
김혜영	2014	1인가구	◦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혼자 생활하거나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생활하는 가구
이병호	2014	1인가구	◦ 법적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독신가구와 비슷한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학계에서도 두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동일한 것으로 사용
※ 본 연구에서의 1인가구 ⇨ 법적으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2)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연구동향

한국에서 급격한 핵가족화와 함께 1인가구의 확대로 1인가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1인가구보다는 독신가구 및 독거노인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독신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성인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비혼 상태로 1인가구를 구성하는 것에 한정한다(최연실, 2015).

독신가구는 시간사용, 여가활동, 인식, 만족도, 주거계획, 경제상태, 독신동기 남녀 차이 등과 같은 생활양식 및 경제적 특성을 주로 다룬 것으로 분석되었다(윤소영, 2002; 심영, 2002; 조명은, 2002; 김경원·김태현, 2005). 미혼집단과 기혼집단의 시간사용과 여가활동에 대해 실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신가구는 일에 몰두하거나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은 적었고,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소영, 2002).

독신가구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30대 남성 독신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40대 여성 독신가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심영, 2002). 이와 함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수행하여 초기에는 주거문제에서 이후는 독거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질병, 빈곤, 자살, 우울, 사회적 고립, 사회적 배제)에 관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노인주거 지원성, 독거노인의 자기 방임 실태(영양실조 및 탈수상태, 기본적인 위생과 청결, 약물남용, 자살생각 등)와 위험요인(경제적 수준 및 우울 증상)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김행신·이영호, 1998; 김현진 외, 2000; 이민홍·박미은, 2014).

2000년 중반으로 넘어서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변미리 외(2008)는 서울의 인구구성 변화에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주거특성, 사회 문화적 현상, 세대의식 변화 방향, 1인가구의 유형화 등을 통해 유형별 도시정책 수요전망을 분석하였다. 대상은 골드세대, 산업예비군, 불안



한 독신자, 실버세대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유형별로 가치관, 경제환경, 사회문화적 영향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세대는 개인주의 확산, 개성과 다양성 존중, 여성경제활동을 증가, 풍요로운 성장 세대, 남성 가부장 역할 변화, 긍정적 싱글 이미지 등의 대표적 가치관으로 도시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반면 불안한 독신자의 경우는 가족가치 변화, 중장년 실업증가, 교육현장과 기러기 가족,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큰 계층이며 비자발적 1인가구는 빈곤층에 편입되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비노인보다는 노인 1인가구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1인가구가 되어 경제적 빈곤을 경험할 위험이 높다(김도희, 2012).

정경희 외(2012)는 전국을 대상으로 1인가구의 증가 추이, 인구 사회학적 특성, 1인가구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분석하여 연령별 1인가구 생활실태 및 특성을 제시했다. 20~30대 청년세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주거지원 및 주택정책, 지역사회안전, 결혼 진입 장벽 해소와 결혼문화 개선을 제안하였다. 40~50대 중년 세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준고령자 취업훈련 및 직업알선 연계 활성화, 지역사회 다양한 자녀돌봄 인프라의 구축 및 정보제공, 긴급 위기지원서비스 확대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가부장적 성 역할 및 가족문화의 전환 캠페인 확산, 다양한 가족의 삶을 수용하는 성숙한 사회문화 조성을 제안하였다. 70대 이상 노년세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증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 참여 촉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 고령 1인가구의 가족유대감 유지 강화 및 사회적 통합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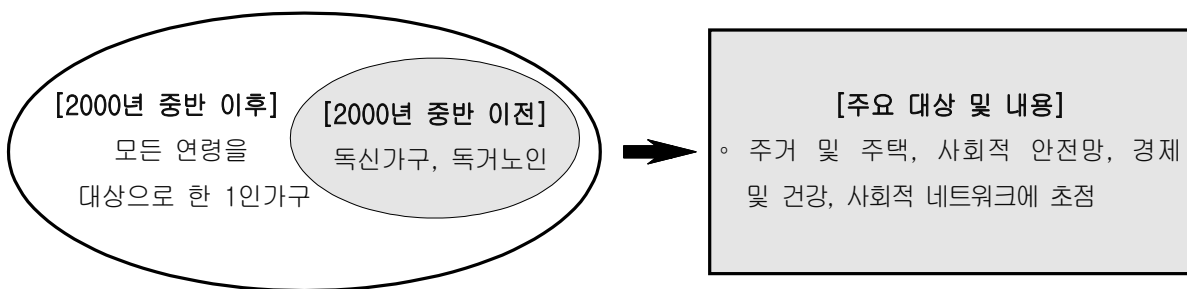
이명진 외(2014)는 1인가구가 인간 사회의 개인화와 개별화의 결과물로 관계적 고립과 단절로 사회적 연대와 통합 가치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1인가구는 이웃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우울감, 고립감, 슬픔을 느끼는 정도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가구의 증가 양상은 사적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 공적 부분에서 사회 통합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혜영(2014)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온 개인의 안전망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가족이 과거와 달리 질적으로 변화했지만,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족 기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인가구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II -2] 국내 연구동향 분석

구 분	주요 내용
김행신· 이영호(1998) 등	◦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윤소영 (2002) 등	◦ 독신가구 생활양식 및 경제적 특성
심 영(2002)	◦ 독신가구 생활실태 분석
변미리 외(2008)	◦ 모든 연령층 1인가구 분석
김도희(2012)	◦ 비자발적 1인가구 특성
정경희 외(2012)	◦ 연령별 1인가구 생활실태 및 특성
이명진 외(2014)	◦ 1인가구의 이웃관계 및 사회적 교류
김혜영(2014)	◦ 1인가구의 안전망 기능



[그림 II -1] 국내 선행연구 분석



[2] 국외 연구동향

세계적으로 1인가구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비교적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의 학술적 연구도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이명진 외, 2014).

1인가구의 초기 연구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로 선진국에서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1인가구 증가 영향요인 분석 규명 및 시계열적으로 변화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있다(Koesoebjono, 1983; Witte & Lahmann, 1988; Kennedy & Forde, 1990; Kaufmann, 1994; Hall et al., 1997).

2000년대에는 1인가구의 양상에 대한 변이가 크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접근도 다변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원인과 결과(Ogden & Schnoebelen, 2005)에서 1인가구 내에서의 다양성(Wulff, 2001),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정책(Bennett & Dixon, 2006), 1인가구를 위한 주거정책(Gram-Hanssen 외, 2009),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분절(Banks, Haynes, & Hill, 2009), 소득 문제(Quintano & D'Agostino, 2006) 등이 대표적이며, 1인가구는 사회적 약자로 접근하였다.

1인가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구유형으로 지형학적 및 인구 사회적 특성, 주택, 소비, 사회적 위험, 네트워크, 지역사회 참여, 이동 및 이민, 향후 변화 양상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Jamieson & Simpson, 2013; Yeung & Cheung,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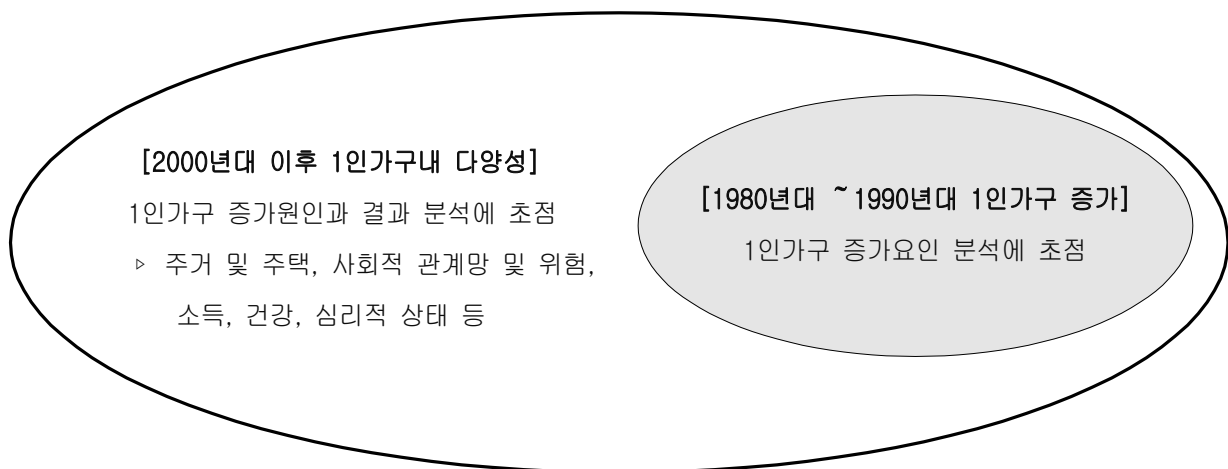
특히, 1인가구내 타겟팅하여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도 찾아 분석하였다.(Garthwaite, 2012). 1인가구들이 직면하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는 빈곤, 건강, 소외, 주택 등이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70~80대 1인가구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저하된 상황에서 배우자 사별로 인해서 혼자 거주하여 우울, 사회적 고립, 자기 방임, 자살 등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ite, 1995; Manzoli, Villari, Pirone, & Boccia, 2007; Zebhauser et al., 2014; Teerawichitchainan,



Knodel, & Pothisiri, 2015).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그리고 독일 등의 가구유형 중 1/3 이상이 1인가구로 구성된 북유럽 국가들은 1인가구의 건강과 심리적 상태에 주목 하였다 (Yeung & Cheng, 2015). 혼자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loneliness),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lower socioeconomic status)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논의하였다. 1인가구의 복리 상태(well-being)는 국가별로 사회보장제도, 문화, 인구구성 등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Raymo(2015)는 1인가구는 2인가구 이상보다 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가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와 사회적 참여는 다른 가구유형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 -2] 국외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

국내외 1인가구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몇 가지 특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1인가구의 증가 추이는 유럽 및 북미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본, 한



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1인가구가 보편적 가구유형이 되고 있다. 둘째, 1인가구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독거노인 중심에서 점차 청년층과 중년층의 1인가구로 확대되었다. 셋째, 1인가구는 동질의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 별로 질적 차이의 범위가 매우 넓게 존재하고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주요 연구 분야는 인구사회학 및 지형학적 특성, 생활양식(소비, 주택, 네트워크,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위험 등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넷째, 1인가구가 반드시 외로움, 사회적 고립,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로 연결되기 보다는 연구마다 혼합된 결과(mixed results)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별로 사회보장제도, 문화, 인구구성 차이 등에 따라서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이 다르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구형태 변화 및 1인가구 증가 및 특성, 관련연구 동향 등에 대한 분석으로 첫째,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및 정책적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별(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 및 안전, 일자리 및 소득) 유형에 대한 연구가 그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인가구 :
성별, 연령,
도시 및 농촌 등

주제별 :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그림 II -3] 시사점을 통한 본 연구의 주요 타겟



02 1인가구 국내외 주요정책

1) 국내 주요정책

(1) 생활지원

최근 우리 사회는 1인가구 증가와 더불어 고독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통계가 없는 죽음, 정확한 정의가 부족한 죽음이다(송인주, 2015). 이러한 고독사는 예전에는 독거노인에게 주로 발생을 했었고, 그 결과 독거노인 지원의 중요 사업으로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등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중장년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 -3] 시도별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시도	조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	●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 되어 있으며, 부산시와 경북²⁾은 고독사가 제외된 독거노인 지원 조

2) 경북지역 8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의성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례가 제정 되어 있다. 한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고독사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환경 및 안전

국내 1인가구 지원제도는 사실 노인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이민홍, 2015).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주를 이루고 있고, 공공실버주택도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며, 집 구조 변경 임대사업은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2010년 이후 1인가구의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수도권 주택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사회주택의 한 형태인 ‘쉐어하우스(share house)³⁾’ 등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생활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주택사업과 함께 청년사업가를 위한 ‘도전숙(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청년정책과 연계된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표 II -4]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정책명	주요 내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대학생 희망하우징	-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 하는 임대주택 -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대상,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4년)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45평 이하)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20%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예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다.

- 3) 쉐어 하우스란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더욱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 유형” 을 의미한다.



정책명	주요 내용
청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2016년 4월부터 무주택 1인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평균 1,000만~1,700만원, 월 임대료 11만~23만원 정도로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화곡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서대문구 홍은동에 공급
도전속	무주택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등 청년창업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건립한 소형 임대주택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
여성안심주택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한 여성가구 맞춤형 임대주택
‘더불어 숲’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서울시에서 매입한 민간토지에 사회주택을 건립하여 청년 1인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회주택

자료: 서울주택공사홈페이지(<http://www.i-sh.co.kr>); 장진희·김연재(2016)에서 재구성

국내 1인가구 주요정책은 크게 주거지원과 (특히 여성 거주자를 위한) 생활안전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었다. 즉 1인가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문제로 생활안전이 대두됨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택배보관함 서비스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생활안전지원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홈방범 서비스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찰청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안전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안전은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보다는 노인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저소득 1인가구 등과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욕구를 반영하여 안심 귀가서비스, 안심 택배서비스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계획 수립에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 -5] 여성 1인가구 생활안전지원 정책

정책명	주요 내용	주관기관/단체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 1인가구 여성이 느끼는 택배수령 과정에서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등
홍방범 서비스	◦ 여성 1인가구의 안전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경찰청이 민간보안 업체와 협약하여 저렴한 가격에 보안서비스 제공	경기도, 경찰청 등

자료: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고보혜(2015); 하정화·김현희·박진아(2014)에서 재구성

[3] 경제적 환경

고용지원서비스의 경우 자활과 관련된 부분은 저소득층 혹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거지원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인가구를 포함하여 저임금 근로자, 노인, 미취업 청년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여성 1인가구의 경제활동 지원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저임금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박 건·김연재, 2016). 여성 1인가구 인턴십이나 싱글여성 창업 지원,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등 사업의 영역을 일자리와 공동체 참여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나타났다.

[표 II -6] 여성 1인가구 고용 및 공동체 참여 관련 정책

구분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 내용
고용지원	여성1인가구 인턴십	싱글여성	◦ 전산세무회계, 방과후교사 등의 직무분야에 최장 6개월까지 취업(새일여성인턴제 일환)
	여성창업지원	싱글여성	◦ 여성창업플라자와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 공간 배정 ◦ 서울여성플라자 등 박스숍 우선 배정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싱글커뮤니티 지원	싱글여성	◦ 여성의료생활협동조합, 소셜다이닝 등 지원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1인가구	◦ 공간지원사업계획 수립시 1인가구 참여 프로그램 마련 ◦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공동부역조성 및 프로그램 마련)
	1인가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1인가구	◦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에 1인가구 마을 활동 참여 지정 공모 시행

자료: 박건·김연재(2016)에서 재구성



2) 국외 주요정책

(1) 생활지원 및 경제적 환경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국외 주요 정책은 첫째, 영국의 서클모델이 있다. 2007년에 창립된 영국의 사회적 기업 ‘Participle’이 주최가 되어 민간주도로 시행된 사회서비스 모델로, 노동연금 부를 비롯하여 Southwark 지방정부, SKY 케이블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서클모델⁴⁾은 런던 교외에 위치한 Southwark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일상생활문제 해결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타인과 유기적 관계, 배움과 자기개발을 통한 목적성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등 노인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미국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Community Services for the Elderly Program: CSE)⁵⁾을 추진하였다. 뉴욕시가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1979년 뉴욕 노인 법을 근거로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시설 내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노인, 즉 시설 내 보호로 오히려 생활능력이 떨어진 노인 등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면서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을 위해 식사 배달서비스(MEALS ON WHEELS: MOW)를 제공하였다. 노인 개개인의 건강, 문화, 식습관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식단이 구성되며, 노인은 노인센터나 지역시설, 카페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외출이 어려울 경우 집으로 식사를 배달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노인의 고립 및 단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셋째, 일본은 다양한 개호예방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호보험에서 요지원 인정을 받았거나 건강검진을 통해 일상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지원 예비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유형은 방문형

4) 50대 이상 장년층이 서클에 회원가입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각 지역 서클의 자원봉사자 또는 도우미로부터 받거나 반대로 자신이 지역 의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75세 이상 고령노인, 노인 1인가구 등이 대상자에 포함되며,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은 사례관리, 개인관리, 주간보호서비스, 교통지원 등이다.

서비스(대상자의 자택 방문 후 청소, 세탁 등 지원), 통소형 서비스(생활기능 향상을 위한 기능훈련(체조, 운동 등)을 주간서비스로 제공), 생활지원 서비스(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제공 등), 개호예방 케어매니지먼트(서비스들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작성)이 있다. 또한, 돌봄 지원에 있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추진하였다. 노인 1인가구 등과 같이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하되 필요한 일상생활지원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의 존엄한 생존과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출처: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그림 II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넷째, 프랑스는 간병·간호지원, 가정도우미 제도 및 노인빈곤층을 위한 수당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간병·간호지원(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한 제도이다. 건강상의 문제로 혼자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 대해 간병·간호를 지원한다. 가정도우미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써,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빈곤층을 위한 수당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이러한 사회보장에서 제외되고 노령연금도 받



지 못하는 노인빈곤층을 위해 제공되는 수당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1인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지원으로는 노령연대 수당이 있으며, 노인 1인가구의 연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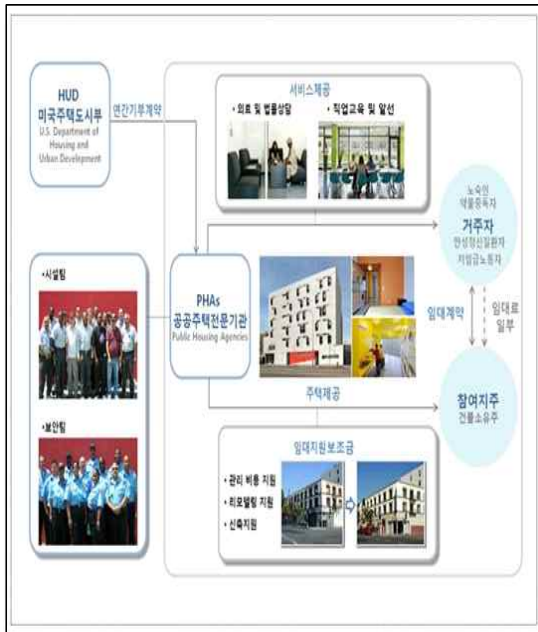
[2] 주거환경 및 안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에 관한 국외 주요정책을 살펴본다. 첫째, 영국은 1인가구 중 특히 청년층 혹은 고령인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소형 임대주택, 노인보호주택, 공동체 주도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였다. 영국에서 2011년 ‘지역주권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체 주도 주택(Community-led housing)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영국은 부담가능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s Programme; 소득과 비교해 높은 주택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무주택 중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저렴한 주택의 체계적 공급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 빈집 지역보조금 프로그램(Empty Home Community Grant Programme; 빈집의 개보수 비용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공동체 주택 공급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미국의 경우 주택정책의 기초는 자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은 공공부문에서 주택금융 시장을 통제하거나, 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 자금대출을 할 때 그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개인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였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인가구를 위하여 주택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택 금융 정책 혹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바우처 제도 등에 한정되어 있다. ‘싱글 룸 거주(Single Room Occupancy: SRO)’ 프로그램은 정부의 주도 하에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SRO 주택은 특수주거유형 중 하나이며, 노후화된 호텔, 이용되지 않는 학교, 공가 등과 같이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시설을 리모델링 혹은 신축한 주택이다. 이 주택은 저소득층, 노숙자, 저임금 노동자, 약물 중독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1인가구에게 공급되었다. 임대기간은 10년간 지속하며, 임대지원 보조금을 통해 일부 보수비용, 소유비용, 관리비용, 임대료 등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주택 바우처 발급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임차료를 보조하며, 월 소



득액 중 임차료의 비중이 일정 정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만큼을 보조하였다. 이러한 주택 바우처는 극빈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임차인 지원 바우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인가구는 소득수준을 포함한 기타 지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주택 바우처를 통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 : <http://www.srohousing.org/>.

【그림 II -5】 미국 SRO 지원체계



자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rf_hrcity&logNo=110186973362

【그림 II -6】 샌프란시스코 SRO : 낡은 호텔 개조

셋째, 일본은 1인가구가 다른 1인가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거비를 줄이고 정신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코하우징(co-hous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코하우징은 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독거노인 대상의 협동 주택으로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미국, 스웨덴 등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소형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함으로 인해 이를 관리하는 주택임대 관리기업이 발달하였다. 또한, 독립적인 개인 공간을 보장하되 부엌, 거실 등의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가 보급되었다.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일본을 비롯하여 덴마크, 영국 등에서 거주공간 해결 및 1인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세대별로 다른 1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요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청년 1인가구의 지원은 경제적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주거수당이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다. 그 유형으로 개인별 주거수당, 사회적 수당, 가족 주거수당, 노인 주거수당이 있다.

한편, 안전영역에 있어서는 택시정보제공 프로그램(Cabwise) 및 여성전용택시(Pink Taxi)를 추진하였다. 개인 승용차를 택시로 활용 및 개조한 불법택시 운전자에 의해 영국 런던에서 한 달에 약 10건씩 강간사건이 발생하여 불법 택시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택시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택시운전사가 여성만을 태우는 여성전용택시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 등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 등의 각 시 경찰국이 주최가 되어 만든 프로그램인 YANA 프로그램(You Are Not Alone Program: YANA)을 추진하였다. 은퇴한 경찰국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순찰대는 대상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단순한 안전 여부 뿐 아니라, 식사, 신체적 건강, 재정 등을 확인한다.

3) 국내외 주요정책 시사점

국내 1인가구지원 정책사례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용지원, 돌봄 및 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회보장제도가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정 나이 이상인 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1인가구는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건강 및 안전서비스에서 건강은 노인 1인가구를 포함한 노인 전체, 안전 관련 서비스는 여성 1인가구를 포함한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애 주기별 여성 1인가구의 건강 관련 서비스, 안전관련 서비스 등의 대상 층을 보다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주거지원의 내용 역시 대부분이 주택구입 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주택공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입주민을 위한 적절한 주거환경의 유지·관리 및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을 다루는 주택



정책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등도 무인 택배함의 설치·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택배함의 유지·관리 및 택배함 이용 등과 관련된 개선점·한계점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1인가구의 증가는 서유럽과 북미, 일본 등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외 1인가구지원 정책사례는 주거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뚜렷한 시점에 기존의 침체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동체 주도, 사회임대형 주택을 모색하는 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다.

[표 II -7] 국내외 주요정책 시사점

구 분	시사점
국내	◦ 1인가구지원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용지원, 돌봄 및 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 마련 ◦ 사회보장제도가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정 나이 이상인 자 등에 초점 → 조건을 갖추지 못한 1인가구는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 건강은 노인 1인가구를 포함한 노인 전체, 안전 관련 서비스는 여성 1인가구를 포함 → 생애 주기별 여성 1인가구의 건강 관련 서비스, 안전관련 서비스 등의 대상층을 보다 확대 필요 ◦ 주거지원의 내용 역시 대부분이 주택구입 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주택공급 등에 초점 → 적절한 주거환경의 유지·관리 및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을 다루는 주택정책 부족 ◦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등도 무인 택배함의 설치·공급에 초점→택배함의 유지·관리 및 택배함 이용 등과 관련된 개선점·한계점에 관한 논의 거의 전무
국외	◦ 국외 1인가구지원은 주거정책과 연관성이 높음 ◦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뚜렷한 시점에 기존의 침체된 임대주택을 활성화,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공동체 주도, 사회임대형 주택을 모색하는 정책이 활성화에 초점

Ⅲ. 경상북도 1인가구 현황 및 전망



Ⅲ. 경상북도 1인가구 현황 및 특성

01 경상북도 1인가구 구성 및 특성

1) 1인가구 구성 및 변화

2015년 경북지역 1인가구는 322천 가구로 일반가구(1,062천) 중 30.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6.4%, 여성 53.6%로 여성 1인 가구가 7.2%p 더 많다. 1990년대에 비해 18.1% 증가하였으며, 남성 1인가구는 10.6% 증가하였다.

[표 Ⅲ-1] 경북지역 1인가구 변화(1990 ~ 2015)

(단위 : 천 가구, %)

년도	일반가구	1인가구	비중	성별 구성비	
				남성	여성
1990년	788	96	12.2	35.8	64.2
1995년	824	130	15.8	34.6	65.4
2000년	887	163	18.4	34.5	65.5
2005년	938	224	23.9	38.1	61.9
2010년	1,005	289	28.8	42.1	57.9
2015년	1,062	322	30.3	46.4	53.6
증감 (‘90년 대비)	274	226	18.1	10.6	-10.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일반가구 대비 1인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국에 비해 경북은 2005년 3.9%p, 2010년 4.8%p, 2015년 3.1%p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전국 및 경북지역 일반가구 및 1인가구 구성비

(단위 : 가구, %)

구분		2005			2010			2015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일반가구	15,887,128	12,401,908	3,485,220	17,339,422	12,841,928	4,497,494	19,111,030	13,460,593	5,650,437
	1인가구	3,170,675	1,417,893	1,752,782	4,142,165	1,924,341	2,217,824	5,211,133	2,315,038	2,896,095
	구성비	20.0	11.0	41.0	24.0	15.0	49.0	27.2	17.1	51.3
경북	일반가구	938,840	720,600	218,240	1,005,348	737,488	267,861	1,062,724	742,354	320,370
	1인가구	224,661	85,582	139,029	289,704	121,887	167,817	322,569	149,660	172,909
	구성비	23.9	12.0	64.0	28.8	16.5	62.6	30.3	20.1	53.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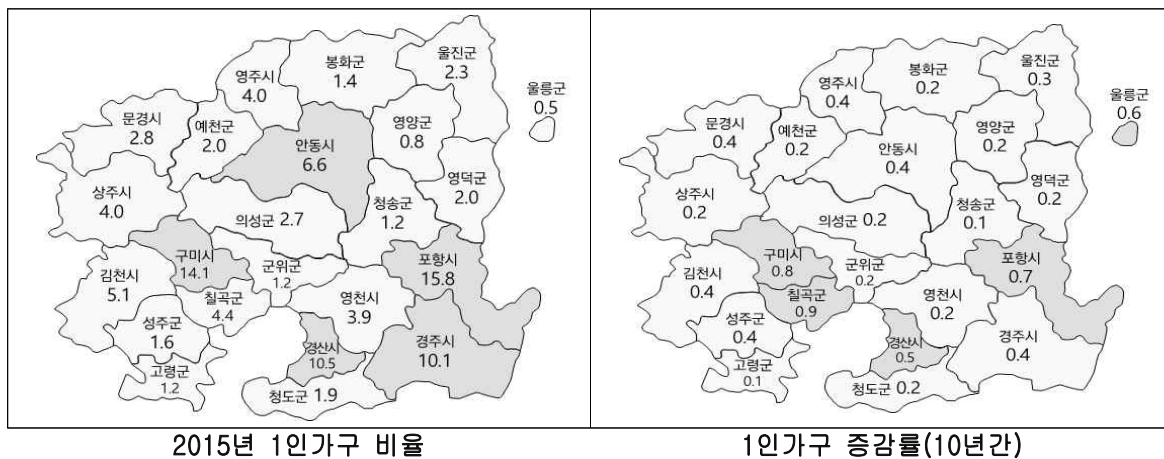
[표 Ⅲ-3] 시군별 일반가구 및 1인가구 구성(2015)

(단위 : 가구, %)

2015	일반 가구	구성비	1인 가구						
				일반 가구대비	구성비	남성	구성비	여성	구성비
경상북도	1,062,724	100.0	322,569	30.3	100.0	149,660	100.0	172,909	100.0
포항시	197,027	18.5	51,113	4.8	15.8	25,009	17.4	26,104	14.7
경주시	103,686	9.8	32,760	3.1	10.1	15,097	10.3	17,663	10.0
김천시	53,745	5.1	16,151	1.5	5.1	7,083	4.6	9,068	5.3
안동시	67,693	6.4	21,325	2.0	6.6	9,827	6.4	11,498	6.7
구미시	157,705	14.8	46,250	4.4	14.1	25,197	18.7	21,053	11.4
영주시	43,683	4.1	12,852	1.2	4.0	5,705	3.4	7,147	4.3
영천시	40,268	3.8	12,557	1.2	3.9	5,354	3.1	7,203	4.4
상주시	41,036	3.9	12,838	1.2	4.0	4,807	2.8	8,031	4.8
문경시	29,808	2.8	9,156	0.9	2.8	3,486	2.0	5,670	3.3
경산시	105,571	9.9	34,156	3.2	10.5	17,631	12.8	16,525	9.1
군위군	10,039	0.9	3,575	0.3	1.2	1,416	0.8	2,159	1.5
의성군	23,667	2.2	8,391	0.8	2.7	2,913	1.8	5,478	3.2
청송군	11,323	1.1	3,841	0.4	1.2	1,525	0.7	2,316	1.5
영양군	7,578	0.7	2,588	0.2	0.8	948	0.5	1,640	1.0
영덕군	16,819	1.6	6,144	0.6	2.0	1,982	1.2	4,162	2.4
청도군	17,991	1.7	6,017	0.6	1.9	2,023	1.1	3,994	2.4
고령군	13,627	1.3	4,030	0.4	1.2	1,704	1.0	2,326	1.4
성주군	17,035	1.6	5,130	0.5	1.6	2,229	1.1	2,901	2.0
칠곡군	46,243	4.4	13,932	1.3	4.4	7,634	5.3	6,298	3.8
예천군	18,803	1.8	6,236	0.6	2.0	2,252	1.3	3,984	2.4
봉화군	13,880	1.3	4,475	0.4	1.4	1,813	1.2	2,662	1.6
울진군	21,466	2.0	7,469	0.7	2.3	3,089	2.0	4,380	2.4
울릉군	4,031	0.4	1,583	0.1	0.5	936	0.6	647	0.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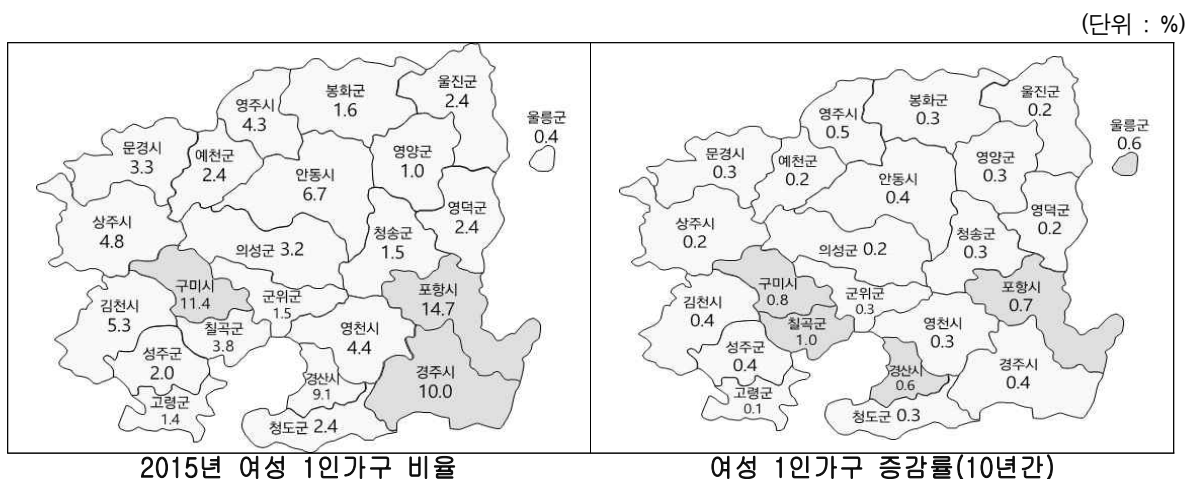
2015년 경북지역 1인가구는 약 322천 가구이며, 2005년 약 224천 가구에 비해 10년간 약 98천 가구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1인가구를 살펴보면, 여성 1인가구는 군 중심, 남성 1인가구는 시 중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군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에 많은 1인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1인가구의 증감률을 보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칠곡군,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그림 Ⅲ-1] 경북지역 1인가구 분포 현황

여성 1인가구는 약 172천 가구였으며,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에 많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여성 1인가구는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울릉군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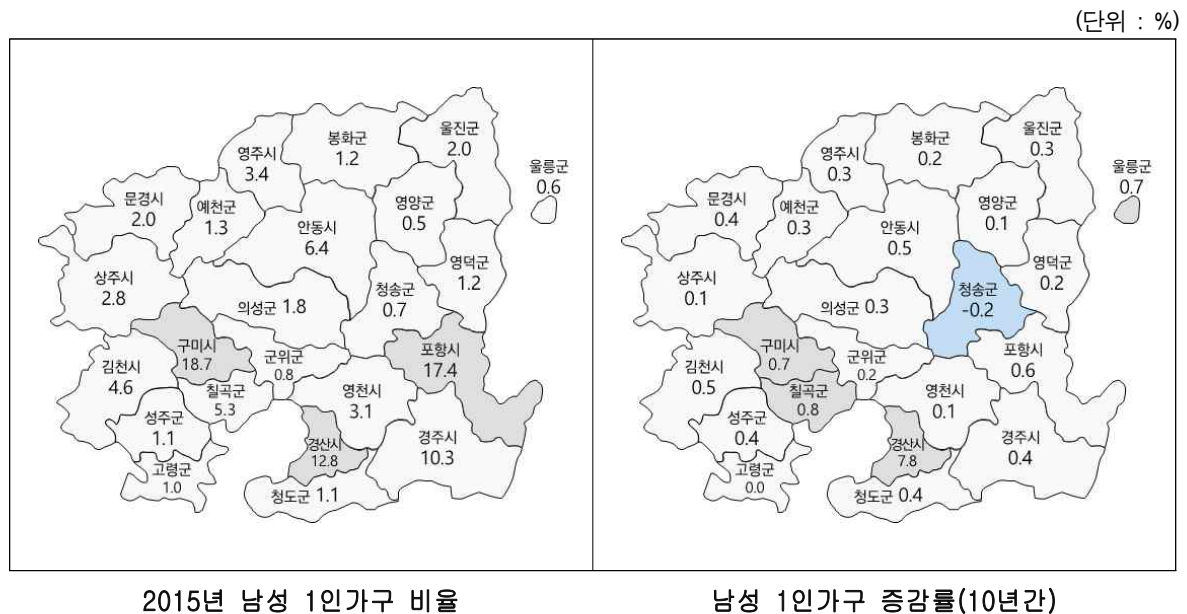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그림 Ⅲ-2]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 분포 현황



남성의 1인가구는 약 149천 가구였으며,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등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최근 10년간 남성 1인가구는 경산시에 많은 증가가 있었고, 청송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그림 Ⅲ-3] 경북지역 남성 1인가구 분포 현황

가구 유형별 가구 수 및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7년 전국의 경우 부부+자녀가구(30.4%)가 가장 많고, 1인가구(28.5%), 부부가구(16.0%)등의 순으로 많으나, 2045년에는 1인가구(36.3%), 부부가구(21.2%), 부부+자녀가구(15.9%)순으로 부부+자녀가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 및 부부가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경북지역은 2017년 1인가구(31.5%)가 가장 많고, 부부+자녀가구(24.4%), 부부가구(20.2%)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45년에도 1인가구(38.1%)가 가장 많고, 부부가구(21.7%), 부부+자녀가구(11.7%)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전국과 동일하게 2045년에는 부부+자녀가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 및 부부가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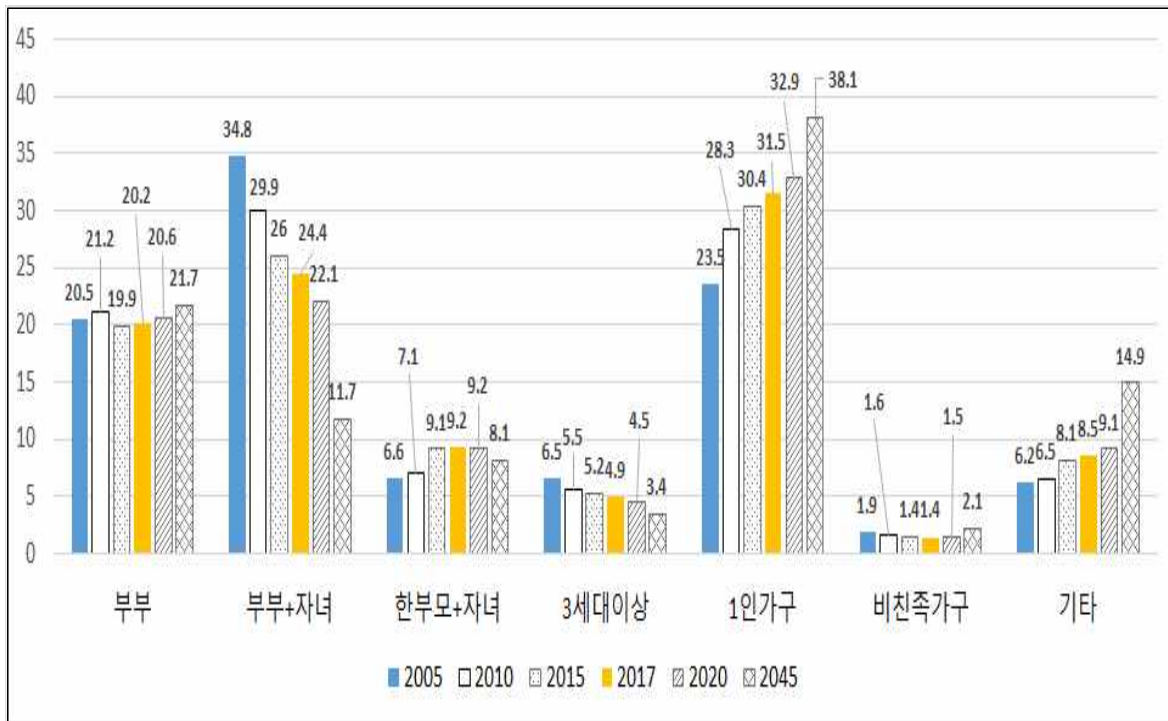


[표 Ⅲ-4] 가구 유형별 변화

(단위 : 가구, %)

구분	가구 유형	구성비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5	2045
전국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부	14.0	15.0	15.5	16.0	16.9	18.3	20.7	21.2
	부부+자녀	42.5	37.4	32.3	30.4	27.8	24.2	19.3	15.9
	한부모+자녀	8.6	9.2	10.8	10.9	11.0	11.0	10.6	10.1
	3세대이상	2.5	2.4	2.4	5.1	2.3	4.1	3.4	2.9
	1인가구	19.9	23.9	27.2	28.5	30.1	31.9	34.6	36.3
	비친족가구	1.4	1.2	1.1	1.2	1.2	1.3	1.2	1.3
	기타	11.0	10.9	10.7	7.9	10.8	9.3	10.3	12.3
경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부	20.5	21.2	19.9	20.2	20.6	21.5	22.6	21.7
	부부+자녀	34.8	29.9	26.0	24.4	22.1	19.0	14.6	11.7
	한부모+자녀	6.6	7.1	9.1	9.2	9.2	9.1	8.7	8.1
	3세대이상	6.5	5.5	5.2	4.9	4.5	4.1	3.6	3.4
	1인가구	23.5	28.3	30.4	31.5	32.9	34.4	36.9	38.1
	비친족가구	1.9	1.6	1.4	1.4	1.5	1.6	1.7	2.1
	기타	6.2	6.4	8.0	8.5	9.2	10.3	11.8	14.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그림 Ⅲ-4] 경북지역 가구 유형별 변화

2) 시·군 세대별 1인가구 특성

경북지역 연령별 1인가구 구성비 변화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70세 이상 노년층에서 남성은 60세 미만 청장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60세 이하의 모든 연령대 인구에서도 1인가구 비중은 골고루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혼 및 비혼, 이혼 등으로 인한 젊은 층의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가족형태 및 가족가치관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5] 경북지역 연령별 1인가구 수 및 구성비

(단위 : 가구, %)

구분	연령	2005		2010		2015	
		1인가구	구성비	1인가구	구성비	1인가구	구성비
계	합계	224,611	100	289,704	100	322,569	100
	20세미만	3,272	1.45	4,213	1.8	3,151	0.9
	20~29세	37,634	16.7	46,931	20.8	46,448	14.3
	30~39세	26,876	11.9	37,436	16.6	46,448	14.3
	40~49세	25,716	11.4	34,615	15.4	44,108	13.67
	50~59세	26,256	11.6	39,779	17.71	43,615	13.5
	60~69세	40,139	17.8	41,317	18.3	46,179	14.3
	70세 이상	64,628	28.7	85,413	38.0	85,151	26.3
남성	합계	85,582	100	121,887	100	149,658	100
	20세미만	1,736	2.0	2,315	1.8	1,715	1.1
	20~29세	22,034	25.7	27,176	22.2	27,201	18.1
	30~39세	18,306	21.3	25,858	21.2	29,866	19.9
	40~49세	14,497	16.9	21,244	17.4	28,261	18.8
	50~59세	11,215	13.1	19,442	15.9	28,731	19.1
	60~69세	8,673	10.1	12,142	9.9	17,794	11.8
	70세 이상	9,121	10.6	13,710	11.2	16,090	10.7
여성	합계	139,029	100	167,817	100	172,908	100
	20세미만	1,536	1.1	1,898	1.1	1,436	0.8
	20~29세	156,90	11.2	19,755	11.7	19,247	11.1
	30~39세	8,570	6.1	11,578	6.8	14,242	8.2
	40~49세	112,19	8.0	17,665	10.5	15,354	8.8
	50~59세	15,041	10.8	22,453	13.3	25,183	14.5
	60~69세	31,864	22.9	41,452	24.7	28,385	16.4
	70세 이상	55,507	39.9	23,273	13.8	69,061	39.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또한, 연령별 1인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은 2017년 39세 이하(35.9%), 40~59세 이하(32.7%), 60세 이상(31.4%) 순이며, 2045년은 60세 이상(54.0%), 40~59세 이하(24.1%), 39



세 이하(21.9%) 순으로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달리 경북지역 연령별 1인가구 구성은 2017년 60세 이상(41.6%), 40~59세 이하(29.9%), 39세 이하(28.5%) 순이며, 2045년에는 60세 이상(63.6%), 40~59세 이하(19.8%), 39세 이하(16.5%)로 1인가구 중 노년층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6] 연령별 1인가구 변화

(단위 : 가구, %)

구분	연령대		2017	2025	2035	2045	2017년 대비 2045년	
							증감	증감률(%)
전국	전체 1인가구	가구 수	5,562,048	6,700,512	7,634,774	8,098,369	2,536,321	45.6
		구성비	28.5	31.9	34.6	36.3		
	39세 이하	가구 수	1,996,069	2,085,005	1,914,906	1,771,667	-224,402	-11.2
		구성비	35.9	31.1	25.1	21.9		
	40~59세 이하	가구 수	1,817,088	2,037,350	2,039,473	1,954,305	137,217	7.6
		구성비	32.7	30.4	26.7	24.1		
	60세 이상	가구 수	1,748,891	2,578,157	3,680,395	4,372,397	2,623,506	150.0
		구성비	31.4	38.5	48.2	54.0		
경북	전체 1인가구	가구 수	342,217	391,648	439,160	461,383	119,166	34.8
		구성비	31.5	34.4	36.9	38.1		
	39세 이하	가구 수	97,592	95,516	85,802	76,344	-21,248	-21.8
		구성비	28.5	24.4	19.5	16.5		
	40~59세 이하	가구 수	102,309	108,456	100,970	91,558	-10,751	-10.5
		구성비	29.9	27.7	23.0	19.8		
	60세 이상	가구 수	142,316	187,676	252,388	293,481	151,165	106.2
		구성비	41.6	47.9	57.5	63.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2015년 경북지역 1인가구의 세대별 특성⁶⁾을 살펴보면, 청년(59.4%)과 중장년(52.9%)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년의 경우 여성(81.4%)이 남성(18.6%)보다 4.4배 정도 많았다. 전국도 경북지역과 비슷한 양상이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것이 그 요인일 것이다.

[표 Ⅲ-7] 세대별 1인가구(2015)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	전체	남성	여성
전국	계	5,152,497 (100.0)	2,286,037 (44.4)	2,866,460 (55.6)
	청년	1,642,945 (100.0)	935,674 (57.0)	707,271 (43.0)
	중장년	1,620,456 (100.0)	893,239 (55.1)	727,217 (44.9)
	노년	1,889,096 (100.0)	457,124 (24.2)	1,431,972 (75.8)
경북	계	321,533 (100.0)	121,332 (37.7)	200,201 (62.3)
	청년	77,902 (100.0)	46,258 (59.4)	31,644 (40.6)
	중장년	86,989 (100.0)	45,992 (52.9)	40,997 (47.1)
	노년	156,642 (100.0)	29,082 (18.6)	127,560 (81.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20%표본 자료 분석, 2015

6)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에서 1인가구 및 20% 표본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대별 분류는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20~39세(청년), 40~59세(중장년), 60세 이상(노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인가구 세대별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경북지역 청년의 경우 대학교 졸업(44.9%)이 가장 많았고, 중장년은 고등학교(45.9%)가 가장 많았다. 노년은 초등학교(41.2%)가 가장 많았다. 전국과 비교하면 청년, 중장년, 노년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Ⅲ-8] 세대별 1인가구의 교육정도(2015)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	안받았음 (미취학 포함)
전국	계	5,152,497 (100.0)	818,168 (15.9)	513,955 (10.0)	1,370,377 (26.6)	517,284 (10.0)	1,216,166 (23.6)	229,188 (4.4)	487,359 (9.5)
	청년	1,642,945 (100.0)	0 (0.0)	14,694 (0.9)	348,719 (21.2)	331,674 (20.2)	828,274 (50.4)	119,258 (7.3)	326 (0.0)
	중장년	1,620,456 (100.0)	114,402 (7.1)	212,389 (13.1)	737,522 (45.5)	156,599 (9.7)	304,769 (18.8)	90,817 (5.6)	3,958 (0.2)
	노년	1,889,096 (100.0)	703,766 (37.3)	286,872 (15.2)	284,136 (15.0)	29,011 (1.5)	83,123 (4.4)	19,113 (1.0)	483,075 (25.6)
경북	계	321,533 (100.0)	72,367 (22.5)	31,943 (9.9)	72,969 (22.7)	28,624 (8.9)	51,047 (15.9)	7,410 (2.3)	57,173 (17.8)
	청년	77,902 (100.0)	0 (0.0)	873 (1.1)	20,412 (26.2)	18,581 (23.9)	34,992 (44.9)	3,009 (3.9)	35 (0.0)
	중장년	86,989 (100.0)	7,825 (9.0)	13,443 (15.5)	39,928 (45.9)	8,681 (10.0)	13,157 (15.1)	3,586 (4.1)	369 (0.4)
	노년	156,642 (100.0)	64,542 (41.2)	17,627 (11.3)	12,629 (8.1)	1,362 (0.9)	2,898 (1.9)	815 (0.5)	56,769 (36.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20%표본 자료 분석, 2015

세대별 1인가구의 사회활동을 살펴보면, 경북지역 청년은 문화분야(9.3%)가 가장 많았고, 중장년과 노년은 친목단체(각각 16.7%, 7.5%)가 가장 많았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인적 네트워크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9] 세대별 1인가구의 사회활동(2015)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	계	사회 분야 단체	경제 분야 단체	문화 분야 단체	정치 분야 단체	종교 분야 단체	지역 단체	친목 단체	교육 단체	기타	없음
전국	계	5,152,497 (100.0)	156,738 (3.0)	39,819 (0.8)	402,167 (7.8)	10,621 (0.2)	293,870 (5.7)	50,169 (1.0)	557,082 (10.8)	34,350 (0.7)	3,209 (0.1)	3,957,702 (76.8)
	청년	1,642,945 (100.0)	51,323 (3.1)	14,386 (0.9)	189,117 (11.5)	3,041 (0.2)	49,866 (3.0)	3,349 (0.2)	148,680 (9.0)	13,165 (0.8)	990 (0.1)	1,272,805 (77.5)
	중장년	1,620,456 (100.0)	63,874 (3.9)	20,241 (1.2)	142,106 (8.8)	5,271 (0.3)	88,765 (5.5)	14,371 (0.9)	237,963 (14.7)	16,237 (1.0)	1,133 (0.1)	1,185,709 (73.2)
	노년	1,889,096 (100.0)	41,541 (2.2)	5,192 (0.3)	70,944 (3.8)	2,309 (0.1)	155,239 (8.2)	32,449 (1.7)	170,439 (9.0)	4,948 (0.3)	1,086 (0.1)	1,499,188 (79.4)
경북	계	321,533 (100.0)	9,397 (2.9)	2,247 (0.7)	17,938 (5.6)	572 (0.2)	14,110 (4.4)	4,233 (1.3)	32,792 (10.2)	2,071 (0.6)	135 (0.0)	256,782 (79.9)
	청년	77,902 (100.0)	2,245 (2.9)	770 (1.0)	7,275 (9.3)	82 (0.1)	1,592 (2.0)	183 (0.2)	6,429 (8.3)	769 (1.0)	12 (0.0)	62,654 (80.4)
	중장년	86,989 (100.0)	4,265 (4.9)	1,156 (1.3)	7,197 (8.3)	358 (0.4)	4,451 (5.1)	1,161 (1.3)	14,566 (16.7)	1,028 (1.2)	33 (0.0)	62,266 (71.6)
	노년	156,642 (100.0)	2,887 (1.8)	321 (0.2)	3,466 (2.2)	132 (0.1)	8,067 (5.1)	2,889 (1.8)	11,797 (7.5)	274 (0.2)	90 (0.1)	131,862 (84.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20%표본 자료 분석, 2015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제약에 대해 경북지역 세대별 1인가구를 살펴보면, 청년 98.6%, 중장년 92.8%, 노년 62.5% 순으로 제약이 없다고 나타났다. 제약이 있는 경우는 중장년과 노년에서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의 육체적 제약 비율이 높았다.



[표 Ⅲ-10] 세대별 1인가구의 활동제약(2015)

(단위 : 가구, %)

구 분	세 대	계	제약 없음	제약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국	계	5,152,497 (100.0)	4,355,826 (84.5)	796,671 (15.5)	55,582 (1.1)	99,879 (1.9)	23,520 (0.5)	22,202 (0.4)	39,469 (0.8)	654,369 (12.7)	14,265 (0.3)	54,623 (1.1)
	청년	1,642,945 (100.0)	1,618,061 (98.5)	24,884 (1.5)	2,909 (0.2)	2,522 (0.2)	1,921 (0.1)	175 (0.01)	616 (0.04)	13,294 (0.8)	2,095 (0.1)	5,740 (0.3)
	중장년	1,620,456 (100.0)	1,498,183 (92.5)	122,273 (7.5)	10,470 (0.6)	8,757 (0.5)	6,791 (0.4)	829 (0.05)	7,788 (0.48)	80,163 (4.9)	6,569 (0.4)	22,987 (1.4)
	노년	1,889,096 (100.0)	1,239,582 (65.6)	649,514 (34.4)	42,203 (2.2)	88,600 (4.7)	14,808 (0.8)	21,198 (1.12)	31,065 (1.64)	560,912 (29.7)	5,601 (0.3)	25,896 (1.4)
경 북	계	321,533 (100.0)	255,498 (79.5)	66,035 (20.5)	4,140 (1.3)	9,097 (2.8)	1,712 (0.5)	1,576 (0.48)	2,740 (0.85)	55,889 (17.4)	1,011 (0.3)	3,212 (1.0)
	청년	77,902 (100.0)	76,835 (98.6)	1,067 (1.4)	76 (0.1)	152 (0.2)	84 (0.1)	12 (0.02)	37 (0.05)	490 (0.6)	118 (0.2)	273 (0.4)
	중장년	86,989 (100.0)	80,747 (92.8)	6,242 (7.2)	471 (0.5)	458 (0.5)	366 (0.4)	32 (0.04)	363 (0.42)	3,986 (4.6)	377 (0.4)	1,257 (1.4)
	노년	156,642 (100.0)	97,916 (62.5)	58,726 (37.5)	3,593 (2.3)	8,487 (5.4)	1,262 (0.8)	1,532 (0.98)	2,340 (1.49)	51,413 (32.8)	516 (0.3)	1,682 (1.1)

주 :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언어장애 ④ 치매 ⑤ 뇌졸중(중풍) ⑥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에 어려움이 있는 육체적 제약 ⑦ 지적·자폐성 장애 ⑧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⑨ 제약없음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20%표본 자료 분석, 2015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인가구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경북지역 청년은 1년 미만(45.8%)이 가장 많았고, 중장년은 5~10년(21.9%), 1년 미만(20.9%) 순이었다. 노년은 25년 이상(53.4%), 5~10년(12.5%) 순으로 한 집에서 머문 경우는 노년이 월등히 높았다. 전국과 비교해 보면, 청년은 1년 미만에서 2년 사이 짧게 거주하는 경우는 경북지역이 더 높았으며, 노년의 경우 25년 이상(53.4%) 거주한 경우가 전국(30.3%)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었다.

[표 Ⅲ-11] 세대별 1인가구의 거주기간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	계	1년 미만	1~2	2~3	3~5	5~10	10~15	15~20	20~25	25년 이상
전국	계	5,152,497 (100.0)	1,207,481 (23.4)	736,911 (14.3)	466,366 (9.1)	484,589 (9.4)	906,958 (17.6)	336,730 (6.5)	202,894 (3.9)	181,039 (3.5)	629,529 (12.2)
	청년	1,642,945 (100.0)	693,394 (42.2)	382,204 (23.3)	190,151 (11.6)	171,838 (10.5)	160,690 (9.8)	21,463 (1.3)	10,284 (0.6)	7,143 (0.4)	5,778 (0.4)
	중장년	1,620,456 (100.0)	362,243 (22.4)	236,076 (14.6)	173,422 (10.7)	191,340 (11.8)	383,368 (23.7)	120,326 (7.4)	61,830 (3.8)	39,578 (2.4)	52,273 (3.2)
	노년	1,889,096 (100.0)	151,844 (8.0)	118,631 (6.3)	102,793 (5.4)	121,411 (6.4)	362,900 (19.2)	194,941 (10.3)	130,780 (6.9)	134,318 (7.1)	571,478 (30.3)
경북	계	321,533 (100.0)	60,641 (18.9)	37,400 (11.6)	21,945 (6.8)	23,298 (7.2)	44,460 (13.8)	18,386 (5.7)	12,719 (4.0)	12,809 (4.0)	89,875 (28.0)
	청년	77,902 (100.0)	35,669 (45.8)	19,499 (25.0)	8,158 (10.5)	7,143 (9.2)	5,752 (7.4)	823 (1.1)	230 (0.3)	257 (0.3)	371 (0.5)
	중장년	86,989 (100.0)	18,142 (20.9)	11,821 (13.6)	8,325 (9.6)	9,664 (11.1)	19,057 (21.9)	7,033 (8.1)	4,066 (4.7)	3,092 (3.6)	5,789 (6.7)
	노년	156,642 (100.0)	6,830 (4.4)	6,080 (3.9)	5,462 (3.5)	6,491 (4.1)	19,651 (12.5)	10,530 (6.7)	8,423 (5.4)	9,460 (6.0)	83,715 (53.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20%표본 자료 분석, 2015



세대별 1인가구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지역 청년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27.4%)가 가장 많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3.1%), 사무 종사자(17.0%) 순이었다. 중장년은 서비스 종사자(17.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6.6%), 단순 노무 종사자(15.8%) 순이다. 노년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42.7%)가 가장 높고, 단순 노무 종사자(30.6%) 순이었다. 전국 1인가구는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경북지역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세대별 1인가구의 직업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국	계	2,861,818 (100.0)	32,222 (1.1)	581,037 (20.3)	415,992 (14.5)	370,878 (13.0)	306,718 (10.7)	143,232 (5.0)	269,754 (9.4)	325,630 (11.4)	404,939 (14.1)	11,416 (0.4)
	청년	1,194,582 (100.0)	9,736 (0.8)	381,581 (31.9)	251,505 (21.1)	134,007 (11.2)	139,958 (11.7)	2,680 (0.2)	86,070 (7.2)	124,814 (10.4)	55,783 (4.7)	8,448 (0.7)
	중장년	1,191,009 (100.0)	20,067 (1.7)	176,931 (14.9)	149,930 (12.6)	176,382 (14.8)	132,515 (11.1)	28,580 (2.4)	155,849 (13.1)	166,758 (14.0)	181,035 (15.2)	2,962 (0.2)
	노년	476,227 (100.0)	2,419 (0.5)	22,525 (4.7)	14,557 (3.1)	60,489 (12.7)	34,245 (7.2)	111,972 (23.5)	27,835 (5.8)	34,058 (7.2)	168,121 (35.3)	6 (0.0)
경북	계	163,920 (100.0)	1,046 (0.6)	21,880 (13.3)	16,226 (9.9)	20,577 (12.6)	11,570 (7.1)	24,417 (14.9)	13,620 (8.3)	27,128 (16.5)	27,106 (16.5)	350 (0.2)
	청년	53,146 (100.0)	193 (0.4)	12,297 (23.1)	9,039 (17.0)	5,024 (9.5)	4,030 (7.6)	285 (0.5)	4,623 (8.7)	14,565 (27.4)	2,823 (5.3)	267 (0.5)
	중장년	64,976 (100.0)	777 (1.2)	8,252 (12.7)	6,534 (10.1)	11,116 (17.1)	5,288 (8.1)	4,554 (7.0)	7,362 (11.3)	10,763 (16.6)	10,249 (15.8)	81 (0.1)
	노년	45,798 (100.0)	76 (0.2)	1,331 (2.9)	653 (1.4)	4,437 (9.7)	2,252 (4.9)	19,578 (42.7)	1,635 (3.6)	1,800 (3.9)	14,034 (30.6)	2 (0.0)

주 : 1) 취업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2)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기타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20%표본 자료 분석, 2015



세대별 1인가구의 취업상태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경북지역 청년과 중장년은 제조업(각각 38.7%, 18.3%), 노년은 농업, 임업 및 어업(56.2%)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청년과 중장년은 제조업(각 19.8%, 16.5%)이 가장 많고, 노년은 농업, 임업 및 어업(3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세대별 1인가구의 산업별 취업

(단위 : 가구, %)

구분	전국				경상북도			
	계	청년	중장년	노년	계	청년	중장년	노년
계	2,861,818 (100.0)	1,194,582 (100.0)	1,191,009 (100.0)	476,227 (100.0)	163,920 (100.0)	53,146 (100.0)	64,976 (100.0)	45,798 (100.0)
①	187,021 (6.5)	3,604 (0.3)	37,132 (3.1)	146,285 (30.7)	32,067 (19.6)	360 (0.7)	5,954 (9.2)	25,753 (56.2)
②	2,198 (0.1)	773 (0.1)	1,193 (0.1)	232 (0.0)	104 (0.1)	16 (0.0)	51 (0.1)	37 (0.1)
③	465,022 (16.2)	236,592 (19.8)	196,460 (16.5)	31,970 (6.7)	34,858 (21.3)	20,550 (38.7)	11,923 (18.3)	2,385 (5.2)
④	13,083 (0.5)	5,732 (0.5)	6,627 (0.6)	724 (0.2)	1,271 (0.8)	603 (1.1)	605 (0.9)	63 (0.1)
⑤	8,625 (0.3)	2,495 (0.2)	4,727 (0.4)	1,403 (0.3)	611 (0.4)	241 (0.5)	289 (0.4)	81 (0.2)
⑥	197,055 (6.9)	49,954 (4.2)	125,910 (10.6)	21,191 (4.4)	10,129 (6.2)	2,207 (4.2)	6,760 (10.4)	1,162 (2.5)
⑦	360,147 (12.6)	170,177 (14.2)	148,724 (12.5)	41,246 (8.7)	13,538 (8.3)	4,819 (9.1)	6,034 (9.3)	2,685 (5.9)
⑧	127,936 (4.5)	35,470 (3.0)	71,412 (6.0)	21,054 (4.4)	4,712 (2.9)	1,187 (2.2)	2,784 (4.3)	741 (1.6)
⑨	286,682 (10.0)	98,233 (8.2)	144,472 (12.1)	43,977 (9.2)	16,479 (10.1)	3,684 (6.9)	9,475 (14.6)	3,320 (7.2)
⑩	96,817 (3.4)	71,715 (6.0)	23,548 (2.0)	1,554 (0.3)	1,310 (0.8)	733 (1.4)	536 (0.8)	41 (0.1)
⑪	90,782 (3.2)	39,722 (3.3)	31,589 (2.7)	19,471 (4.1)	2,432 (1.5)	961 (1.8)	1,308 (2.0)	163 (0.4)
⑫	68,306 (2.4)	16,596 (1.4)	32,239 (2.7)	19,471 (4.1)	2,294 (1.4)	523 (1.0)	1,092 (1.7)	679 (1.5)
⑬	159,634 (5.6)	85,598 (7.2)	37,905 (3.2)	36,131 (7.6)	3,229 (2.0)	1,715 (3.2)	1,338 (2.1)	176 (0.4)
⑭	160,109 (5.6)	54,716 (4.6)	82,246 (6.9)	23,147 (4.9)	6,649 (4.1)	2,202 (4.1)	3,334 (5.1)	1,113 (2.4)
⑮	95,995 (3.4)	48,037 (4.0)	35,083 (2.9)	12,875 (2.7)	6,764 (4.1)	2,268 (4.3)	2,200 (3.4)	2,296 (5.0)
⑯	205,796 (7.2)	104,989 (8.8)	66,103 (5.6)	34,704 (7.3)	9,307 (5.7)	4,848 (9.1)	3,759 (5.8)	700 (1.5)
⑰	148,438 (5.2)	87,583 (7.3)	55,580 (4.7)	5,275 (1.1)	8,712 (5.3)	3,070 (5.8)	3,163 (4.9)	2,479 (5.4)
⑱	73,727 (2.6)	30,886 (2.6)	21,719 (1.8)	21,122 (4.4)	2,511 (1.5)	1,216 (2.3)	975 (1.5)	320 (0.7)
⑲	118,540 (4.1)	51,002 (4.3)	62,432 (5.2)	5,106 (1.1)	6,629 (4.0)	1,893 (3.6)	3,243 (5.0)	1,493 (3.3)
⑳	10,506 (0.4)	343 (0.0)	5,057 (0.4)	5,106 (1.1)	199 (0.1)	6 (0.0)	91 (0.1)	102 (0.2)
㉑	1,410 (0.0)	365 (0.0)	851 (0.1)	194 (0.0)	115 (0.1)	44 (0.1)	62 (0.1)	9 (0.0)

주 : 1) 취업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함.

- 2)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㉑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20%표본 자료 분석, 2015



02

경상북도 여성 1인가구 특성

1) 생활지원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1인가구 스트레스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청년 30.3%(매우 많이 느꼈다 4.7% + 느끼는 편이다 25.6%), 중장년 47.5%(매우 많이 느꼈다 7.7% + 느끼는 편이다 39.8%), 노년 35.5%(매우 많이 느꼈다 3.0% + 느끼는 편이다 32.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청년 45.4%(매우 많이 느꼈다 7.4% + 느끼는 편이다 38.0%), 중장년 58.8%(매우 많이 느꼈다 5.6% + 느끼는 편이다 48.2%), 노년 45.6%(매우 많이 느꼈다 7.1% + 느끼는 편이다 38.5%)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남녀 모두 중장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경북지역 1인가구의 스트레스(전반적인 일상생활) 인식 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많이 느꼈다	느끼는 편이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합계
청년	남성	7.4	38.0	43.9	10.7	100.0
	여성	4.7	25.6	63.1	6.6	100.0
중장년	남성	5.6	48.2	43.0	3.3	100.0
	여성	7.7	39.8	46.2	6.4	100.0
노년	남성	7.1	38.5	32.3	22.1	100.0
	여성	3.0	32.5	49.8	14.7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가정생활에서의 1인가구는 여성의 경우 청년 12.7%(매우 많이 느꼈다 4.7% + 느끼는 편이다 8.0%), 중장년 38.9%(매우 많이 느꼈다 7.3% + 느끼는 편이다 31.6%),



노년 32.8%(매우 많이 느꼈다 1.9% + 느끼는 편이다 30.9%)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으로 중장년 여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청년 32.1%((매우 많이 느꼈다 7.4% + 느끼는 편이다 24.7%), 중장년 38.0%(매우 많이 느꼈다 7.0% + 느끼는 편이다 31.0%), 노년 43.4%(매우 많이 느꼈다 7.1% + 느끼는 편이다 36.3%)로 나타나 노년에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정생활에서도 1인가구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경북지역 1인가구의 스트레스(가정생활) 인식 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많이 느꼈다	느끼는 편이다	느끼지 않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합계
청년	남성	7.4	24.7	47.4	20.6	100.0
	여성	4.7	8.0	80.7	6.6	100.0
중장년	남성	7.0	31.0	54.6	7.4	100.0
	여성	7.3	31.6	46.9	14.1	100.0
노년	남성	7.1	36.3	34.5	22.1	100.0
	여성	1.9	30.9	50.8	16.4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여가활용 방법에서 전체가구는 TV 시청이 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휴식활동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여성 역시 TV 시청이 6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휴식활동 14.9%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은 휴식활동이 67.3%로 가장 높았으며, TV 시청 1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경북지역 여가활동 방법

(단위 : %)

구분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취미 자기 계발	휴식 활동 (수면, 사우나)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전체	40.9	5.3	0.3	0.6	7.5	7.1	9.5	5.7	18.0	4.7	0.5
1인가구	46.7	4.6	0.2	0.5	7.1	3.1	9.5	4.4	17.8	5.7	0.4
남성	19.4	0.6	0.2	0.6	3.2	0.0	5.5	2.7	67.3	0.5	0.0
여성	65.0	1.4	0.4	0.3	3.3	1.2	4.9	3.8	14.9	4.3	0.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여가활동 만족도는 1인 가구는 만족 23.0%(매우만족 4.0% + 약간만족 19.0%)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만족 19.9%(매우만족 2.8% + 약간만족 17.1%)로 불만족 28.8%(매우불만 9.4% + 약간불만 19.4%)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가구는 만족이 26.5%(매우만족 5.4% + 약간만족 21.1%), 불만족 24.8%(매우불만 6.7% + 약간불만 18.1%)로 만족하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는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경북지역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합계
전체	5.1	21.8	49.3	18.9	4.9	100.0
1인가구	4.0	19.0	50.0	18.8	8.1	100.0
남성	5.4	21.1	48.6	18.1	6.7	100.0
여성	2.8	17.1	51.3	19.4	9.4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는 전체가구와 1인가구 모두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인가구는 경제적 부담 41.9%, 건강상 이유 32.1%, 시간부족 14.9%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건강상 이유 40.6%, 경제적 부담 38.3%, 시간부족 12.0% 순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1인가구는 경제적 부담 46.7%, 건강상 이유 20.9%, 시간부족 18.6%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건강 때문이지만, 남성 1인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18] 경북지역 여가활동 불만족 사유

(단위 : %)

구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수단 불편	여가 시설 부족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건강상 이유	동반자 없음	합계
전체	47.3	23.6	1.7	2.0	1.5	3.2	18.3	1.9	100.0
1인가구	41.9	14.9	3.1	0.0	0.6	2.0	32.1	5.4	100.0
남성	46.7	18.6	5.7	0.0	1.5	1.7	20.9	5.0	100.0
여성	38.3	12.0	1.2	0.0	0.0	2.2	40.6	5.7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사회적 관계별 소통 정도에 있어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는 전체가구 ‘있다’ 76.1% 비해 1인가구는 ‘있다’ 71.5%로 도움을 청할 경우 지원 받을 사람이 전체가구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도움(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도 전체가구는 ‘있다’ 48.7%에 비해 1인가구는 ‘있다’ 41.3%로 전체가구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지원(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가구 ‘있다’ 83.2%에 비해 1인가구의 경우 ‘있다’ 76.9%로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별 소통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여성 70.9%, 남성 72.3%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도움(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이 필요한 경우 여성은 29.1%, 남성 27.7%, 심리적 지원(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여성 77.3%, 남성 76.5%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여성 1인가구가 경제적 지원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약간 더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9] 경북지역 사회적 관계별 소통 정도

(단위 : %)

구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있다	평균 인원	없다	있다	평균 인원	없다	있다	평균 인원	없다
전체	76.1	2.5	23.9	48.7	2.3	51.3	83.2	2.9	16.8
1인가구	71.5	2.5	28.5	41.3	2.3	58.7	76.9	3.0	23.1
남성	72.3	2.8	27.7	46.3	2.5	53.7	76.5	3.2	23.5
여성	70.9	2.5	29.1	36.9	2.4	63.1	77.3	3.0	22.7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2) 주거환경 및 안전

1인가구 주택 점유형태에서 경북지역 여성 1인가구는 단독주택(96.6%)가 월등히 많았고, 아파트(68.2%), 연립주택(22.3%) 순이었으며, 남성 또한 단독주택(93.9%)가 월등히 많았고, 아파트(67.1%), 연립주택(20.8%)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경북지역 시·군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시는 군에 비해 아파트 비율이 약간 더 많은 반면에 군은 시에 비해 단독 주택 및 기타 주거가 조금 더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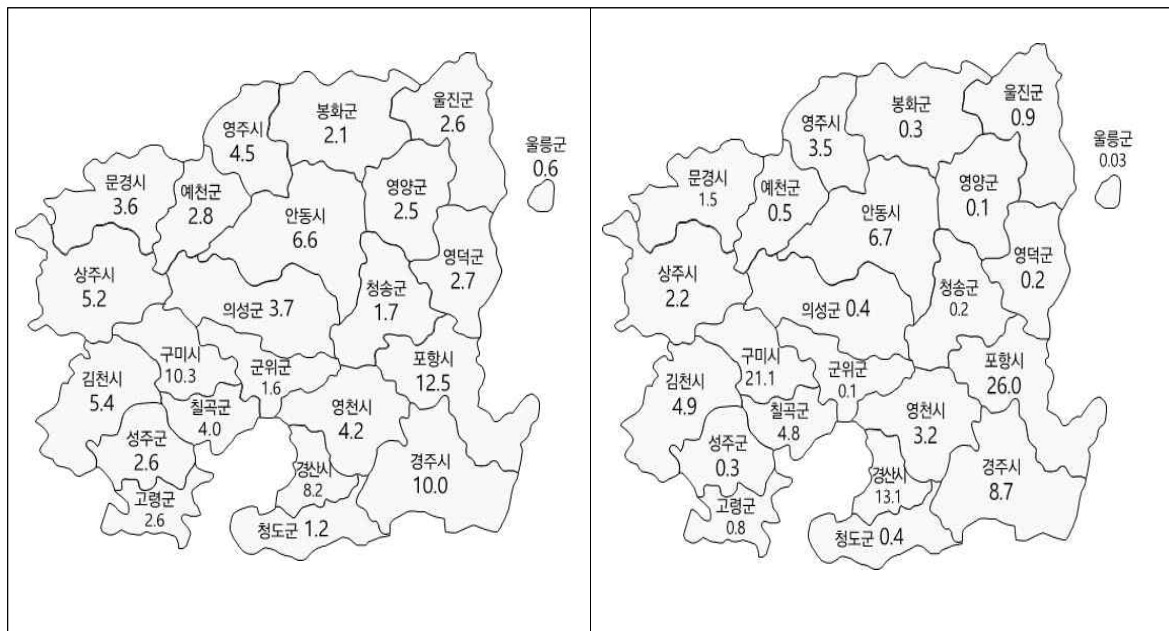


[표 Ⅲ-20] 경북지역 1인가구 주택유형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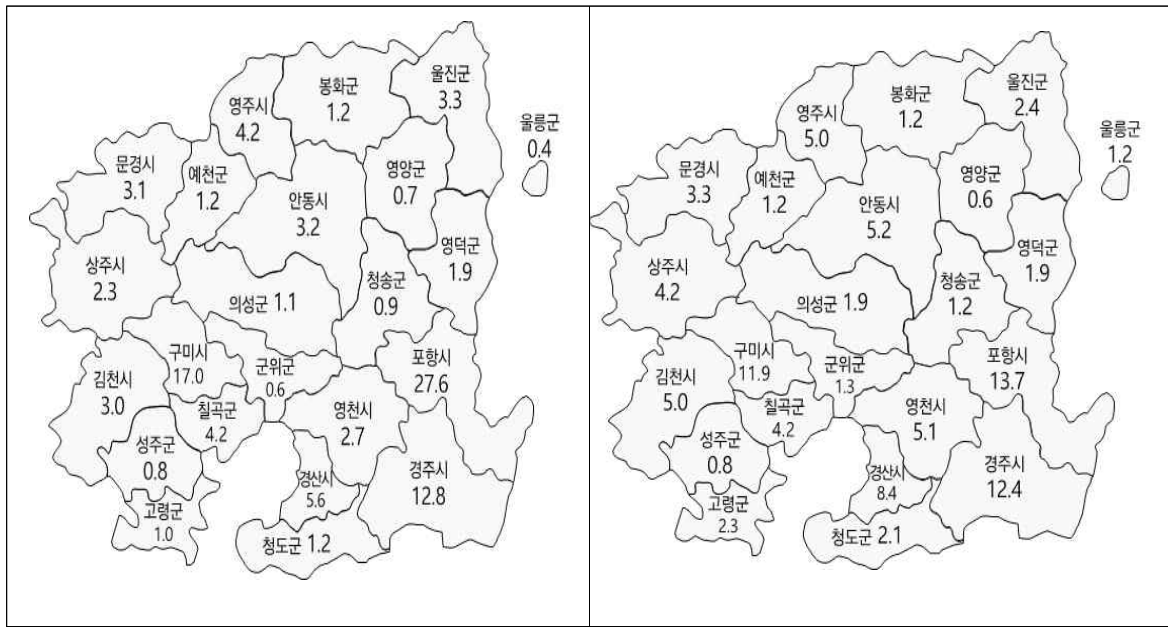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계	322,569 (100.0)	307,476 (95.3)	218,334 (67.7)	69,564 (21.6)	5,490 (1.7)	8,771 (0.0)	5,317 (1.6)
여성	172,909 (100.0)	167,006 (96.6)	117,908 (68.2)	38,483 (22.3)	3,196 (1.8)	4,806 (0.0)	2,613 (1.5)
남성	149,660 (100.0)	140,470 (93.9)	100,426 (67.1)	31,081 (20.8)	2,294 (1.5)	3,965 (0.0)	2,704 (1.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1인가구 20%표본 자료 분석, 2015



2015년 1인가구 단독주택

2015년 1인가구 아파트



2015년 1인가구 다세대/연립

2015년 1인가구 기타 주거

[그림 Ⅲ-5] 시·군별 1인가구 주택유형

시·군별 여성 1인가구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안동시(97.9%), 의성군(97.6%), 포항시(97.5%)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군위군(91.0%), 의성군(89.6%), 예천군, 봉화군(각각 8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 1인가구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은 단독주택(93.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아파트(67.1%), 연립주택(20.8%) 등의 순으로 나왔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곳으로 의성군(95.9%), 영양군(95.7%), 포항시(95.5%)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의성군(87.4%), 군위군(84.6%), 예천군(83.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지역 1인가구 청년은 보증금 있는 월세(56.3%)가 절반을 넘었고, 중장년층은 자기 집(39.9%)과 보증금 있는 월세(31.6%)인 경우가 많았다. 노년(79.4%)은 자기 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7.0%)가 많았다. 여성 1인가구 역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21] 시·군별 여성 1인가구 주택유형

(단위 : 가구, %)

성별	지역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여성	경상북도	172,909 (100.0)	167,006 (96.6)	117,908 (68.2)	38,483 (22.3)	3,196 (1.8)	4,806 (2.8)	2,613 (1.5)
	포항시	26,104 (100.0)	25,452 (97.5)	13,854 (53.1)	8,565 (32.8)	1,050 (4.0)	1,454 (5.6)	529 (2.0)
	경주시	17,663 (100.0)	16,853 (95.4)	11,850 (67.1)	3,731 (21.1)	390 (2.2)	559 (3.2)	323 (1.8)
	김천시	9,068 (100.0)	8,737 (96.3)	6,237 (68.8)	2,119 (23.4)	180 (2.0)	104 (1.1)	97 (1.1)
	안동시	11,498 (100.0)	11,256 (97.9)	7,553 (65.7)	3,220 (28.0)	166 (1.4)	126 (1.1)	191 (1.7)
	구미시	21,053 (100.0)	20,268 (96.3)	12,185 (57.9)	6,412 (30.5)	291 (1.4)	1,079 (5.1)	301 (1.4)
	영주시	7,147 (100.0)	6,850 (95.8)	4,612 (64.5)	1,776 (24.8)	176 (2.5)	127 (1.8)	159 (2.2)
	영천시	7,203 (100.0)	6,904 (95.8)	4,878 (67.7)	1,726 (24.0)	105 (1.5)	98 (1.4)	97 (1.3)
	상주시	8,031 (100.0)	7,781 (96.9)	6,305 (78.5)	1,214 (15.1)	46 (0.6)	123 (1.5)	93 (1.2)
	문경시	5,670 (100.0)	5,459 (96.3)	4,342 (76.6)	735 (13.0)	170 (3.0)	115 (2.0)	97 (1.7)
	경산시	16,525 (100.0)	16,063 (97.2)	10,177 (61.6)	5,273 (31.9)	109 (0.7)	330 (2.0)	174 (1.1)
	군위군	2,159 (100.0)	2,070 (95.9)	1,964 (91.0)	56 (2.6)	6 (0.3)	23 (1.1)	21 (1.0)
	의성군	5,478 (100.0)	5,345 (97.6)	4,906 (89.6)	288 (5.3)	42 (0.8)	52 (0.9)	57 (1.0)
	청송군	2,316 (100.0)	2,246 (97.0)	2,031 (87.7)	95 (4.1)	18 (0.8)	53 (2.3)	49 (2.1)
	영양군	1,640 (100.0)	1,593 (97.1)	1,455 (88.7)	75 (4.6)	15 (0.9)	32 (2.0)	16 (1.0)
	영덕군	4,162 (100.0)	4,028 (96.8)	3,651 (87.7)	128 (3.1)	124 (3.0)	62 (1.5)	63 (1.5)
	청도군	3,994 (100.0)	3,854 (96.5)	3,492 (87.4)	274 (6.9)	26 (0.7)	30 (0.8)	32 (0.8)
	고령군	2,326 (100.0)	2,199 (94.5)	1,682 (72.3)	460 (19.8)	7 (0.3)	32 (1.4)	18 (0.8)
	성주군	2,901 (100.0)	2,744 (94.6)	2,574 (88.7)	101 (3.5)	13 (0.4)	15 (0.5)	41 (1.4)
	칠곡군	6,298 (100.0)	6,031 (95.8)	4,092 (65.0)	1,561 (24.8)	39 (0.6)	220 (3.5)	119 (1.9)
	예천군	3,984 (100.0)	3,875 (97.3)	3,550 (89.1)	222 (5.6)	23 (0.6)	55 (1.4)	25 (0.6)
	봉화군	2,662 (100.0)	2,578 (96.8)	2,371 (89.1)	112 (4.2)	46 (1.7)	26 (1.0)	23 (0.9)
	울진군	4,380 (100.0)	4,241 (96.8)	3,635 (83.0)	333 (7.6)	140 (3.2)	80 (1.8)	53 (1.2)
	울릉군	647 (100.0)	579 (89.5)	512 (79.1)	7 (1.1)	14 (2.2)	11 (1.7)	35 (5.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1인가구 20%표본 자료 분석, 2015



[표 Ⅲ-22] 시·군별 남성 1인가구 주택유형

(단위 : 가구, %)

성별	지역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남성	경상북도	149,660 (100.0)	140,470 (93.9)	100,426 (67.1)	31,081 (20.8)	2,294 (1.5)	3,965 (2.6)	2,704 (1.8)
	포항시	25,009 (100.0)	23,891 (95.5)	14,449 (57.8)	7,217 (28.9)	670 (2.7)	1,010 (4.0)	545 (2.2)
	경주시	15,097 (100.0)	14,004 (92.8)	9,979 (66.1)	2,955 (19.6)	249 (1.6)	445 (2.9)	376 (2.5)
	김천시	7,083 (100.0)	6,546 (92.4)	4,386 (61.9)	1,813 (25.6)	107 (1.5)	106 (1.5)	134 (1.9)
	안동시	9,827 (100.0)	9,378 (95.4)	6,803 (69.2)	2,164 (22.0)	86 (0.9)	112 (1.1)	213 (2.2)
	구미시	25,197 (100.0)	23,767 (94.3)	15,748 (62.5)	6,202 (24.6)	288 (1.1)	1,182 (4.7)	347 (1.4)
	영주시	5,705 (100.0)	5,372 (94.2)	3,906 (68.5)	1,075 (18.8)	130 (2.3)	91 (1.6)	170 (3.0)
	영천시	5,354 (100.0)	4,812 (89.9)	3,194 (59.7)	1,427 (26.7)	51 (1.0)	70 (1.3)	70 (1.3)
	상주시	4,807 (100.0)	4,491 (93.4)	3,568 (74.2)	734 (15.3)	30 (0.6)	82 (1.7)	77 (1.6)
	문경시	3,486 (100.0)	3,261 (93.5)	2,550 (73.1)	481 (13.8)	81 (2.3)	55 (1.6)	94 (2.7)
	경산시	17,631 (100.0)	16,764 (95.1)	12,677 (71.9)	3,501 (19.9)	115 (0.7)	277 (1.6)	194 (1.1)
	군위군	1,416 (100.0)	1,292 (91.2)	1,198 (84.6)	49 (3.5)	6 (0.4)	20 (1.4)	19 (1.3)
	의성군	2,913 (100.0)	2,794 (95.9)	2,546 (87.4)	151 (5.2)	23 (0.8)	38 (1.3)	36 (1.2)
	청송군	1,525 (100.0)	1,432 (93.9)	1,207 (79.1)	152 (10.0)	15 (1.0)	36 (2.4)	22 (1.4)
	영양군	948 (100.0)	907 (95.7)	821 (86.6)	41 (4.3)	11 (1.2)	21 (2.2)	13 (1.4)
	영덕군	1,982 (100.0)	1,846 (93.1)	1,618 (81.6)	73 (3.7)	66 (3.3)	41 (2.1)	48 (2.4)
	청도군	2,023 (100.0)	1,863 (92.1)	1,664 (82.3)	130 (6.4)	16 (0.8)	22 (1.1)	31 (1.5)
	고령군	1,704 (100.0)	1,467 (86.1)	1,059 (62.1)	346 (20.3)	7 (0.4)	29 (1.7)	26 (1.5)
	성주군	2,229 (100.0)	1,929 (86.5)	1,800 (80.8)	67 (3.0)	11 (0.5)	10 (0.4)	41 (1.8)
	칠곡군	7,634 (100.0)	7,130 (93.4)	5,070 (66.4)	1,745 (22.9)	23 (0.3)	184 (2.4)	108 (1.4)
	예천군	2,252 (100.0)	2,122 (94.2)	1,884 (83.7)	156 (6.9)	34 (1.5)	30 (1.3)	18 (0.8)
	봉화군	1,813 (100.0)	1,723 (95.0)	1,485 (81.9)	126 (6.9)	77 (4.2)	18 (1.0)	17 (0.9)
	울진군	3,089 (100.0)	2,871 (92.9)	2,109 (68.3)	452 (14.6)	177 (5.7)	70 (2.3)	63 (2.0)
	울릉군	936 (100.0)	808 (86.3)	705 (75.3)	24 (2.6)	21 (2.2)	16 (1.7)	42 (4.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1인가구 20%표본 자료 분석, 2015

[표 Ⅲ-23] 경북지역 1인가구 점유 형태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	계	자기집	전세 (월세 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
전국	계	5,152,497 (100.0)	1,771,861 (34.4)	827,399 (16.1)	1,837,403 (35.7)	312,767 (6.1)	90,944 (1.8)	312,123 (6.1)
	남성	2,286,037 (100.0)	517,360 (22.6)	379,842 (16.6)	962,814 (42.1)	194,427 (8.5)	50,307 (2.2)	181,287 (7.9)
	여성	2,866,460 (100.0)	1,254,501 (43.8)	447,557 (15.6)	874,589 (30.5)	118,340 (4.1)	40,637 (1.4)	130,836 (4.6)
	청년	1,642,945 (100.0)	161,745 (9.8)	345,124 (21.0)	874,238 (53.2)	117,584 (7.2)	40,660 (2.5)	103,594 (6.3)
	남성	935,674 (100.0)	100,979 (10.8)	200,029 (21.4)	467,971 (50.0)	72,480 (7.7)	24,779 (2.6)	69,436 (7.4)
	여성	707,271 (100.0)	60,766 (8.6)	145,095 (20.5)	406,267 (57.4)	45,104 (6.4)	15,881 (2.2)	34,158 (4.8)
	중장년	1,620,456 (100.0)	463,842 (28.6)	257,153 (15.9)	630,531 (38.9)	121,722 (7.5)	26,545 (1.6)	120,663 (7.4)
	남성	893,239 (100.0)	203,731 (22.8)	125,687 (14.1)	374,901 (42.0)	88,175 (9.9)	16,748 (1.9)	83,997 (9.4)
	여성	727,217 (100.0)	260,111 (35.8)	131,466 (18.1)	255,630 (35.2)	33,547 (4.6)	9,797 (1.3)	36,666 (5.0)
	노년	1,889,096 (100.0)	1,146,274 (60.7)	225,122 (11.9)	332,634 (17.6)	73,461 (3.9)	23,739 (1.3)	87,866 (4.7)
	남성	457,124 (100.0)	212,650 (46.5)	54,126 (11.8)	119,942 (26.2)	33,772 (7.4)	8,780 (1.9)	27,854 (6.1)
	여성	1,431,972 (100.0)	933,624 (65.2)	170,996 (11.9)	212,692 (14.9)	39,689 (2.8)	14,959 (1.0)	60,012 (4.2)
경북	계	321,533 (100.0)	167,240 (52.0)	18,810 (5.9)	82,346 (25.6)	18,619 (5.8)	12,756 (4.0)	21,762 (6.8)
	남성	121,332 (100.0)	40,279 (33.2)	8,331 (6.9)	43,944 (36.2)	10,057 (8.3)	6,177 (5.1)	12,544 (10.3)
	여성	200,201 (100.0)	126,961 (63.4)	10,479 (5.2)	38,402 (19.2)	8,562 (4.3)	6,579 (3.3)	9,218 (4.6)
	청년	77,902 (100.0)	8,140 (10.4)	7,032 (9.0)	43,865 (56.3)	6,082 (7.8)	6,200 (8.0)	6,583 (8.5)
	남성	46,258 (100.0)	5,269 (11.4)	4,219 (9.1)	24,887 (53.8)	3,816 (8.2)	3,513 (7.6)	4,554 (9.8)
	여성	31,644 (100.0)	2,871 (9.1)	2,813 (8.9)	18,978 (60.0)	2,266 (7.2)	2,687 (8.5)	2,029 (6.4)
	중장년	86,989 (100.0)	34,691 (39.9)	6,622 (7.6)	27,476 (31.6)	6,729 (7.7)	3,023 (3.5)	8,448 (9.7)
	남성	45,992 (100.0)	15,470 (33.6)	3,118 (6.8)	15,408 (33.5)	4,210 (9.2)	1,691 (3.7)	6,095 (13.3)
	여성	40,997 (100.0)	19,221 (46.9)	3,504 (8.5)	12,068 (29.4)	2,519 (6.1)	1,332 (3.2)	2,353 (5.7)
	노년	156,642 (100.0)	124,409 (79.4)	5,156 (3.3)	11,005 (7.0)	5,808 (3.7)	3,533 (2.3)	6,731 (4.3)
	남성	29,082 (100.0)	19,540 (67.2)	994 (3.4)	3,649 (12.5)	2,031 (7.0)	973 (3.3)	1,895 (6.5)
	여성	127,560 (100.0)	104,869 (82.2)	4,162 (3.3)	7,356 (5.8)	3,777 (3.0)	2,560 (2.0)	4,836 (3.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1인가구 20%표본 자료 분석, 2015



경북지역 1인가구 범죄발생 부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안전한 다의 경우 여성은 7.1점(매우 안전 0.5점 + 비교적 안전 6.6점)이며, 남성은 11.3점(매우 안전 1.1점 + 비교적 안전 10.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범죄발생 부분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경북지역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범죄발생)

(단위 :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전체	1.0	11.3	46.7	35.3	5.8
1인가구	2.0	8.2	23.5	49.9	16.4
남성	1.1	10.2	28.4	43.8	16.5
여성	0.5	6.6	26.4	47.0	19.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6

경북지역 1인가구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안전한 다의 경우 여성은 10.1점(매우 안전 0.7점 + 비교적 안전 9.4점)이며, 남성은 14.4점(매우 안전 1.2점 + 비교적 안전 13.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경북지역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사회안전)

(단위 : %)

구분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	보통	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
전체	0.8	8.4	27.4	45.4	18.0
1인가구	1.7	13.3	42.8	39.1	3.1
남성	1.2	13.2	46.4	34.0	5.2
여성	0.7	9.4	46.9	36.6	6.4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6



3) 경제환경

2017년 1인가구 고용률을 살펴보면, 상위 3개 시·도는 제주도(67.0%), 경기도(66.5%), 충청남도(65.8%)로 나타났다. 하위 3개 시도는 대전시(4.1%), 부산시(52.7%), 전라북도(53.2%)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52.0%로 전년대비 3.7%p 상승하였으며, 여성 1인가구는 48.0%로 남성 1인가구(52.0%)에 비해 4.0%p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6] 시·도별 1인가구 고용률

(단위 : %, %p)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남성	여성	
전체	58.9	53.2	46.8	4.7
서울	60.8	50.1	49.9	1.8
부산	49.6	50.2	49.8	6.1
대구	51.9	48.7	51.3	13.4
인천	61.4	59.3	40.7	3.8
광주	56.0	53.7	46.3	8.2
대전	62.2	56.1	43.9	-93.5
울산	65.6	64.2	35.8	-0.2
경기	63.5	58.3	41.7	4.8
강원	57.1	51.4	48.6	7.1
충북	58.1	54.2	45.8	5.4
충남	56.8	58.1	41.9	15.7
전북	56.6	47.9	52.1	-5.9
전남	59.5	41.3	58.7	0.7
경북	57.3	49.2	50.8	3.7
경남	56.6	55.5	44.5	7.8
제주	62.9	47.1	52.9	6.6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지역별 고용조사, 각 년도



1인가구 중 취업자는 남성의 경우 청년이 45.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50.0%로 노년이 가장 높았으며 중장년 31.1%, 청년 1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경북지역 1인가구 취업자 비율

(단위 : %)

구분	청년	중장년	노년	합계
남성	45.6	36.8	17.5	100.0
여성	19.0	31.1	50.0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지역별고용조사, 2017

2017년 1인가구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남성 1인가구는 장치기계조작조립원 29,046(23.5%), 단순노무종사자 21,638(17.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단순노무종사자 33,897(29.7%), 서비스종사자 28,047(24.6%)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과 비교하면 장치기계조작조립원(23.7%), 기능원·숙련종사자(17.3%) 순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28] 경북지역 직업별 1인가구 취업자 규모

(단위 : 가구, %)

분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취업자	증감률	비중증감
전체	109,623 (100.0)	113,006 (100.0)	123,681 (100.0)	113,970 (100.0)	964	0.9	0.0
관리자	1,269 (1.2)	412 (0.4)	1,252 (1.0)	295 (0.3)	-117	-28.4	-0.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623 (11.5)	9,992 (8.8)	12,959 (10.5)	10,487 (9.2)	495	5.0	0.4
사무종사자	12,601 (11.5)	7,762 (6.9)	15,043 (12.2)	7,630 (6.7)	-132	-1.7	-0.2
서비스종사자	6,579 (6.0)	25,456 (22.5)	8,427 (6.8)	28,047 (24.6)	2,591	10.2	2.1
판매종사자	8,921 (8.1)	10,100 (8.9)	7,925 (6.4)	10,138 (8.9)	38	0.4	0.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1,665 (10.6)	18,715 (16.6)	10,646 (8.6)	14,230 (12.5)	-4,485	-24.0	-4.1
기능원·숙련종사자	14,635 (13.4)	1,527 (1.4)	16,745 (13.5)	1,791 (1.6)	264	17.3	0.2
장치기계조작조립원	22,643 (20.7)	6,026 (5.3)	29,046 (23.5)	7,455 (6.5)	1,429	23.7	1.2
단순노무종사자	18,687 (17.0)	33,016 (29.2)	21,638 (17.5)	33,897 (29.7)	881	2.7	0.5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지역별고용조사, 2017



경북지역 1인가구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청년과 중장년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1인 모두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년의 경우 남성(52.6%)은 여전히 일하는 비율이 높으나 여성은(70.3%) 일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9] 경북지역 1인가구 경제활동상태

(단위 : 가구, %)

구분	세대	계	일하였음	일시 휴직		일하지 않았음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전국	계	5,152,497 (100.0)	2,861,818 (55.5)	2,702,578 (52.5)	117,171 (2.3)	42,069 (0.8)	2,290,679 (44.5)
	남성	2495354 (100.0)	1713295 (68.7)	1641536 (65.8)	46164 (1.8)	25595 (1.0)	782059 (31.3)
	여성	3105737 100.0	1432383 (46.1)	1332684 (42.9)	79042 (2.5)	20657 (0.7)	1673354 (53.9)
	청년	1,642,945 (100.0)	1,194,582 (72.7)	1,118,853 (68.1)	58,386 (3.6)	17,343 (1.1)	448,363 (27.3)
	남성	935,674 (100.0)	687,250 (73.4)	649,450 (69.4)	29,179 (3.1)	8,621 (0.9)	248,424 (26.6)
	여성	707271 (100.0)	507332 (71.7)	469403 (66.4)	29207 (4.1)	8722 (1.2)	199939 (28.3)
	중장년	1,620,456 (100.0)	1,191,009 (73.5)	1,145,505 (70.7)	26,639 (1.6)	18,865 (1.2)	429,447 (26.5)
	남성	893239 (100.0)	708112 (79.3)	687590 (77.0)	9091 (1.0)	11431 (1.3)	185127 (20.7)
	여성	727217 (100.0)	482897 (66.4)	457915 (63.0)	17548 (2.4)	7434 (1.0)	244320 (33.6)
	노년	1,889,096 (100.0)	476,227 (25.2)	438,220 (23.2)	32,146 (1.7)	5,861 (0.3)	1,412,869 (74.8)
	남성	666441 (100.0)	317933 (47.7)	304496 (45.7)	7894 (1.2)	5543 (0.8)	348508 (52.3)
	여성	1671249 (100.0)	442154 (26.5)	405366 (24.3)	32287 (1.9)	4501 (0.3)	1229095 (73.5)
경북	계	321,533 (100.0)	163,920 (51.0)	156,569 (48.7)	5,694 (1.8)	1,657 (0.5)	157,613 (49.0)
	남성	133354 (100.0)	91106 (68.3)	88544 (66.4)	1666 (1.2)	896 (0.7)	42248 (31.7)
	여성	215377 (100.0)	90986 (42.2)	85626 (39.8)	4437 (2.1)	923 (0.4)	124391 (57.8)
	청년	77,902 (100.0)	53,146 (68.2)	50,789 (65.2)	1,792 (2.3)	565 (0.7)	24,756 (31.8)
	남성	46258 (100.0)	32133 (69.5)	30975 (67.0)	904 (2.0)	254 (0.5)	14125 (30.5)
	여성	31644 (100.0)	21013 (66.4)	19814 (62.6)	888 (2.8)	311 (1.0)	10631 (33.6)
	중장년	86,989 (100.0)	64,976 (74.7)	63,033 (72.5)	1,176 (1.4)	767 (0.9)	22,013 (25.3)
	남성	45992 (100.0)	37368 (81.2)	36583 (79.5)	374 (0.8)	411 (0.9)	8624 (18.8)
	여성	40997 (100.0)	27608 (67.3)	26450 (64.5)	802 (2.0)	356 (0.9)	13389 (32.7)
	노년	156,642 (100.0)	45,798 (29.2)	42,747 (27.3)	2,726 (1.7)	325 (0.2)	110,844 (70.8)
	남성	41104 (100.0)	21605 (52.6)	20986 (51.1)	388 (0.9)	231 (0.6)	19499 (47.4)
	여성	142736 (100.0)	42365 (29.7)	39362 (27.6)	2747 (1.9)	256 (0.2)	100371 (70.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 중 1인가구 20%표본 자료 분석, 2015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근로만족도, 임금수준, 복리후생 등 근로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1인가구 모두 만족도가 대체로 떨어지는 편이었다. 특히, 근무환경 부분에서는 전체가구 불만족 26.5%(약간 불만 20.2% + 매우 불만 6.3%)에 비해 1인가구는 28.6%(약간 불만 20.3% + 매우 불만 8.3%)로 근무환경에서 불만감이 높았다.

[표 Ⅲ-30] 경북지역 근무여건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합계
근로만족도	전체	6.7	24.5	52.3	12.7	3.8	100.0
	1인가구	4.3	15.9	60.2	13.6	6.0	100.0
	남성	2.0	13.9	64.0	15.6	4.5	100.0
	여성	8.6	19.7	53.0	9.9	8.8	100.0
임금수준	전체	2.4	17.0	37.9	32.4	10.2	100.0
	1인가구	8.0	26.2	31.5	26.2	8.0	100.0
	남성	2.5	8.1	45.1	34.2	10.2	100.0
	여성	1.5	21.8	32.7	33.2	10.8	100.0
복리후생	전체	3.0	18.0	43.1	26.3	9.7	100.0
	1인가구	2.3	12.1	47.5	27.0	11.1	100.0
	남성	1.5	7.2	53.5	28.1	9.6	100.0
	여성	4.1	23.1	34.2	24.4	14.2	100.0
근무환경 (안전, 위생 상태)	전체	5.9	22.5	45.0	20.2	6.3	100.0
	1인가구	5.4	14.9	51.2	20.3	8.3	100.0
	남성	5.4	9.3	55.8	20.7	8.7	100.0
	여성	4.9	23.5	38.4	17.7	15.6	100.0
근로시간	전체	5.4	21.1	47.3	20.7	5.6	100.0
	1인가구	4.3	19.9	48.3	21.2	6.4	100.0
	남성	4.2	12.0	55.3	21.6	6.9	100.0
	여성	4.3	34.7	34.9	20.6	5.4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와 1인가구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가구의 경우 100만원 미만 26.6%, 100~200만원 미만 21.6%, 200~300만원 미만 13.7% 등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1인가구의 경우 100만원 미만 51.8%, 100~200만원 미만 21.2%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100만원 미만이 66.1%로 남성 1인가구(34.8%)에 비해 31.3%p 높게 나타났다.

[표 Ⅲ-31] 경북지역 월평균 소득

(단위 : %)

구분		100 만원 미만	100~ 200 만원 미만	200~ 300 만원 미만	300~ 400 만원 미만	400~ 500 만원 미만	500~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이상	700 만원 이상	합계
월평균 소득	전체	26.6	21.6	19.2	13.7	8.6	6.5	1.8	2.1	100.0
	1인 가구	51.8	21.2	16.5	6.1	2.6	1.5	0.2	0.2	100.0
	남성	34.8	21.9	25.9	10.9	3.8	2.2	0.4	0.1	100.0
	여성	66.1	20.4	8.0	1.7	1.5	0.9	0.0	1.4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1인가구의 소득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불만족의 경우 전체가구 47.1%(약간 불만 37.2% + 매우 불만 9.9%), 1인가구 55.3%(약간 불만 44.5% + 매우 불만 10.8%)로 소득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 58.7%(약간 불만 48.2% + 매우 불만 10.5%), 남성 1인가구 51.5%(약간 불만 40.3% + 매우 불만 11.2%)로 여성 1인가구가 소득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32] 경북지역 소득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합계
전체	1.2	11.5	40.3	37.2	9.9	100.0
1인가구	0.9	6.2	37.6	44.5	10.8	100.0
남성	1.0	6.6	40.9	40.3	11.2	100.0
여성	0.7	5.8	34.7	48.2	10.5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소비생활 중 지출 항목은 전체가구의 외식비(26.5%)가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식료품비 17.6%, 문화·여가비 15.4% 순이다. 1인가구는 식료품비 22.4%, 외식비 19.7%, 연료비 13.5%로 식료품비 비중이 높았다. 여성 1인가구는 식료품비 26.9%, 남성 1인가구는 외식비 26.4%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33] 경북지역 지출 항목

(단위 : %)

구분	식료품비	외식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차량유지비 포함)	문화·여가비	보건·의료비	연료비 (전기·가스등)	경조사비	기타	합계
전체	17.6	26.5	7.8	3.3	8.2	15.4	5.9	9.1	5.9	0.4	100.0
1인가구	22.4	19.7	8.7	0.9	5.0	12.9	10.3	13.5	6.0	0.5	100.0
남성	19.7	26.4	7.5	1.8	7.2	17.9	7.3	8.0	4.0	0.4	100.0
여성	26.9	14.9	10.7	0.0	3.4	0.9	14.1	19.9	8.5	0.7	100.0

자료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사회조사, 2017

향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한 기대감은 전체가구와 1인가구 모두 ‘크게 좋아질 것이다’가 1.5%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는 ‘약간 악화될 것이다’가 14.4%인 반면, 남성 1인가구는 ‘약간 좋아질 것이다’가 22.1%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재정 상태 기대감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34] 경북지역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

(단위 : %)

구분	크게 좋아질 것임	약간 좋아질 것임	변화 없을 것임	약간 악화될 것임	매우 악화될 것임	합계
전체	1.5	17.6	62.4	16.5	1.9	100.0
1인가구	1.5	14.8	66.2	15.6	1.9	100.0
남성	3.2	22.1	55.8	16.9	2.0	100.0
여성	0.0	8.4	75.4	14.4	1.8	100.0

IV.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분석





IV.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분석

01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경북지역 1인가구의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및 안전,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7월 9일 ~ 7월 28일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경북지역 20세이상 1인가구로서 남부도시권, 동부연안권, 북부자원권, 중서부내륙권 4개 권역별로 할당하여 임의표집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500부를 회수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경북지역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확인, 검수하는 작업을 거쳐 자료로써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코딩(Coding), 에디팅(Editing) 등의 과정을 거친 자료를 대상으로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첫째, 1인가구 특성에서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 향후 1인가구 계획,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점 등이다. 둘째 건강 및 네트워크분야는 현재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 하는 행동, 위급상황 시 도움 줄 사람 혹은 없다면 그 이유, 건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등이다. 셋째, 맞춤형 주거 및 안전분야는 주택의 유형, 주택의 소유형태, 현 거주 주택의 선택 이유,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법,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성 및 불안 이유, 범죄 우려 장소, 맞춤형 주거 및 안전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등이다. 넷째,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은 경제활동 유무, 일의 형태, 현재 일자리 만족도, 주된 경제 소득원, 한달 평균 지출액, 최근 1년간 지출이 가장 큰 비중, 중요 소비생활,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등이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만족도 및 필요 정책은 1인가구 만족도, 1인가구로서 서비스 이용경험,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분야 등이다.

[표 IV-1] 조사개요

구분	조사내용
일반현황	· 거주지 · 최종학력 · 월소득 · 성별 · 혼인상태 · 연령 · 직업
1인가구 특성	·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 · 향후 1인가구 계획 · 1인가구 장점·단점 ·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 ·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점
생활지원 (건강 및 네트워크)	· 현재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 ·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하는 행동 · 위급상황 시 도움 줄 사람 or 없다면 그 이유 · 건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 및 서비스
주거환경 및 안전 (맞춤형 주거 및 안전)	· 주택의 유형 · 주택의 소유형태 · 현 거주 주택의 선택 이유 ·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법 ·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성 및 불안이유 · 범죄우려장소 · 1인가구의 범죄 노출 정도 · 안전에 대한 만족도 ·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경제적 환경 (일자리 및 소득)	· 경제활동 유무 · 현재 일자리 만족도 · 한달 평균 지출액 · 중요 소비생활 ·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시장 ·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 일의 형태 · 주된 경제 소득원 · 최근 1년간 지출이 가장 큰 비중 · 향후 지출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1인가구 만족도 및 필요 정책	· 1인가구로서 만족도 · 1인가구로서 서비스 이용경험 ·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 분야



2) 조사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성 278명(55.6%), 남성 222명(44.4%) 총 500명이며, 도시가 67.6%로 농촌 32.4%에 비해 다소 많았다. 조사대상자 중 27.1%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대 44.4%, 50~60대 55.6%로 분석되었다.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60.0%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V-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N(%)
전체		500(100.0)
성별 (N=500)	여성	278(55.6)
	남성	222(44.4)
연령 (N=500)	20~40대	222(44.4)
	50~60대 이상	278(55.6)
거주지역 (N=500)	도시	338(67.6)
	농촌	162(32.4)
최종학력 (N=491)	무학	96(19.6)
	중학교 졸업	92(18.7)
	고등학교 졸업	133(27.1)
	전문대 졸업	30(6.1)
	4년제 대학 졸업	105(21.4)
	대학원 재학 이상	35(7.1)
혼인상태 (N=500)	비혼	217(43.4)
	기혼	18(3.6)
	이혼	22(4.4)
	사별	243(48.6)
직업 (N=497)	농업/임업/어업/축산업	4(0.8)
	전문직	14(2.8)
	사무직	28(5.6)
	관리직 및 공무원	40(8.0)
	생산 및 단순노무직	11(2.2)
	자영업	16(3.2)
	서비스직	16(3.2)
	주부	86(17.3)
	학생	106(21.3)
	무직	164(33.0)
	기타	12(2.4)
월 소득 (N=380)	100만원 미만	228(60.0)
	100~200만원 미만	76(20.0)
	200~300만원 미만	50(13.2)
	300만원 이상	26(6.8)



[2] 1인가구 특성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9.6%가 10년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9.6%), 50~60대 이상(47.8%), 농촌 지역(45.1%), 중학교 졸업 이하(55.9%), 사별(49.4%)이 10년 이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월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45.6%)에서 10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0만원 이상(27.0%)에서는 3~5년 미만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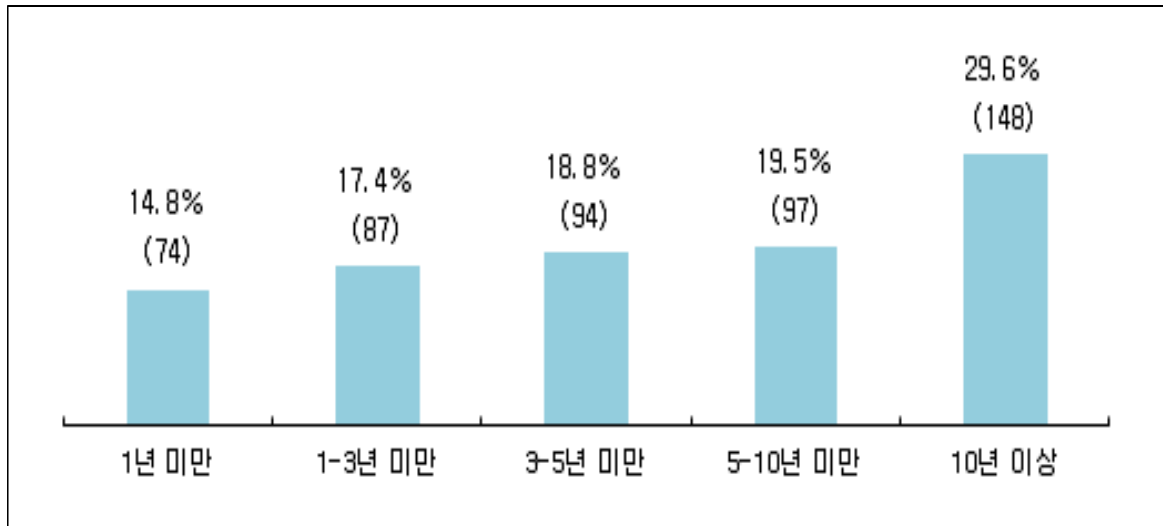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전체		74(14.8)	87(17.4)	94(18.8)	97(19.4)	148(29.6)	500(100.0)
성별 (N=500)	여성	31(11.2)	41(14.7)	43(15.5)	53(19.1)	110(39.6)	278(100.0)
	남성	43(19.4)	46(20.7)	51(23.0)	44(19.8)	38(17.1)	222(100.0)
유의도값		$X^2 = 32.917^{***} (df=4)$					
연령 (N=500)	20-40대	67(30.2)	72(32.4)	43(19.4)	25(11.3)	15(6.8)	222(100.0)
	50-60대 이상	7(2.5)	15(5.4)	51(18.3)	72(25.9)	133(47.8)	278(100.0)
유의도값		$X^2 = 199.762^{***} (df=4)$					
거주지역 (N=500)	도시	65(19.2)	71(21.0)	69(20.4)	58(17.2)	75(22.2)	338(100.0)
	농촌	9(5.6)	16(9.9)	25(15.4)	39(24.1)	73(45.1)	162(100.0)
유의도값		$X^2 = 45.133^{***} (df=4)$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4(2.1)	11(5.9)	28(14.9)	40(21.3)	105(55.9)	188(100.0)
	고등학교 졸업	37(27.8)	27(20.3)	25(18.8)	25(18.8)	19(14.3)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31(18.2)	48(28.2)	40(23.5)	30(17.6)	21(12.4)	170(100.0)
유의도값		$X^2 = 139.379^{***} (df=8)$					
혼인상태 (N=500)	비혼	64(29.5)	70(32.3)	42(19.4)	24(11.1)	17(7.8)	217(100.0)
	기혼	4(22.2)	4(22.2)	2(11.1)	4(22.2)	4(22.2)	18(100.0)
	이혼	-	2(9.1)	6(27.3)	7(31.8)	7(31.8)	22(100.0)
	사별	6(2.5)	11(4.5)	44(18.1)	62(25.5)	120(49.4)	243(100.0)
유의도값		$X^2 = 195.350^{***} (df=12)$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4(6.1)	24(10.5)	33(14.5)	53(23.2)	104(45.6)	228(100.0)
	100만원 이상	20(13.2)	31(20.4)	41(27.0)	33(21.7)	27(17.8)	152(100.0)
유의도값		$X^2 = 39.089^{***} (df=4)$					

*** $p < 0.001$, ** $p < 0.01$, * $p < 0.05$



(단위 : 명)



[그림 IV-1]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

1인가구 선택을 살펴본 결과, 51.0%가 비자발적, 49.0%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하였다고 나타났다. 자발적 선택은 남성(55.7%), 20~40대(79.7%), 도시지역(56.5%), 대학 졸업 이상(80.0%), 비혼(8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올라갈수록 자발적 1인가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발적 선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1인가구 선택은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의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1인가구 선택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자발적	비자발적	전체
전체		244(49.0)	254(51.0)	498(100.0)
성별 (N=498)	여성	121(43.7)	156(56.3)	277(100.0)
	남성	123(55.7)	98(44.3)	221(100.0)
유의도값		$X^2=7.052^{**}(df=1)$		
연령 (N=498)	20~40대	177(79.7)	45(20.3)	222(100.0)
	50~60대 이상	67(24.3)	209(75.7)	276(100.0)
유의도값		$X^2=151.405^{***}(df=1)$		
거주지역 (N=498)	도시	191(56.5)	147(43.5)	338(100.0)
	농촌	53(33.1)	107(66.9)	160(100.0)
유의도값		$X^2=23.762^{***}(df=1)$		
최종학력 (N=489)	중학교 졸업 이하	31(16.6)	156(83.4)	187(100.0)
	고등학교 졸업	73(55.3)	59(44.7)	132(100.0)
	대학 졸업 이상	136(80.0)	34(20.0)	170(100.0)
유의도값		$X^2=146.125^{***}(df=2)$		
혼인상태 (N=498)	비혼	178(82.0)	39(18.0)	217(100.0)
	기혼	8(44.4)	10(55.6)	18(100.0)
	이혼	12(54.5)	10(45.5)	22(100.0)
	사별	46(19.1)	195(80.9)	241(100.0)
유의도값		$X^2=181.434^{***}(df=3)$		
월소득 (N=379)	100만원 미만	49(21.6)	178(78.4)	227(100.0)
	100만원 이상	108(71.1)	44(28.9)	152(100.0)
유의도값		$X^2=91.808^{***}(df=4)$		

***p<0.001, **p<0.01, *p<0.05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응답자의 47.6%가 배우자와의 사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직장 또는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34.0%),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8.7%), 배우자와의 이혼·별거(5.7%), 가족과의 불화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서(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배우자와의 사별(60.1%), 20~40대는 직장 또는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 별로 살펴보면, 직장 또는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월소득 100만원 미만(78.2%)에서는 배우자와의 사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 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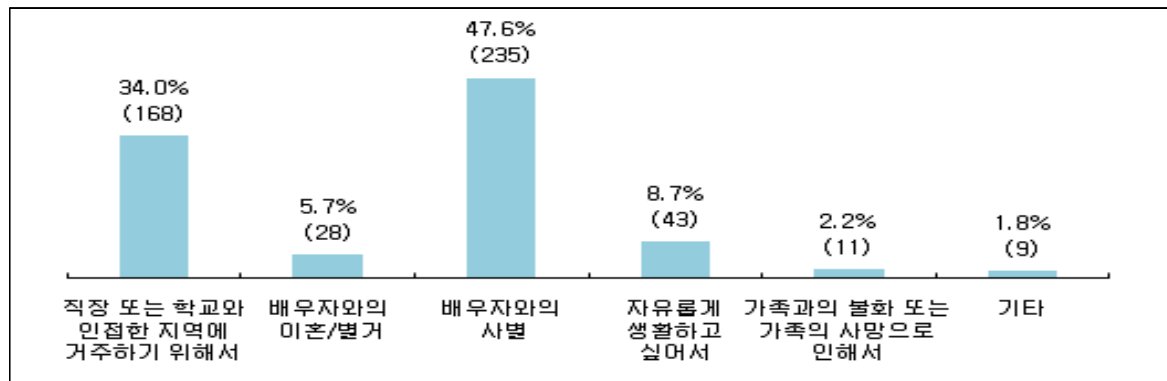
[표 IV-5]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직장 또는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	배우자와의 이혼/별거	배우자와의 사별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	가족과의 불화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서	기타	전체
전체		168(34.0)	28(5.7)	235(47.6)	43(8.7)	11(2.2)	9(1.8)	494(100.0)
성별 (N=494)	여성	77(28.2)	12(4.4)	164(60.1)	14(5.1)	3(1.1)	3(1.1)	273(100.0)
	남성	91(41.2)	16(7.2)	71(32.1)	29(13.1)	8(3.6)	6(2.7)	221(100.0)
유의도값		$X^2=42.040^{***}(df=5)$						
연령 (N=494)	20-40대	168(76.0)	6(2.7)	1(0.5)	34(15.4)	8(3.6)	4(1.8)	221(100.0)
	50-60대 이상	-	22(8.1)	234(85.7)	9(3.3)	3(1.1)	5(1.8)	273(100.0)
유의도값		$X^2=424.306^{***}(df=5)$						
거주지역 (N=494)	도시	139(41.6)	21(6.3)	127(38.0)	33(9.9)	8(2.4)	6(1.8)	334(100.0)
	농촌	29(18.1)	7(4.4)	108(67.5)	10(6.3)	3(1.9)	3(1.9)	160(100.0)
유의도값		$X^2=39.783^{***}(df=5)$						
최종학력 (N=485)	중학교 졸업 이하	3(1.6)	7(3.8)	169(92.3)	1(0.5)	2(1.1)	2(0.5)	183(100.0)
	고등학교 졸업	64(48.1)	11(8.3)	40(30.1)	11(8.3)	4(3.0)	3(2.3)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00(59.2)	8(4.7)	21(12.4)	31(18.3)	5(3.0)	4(2.4)	169(100.0)
유의도값		$X^2=262.859^{***}(df=10)$						
혼인상태 (N=494)	비혼	160(74.1)	3(1.4)	1(0.5)	41(19.0)	7(3.2)	4(1.9)	216(100.0)
	기혼	8(44.4)	2(11.1)	1(5.6)	1(5.6)	1(5.6)	5(27.8)	18(100.0)
	이혼	-	21(95.5)	1(4.5)	-	-	-	22(100.0)
	사별	-	2(0.8)	232(97.5)	1(0.4)	3(1.3)	-	238(100.0)
유의도값		$X^2=883.963^{***}(df=15)$						
월소득 (N=375)	100만원 미만	23(10.2)	13(5.8)	176(78.2)	6(2.7)	5(2.2)	2(0.9)	225(100.0)
	100만원 이상	78(52.0)	15(10.0)	21(14.0)	30(20.0)	2(1.3)	4(2.7)	150(100.0)
유의도값		$X^2=161.458^{***}(df=5)$						

***p<0.001, **p<0.01, *p<0.05

(단위 : 명)



[그림 IV-2]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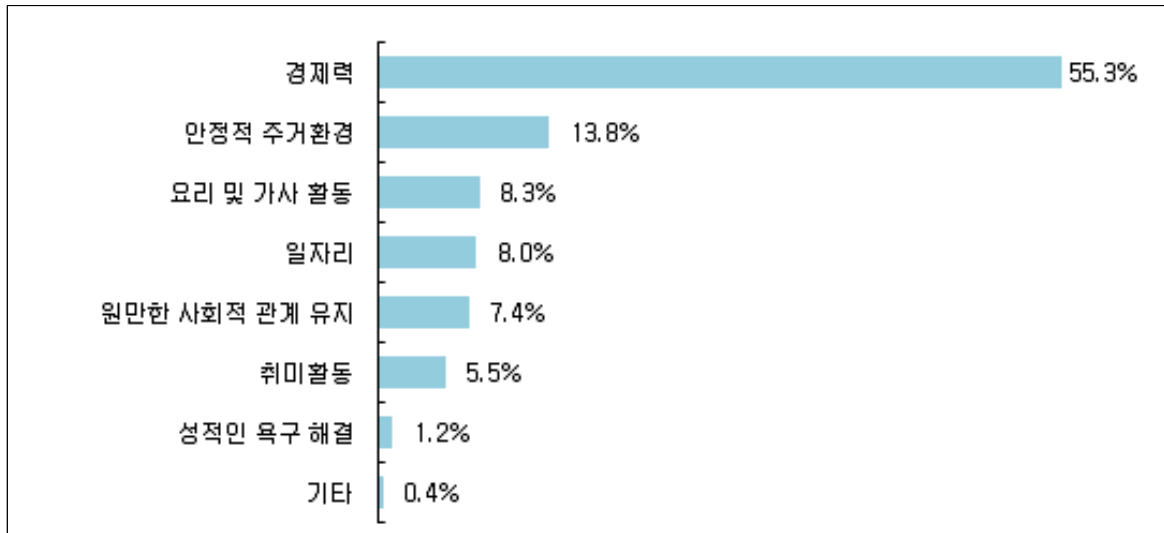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혼인상태, 월소득과 관계없이 경제력(55.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한 주거환경(13.8%)을 꼽았다. 여성은 경제력(59.2%)과 안전한 주거환경(15.6%)에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요리 및 가사활동(13.2%)에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6]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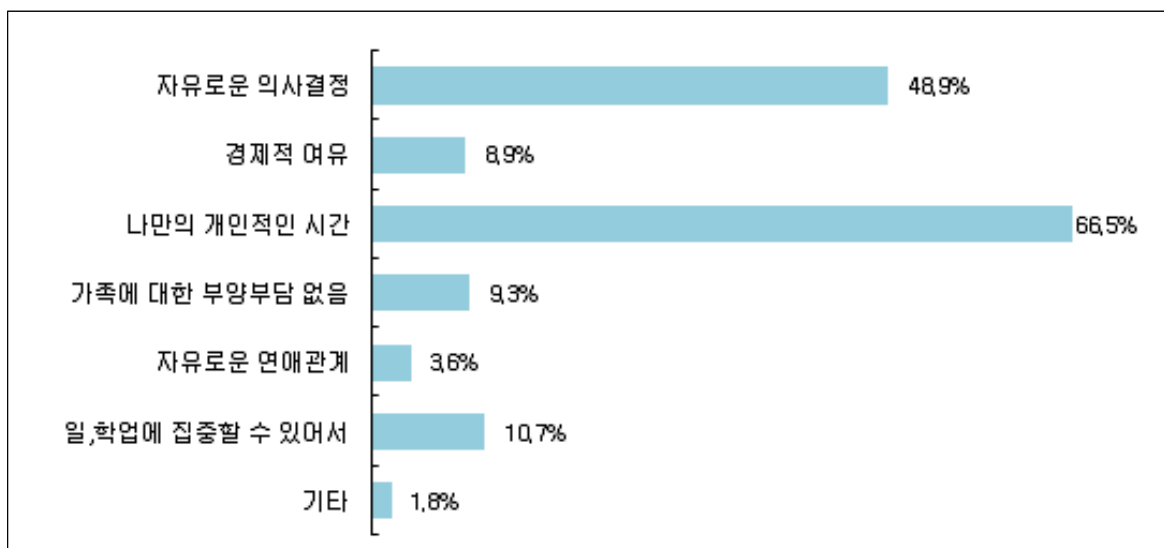
(순위별 가중치, 단위: %, 무응답제외)

구분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순위별 가중치)							
		요리 및 가사 활동	경제력	취미 활동	원만한 사회적 관계 유지	성적인 욕구 해결	일자리	안전적 주거 환경	기타
전체		8.3	55.3	5.5	7.4	1.2	8.0	13.8	0.4
성별 (N=497)	여성	4.2	59.2	5.1	7.8	0.1	7.5	15.6	0.6
	남성	13.4	50.5	6.1	7.0	2.4	8.7	11.8	0.2
연령 (N=497)	20-40대	10.0	51.3	4.0	6.6	1.2	10.7	15.5	0.6
	50-60대 이상	7.0	58.5	6.8	8.0	1.1	5.9	12.5	0.2
거주지역 (N=497)	도시	10.3	54.9	3.9	5.7	1.6	8.6	14.4	0.6
	농촌	4.1	56.3	8.9	11.1	0.2	6.9	12.6	-
최종학력 (N=488)	중학교 졸업 이하	4.0	58.7	7.7	9.1	0.6	5.8	13.5	0.7
	고등학교 졸업	12.3	55.2	4.3	5.3	1.5	6.8	14.1	0.5
	대학 졸업 이상	9.8	51.1	4.3	7.5	1.6	11.8	13.9	-
혼인상태 (N=497)	비혼	10.4	52.2	3.9	7.1	1.1	10.2	14.6	0.6
	기혼	3.7	42.8	6.3	3.7	2.1	13.2	28.2	-
	이혼	13.6	43.9	4.5	3.0	10.6	15.2	9.1	-
	사별	6.3	60.1	7.0	8.4	0.3	5.0	12.6	0.3
월소득 (N=378)	100만원 미만	6.5	59.2	6.1	8.4	0.3	6.8	12.4	0.3
	100만원 이상	8.5	50.7	5.0	6.8	2.5	10.6	15.5	0.4



[그림 IV-3]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48.9%), 일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10.7%),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 없음(9.3%), 경제적 여유(8.9%), 자유로운 연애 관계(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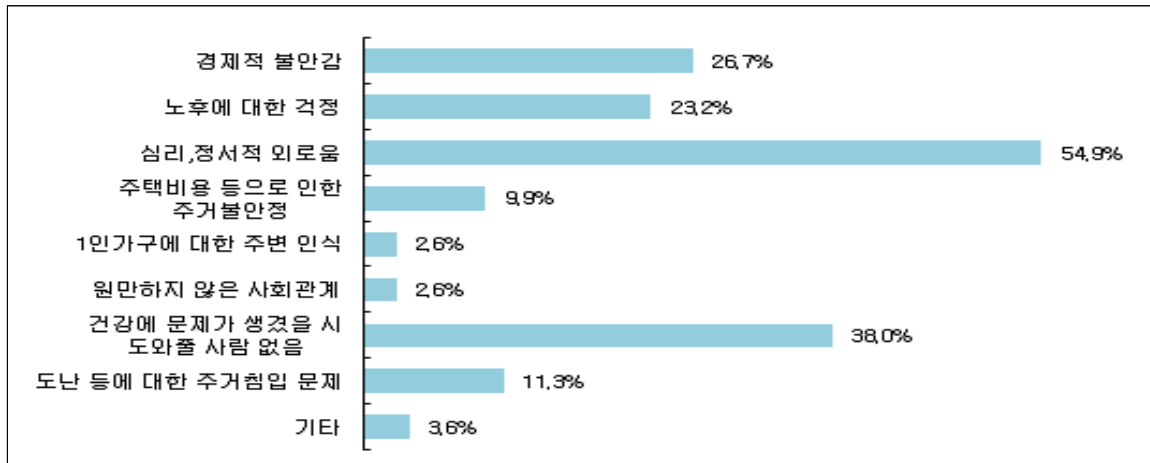
20~40대(76.1%), 도시지역(70.1%), 고등학교 졸업 이하(71.8%), 기혼(82.4%)는 나만의 개인 시간이 있다는 것이 1인가구 생활에 좋은 점이라고 높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

(중복응답, 단위: %, 무응답제외)

구분		자유로운 의사결정	경제적 여유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 없음	자유로운 연애관계	일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기타
전체		48.9	8.9	66.5	9.3	3.6	10.7	1.8
성별 (N=495)	여성	48.7	8.0	66.2	9.1	3.3	8.0	2.5
	남성	49.1	10.0	66.8	9.5	4.1	14.1	0.9
연령 (N=495)	20~40대	42.8	13.1	76.1	6.3	8.1	23.0	0.9
	50~60대 이상	53.8	5.5	58.6	11.7	—	0.7	2.6
거주지역 (N=495)	도시	46.0	10.4	70.1	9.3	4.8	14.3	1.5
	농촌	55.0	5.6	58.8	9.4	1.3	3.1	2.5
최종학력 (N=486)	중학교 졸업 이하	53.0	2.2	57.8	13.0	—	1.1	3.2
	고등학교 졸업	42.7	5.3	71.8	5.3	6.9	16.0	0.8
	대학 졸업 이상	49.4	17.6	71.2	8.8	5.3	17.6	1.2
혼인상태 (N=495)	비혼	44.2	15.2	75.1	6.5	8.3	23.5	0.9
	기혼	41.2	11.8	82.4	—	—	11.8	—
	이혼	72.7	9.1	18.2	27.3	—	—	—
	사별	51.5	2.9	61.9	10.9	—	—	2.9
월소득 (N=378)	100만원 미만	52.2	2.7	62.8	11.5	1.3	5.8	2.7
	100만원 이상	55.3	17.1	65.8	9.9	4.6	10.5	0.7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54.9%가 심리·정서적 외로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시 도와줄 사람 없음(38.0%), 경제적 불안감(26.7%), 노후에 대한 걱정(23.2%), 도난 등에 대한 주거침입문제(11.3%),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20~40대는 심리·정서적 외로움(40.3%)과 경제적 불안감(33.3%), 50~60대 이상은 심리·정서적 외로움(66.7%)과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시 도와줄 사람 없음(42.4%)으로 나타났다.

[표 IV-8]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중복응답, 단위: %, 무응답제외)

구분		1	2	3	4	5	6	7	8	9
전체		26.7	23.2	54.9	9.9	2.6	2.6	38.0	11.3	3.6
성별 (N=495)	여성	25.4	28.3	56.9	8.0	1.8	2.9	37.7	17.8	2.2
	남성	28.3	16.9	52.5	12.3	3.7	2.3	38.4	3.2	5.5
연령 (N=495)	20~40대	33.3	11.4	40.2	17.8	4.1	1.8	32.4	15.5	6.4
	50~60대 이상	21.4	32.6	66.7	3.6	1.4	3.3	42.4	8.0	1.4
거주지역 (N=495)	도시	29.9	22.1	49.6	12.8	2.4	0.9	36.7	12.8	3.6
	농촌	20.0	25.6	66.3	3.8	3.1	6.3	40.6	8.1	3.8
최종학력 (N=486)	중학교 졸업 이하	24.7	36.0	67.2	3.8	-	4.3	42.5	7.0	2.7
	고등학교 졸업	33.3	14.4	54.5	12.1	1.5	1.5	34.8	13.6	3.8
	대학 졸업 이상	25.0	16.1	40.5	15.5	6.5	1.8	35.1	13.7	4.8
혼인상태 (N=495)	비혼	32.7	12.1	38.3	17.3	4.7	1.9	34.1	17.3	6.1
	기혼	27.8	44.4	55.6	11.1	-	-	33.3	-	5.6
	이혼	22.7	59.1	40.9	-	13.6	-	36.4	-	4.5
	사별	21.6	28.2	71.0	4.1	-	3.7	41.9	7.9	1.2
월소득 (N=377)	100만원 미만	28.6	30.4	62.1	9.7	0.4	3.5	41.0	7.5	2.2
	100만원 이상	22.0	24.0	41.3	12.7	7.3	2.7	36.0	13.3	4.0

1. 경제적 불안감
2. 노후에 대한 걱정
3. 심리·정서적 외로움

4.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5. 1인가구에 대한 주변 인식
6. 원만하지 않은 사회관계

7.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시 도와줄 사람 없음
8. 도난 등에 대한 주거침입문제
9. 기타



[3]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1인가구의 신체건강 상태는 56.4%(매우 건강함 9.4% + 건강한 편 47.0%)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43.6%(전혀 건강하지 않음 4.2% + 건강하지 않은 편 39.4%)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성(58.3%), 농촌지역(58.0%)과 50~60대 이상(66.2%)이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신체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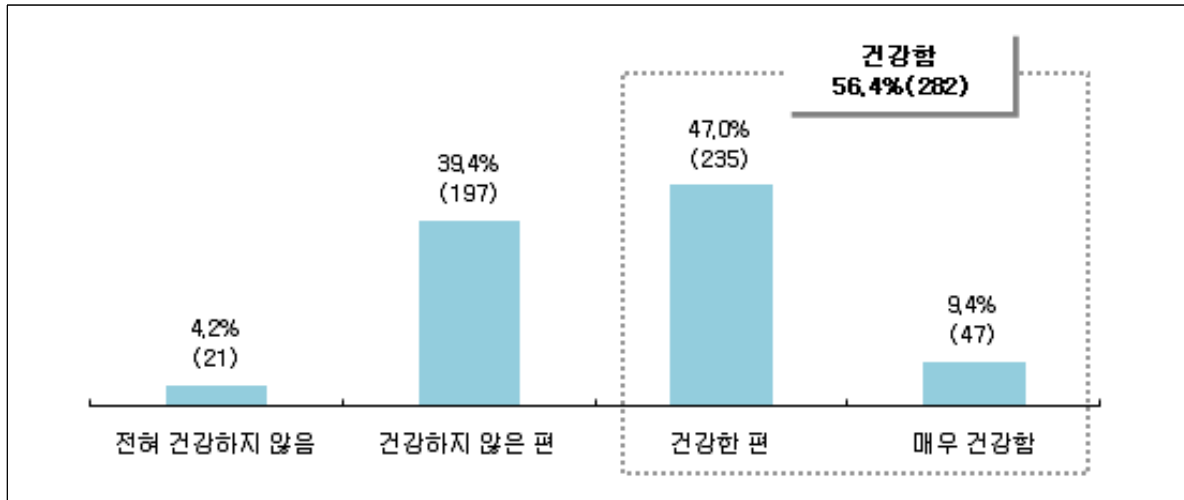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한 편	매우 건강함	전체	평균 (M±S.D)
전체		21(4.2)	197(39.4)	235(47.0)	47(9.4)	500(100.0)	2.62±0.71
성별 (N=500)	여성	20(7.2)	142(51.1)	105(37.8)	11(4.0)	278(100.0)	2.38±0.68
	남성	1(0.5)	55(24.8)	130(58.6)	36(16.2)	222(100.0)	2.91±0.65
유의도값		$X^2=66.127^{***}(df=3)$					T=-8.729 ^{***}
연령 (N=500)	20-40대	1(0.5)	33(14.9)	145(65.3)	43(19.4)	222(100.0)	3.04±0.60
	50-60대 이상	20(7.2)	164(59.0)	90(32.4)	4(1.4)	278(100.0)	2.28±0.61
유의도값		$X^2=145.084^{***}(df=3)$					T=-13.847 ^{***}
거주지역 (N=500)	도시	9(2.7)	115(34.0)	179(53.0)	35(10.4)	338(100.0)	2.71±0.68
	농촌	12(7.4)	82(50.6)	56(34.6)	12(7.4)	162(100.0)	2.42±0.74
유의도값		$X^2=22.416^{***}(df=3)$					T=4.331 ^{***}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18(9.6)	120(63.8)	48(25.2)	2(1.1)	188(100.0)	2.18±0.60
	고등학교 졸업	2(1.5)	43(32.3)	74(55.6)	14(10.5)	133(100.0)	2.75±0.66
	대학 졸업 이상	1(0.6)	30(17.6)	110(64.7)	29(17.1)	170(100.0)	2.98±0.61
유의도값		$X^2=127.835^{***}(df=6)$					F=79.161 ^{***}
혼인상태 (N=500)	비혼	1(0.5)	30(13.8)	143(65.9)	43(19.8)	217(100.0)	3.05±0.59
	기혼	-	6(33.3)	10(55.6)	2(11.1)	18(100.0)	2.78±0.65
	이혼	1(4.5)	8(36.4)	13(59.1)	-	22(100.0)	2.55±0.60
	사별	19(7.8)	153(63.0)	69(28.4)	2(0.8)	243(100.0)	2.22±0.59
유의도값		$X^2=167.587^{***}(df=9)$					F=74.882 ^{***}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6(7.0)	127(55.7)	76(33.3)	9(3.9)	228(100.0)	2.34±0.67
	100만원 이상	4(2.6)	29(19.1)	96(63.2)	23(15.1)	152(100.0)	2.78±0.78
유의도값		$X^2=64.599^{***}(df=3)$					T=-4.707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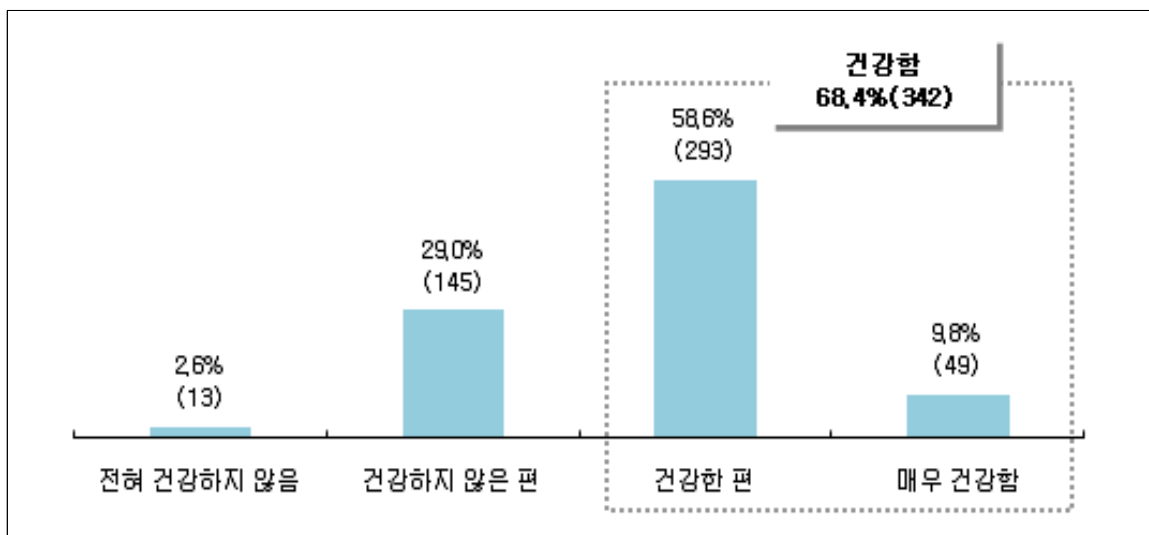
(단위 : 명)



[그림 IV-6] 신체건강 상태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68.4%(매우 건강함 9.8% + 건강한 편 58.6%)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31.6%(전혀 건강하지 않음 2.6% + 건강하지 않은 편 29.0%)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위 : 명)



[그림 IV-7] 정신건강 상태



50~60대 이상(50.3%), 농촌지역(43.9%), 중학교 졸업 이하(55.3%), 월소득 100만원 미만(47.0%)일 경우가 정신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정신건강 상태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	건강한 편	매우 건강함	전체	평균 (M±S.D)
전체		13(2.6)	145(29.0)	293(58.6)	49(9.8)	500(100.0)	2.76±0.66
성별 (N=500)	여성	10(3.6)	110(39.6)	142(51.1)	16(5.8)	278(100.0)	2.59±0.66
	남성	3(1.4)	35(15.8)	151(68.0)	33(14.9)	222(100.0)	2.96±0.60
유의도값		$X^2=43.004^{***}(df=3)$					T=-6.640 ^{***}
연령 (N=500)	20-40대	4(1.8)	14(6.3)	158(71.2)	46(20.7)	222(100.0)	3.11±0.58
	50-60대 이상	9(3.2)	131(47.1)	135(48.6)	3(1.1)	278(100.0)	2.47±0.58
유의도값		$X^2=131.224^{***}(df=3)$					T=12.169 ^{***}
거주지역 (N=500)	도시	9(2.7)	78(23.1)	213(63.0)	38(11.2)	338(100.0)	2.83±0.65
	농촌	4(2.5)	67(41.4)	80(49.4)	11(6.8)	162(100.0)	2.60±0.65
유의도값		$X^2=18.326^{***}(df=3)$					T=3.587 ^{***}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7(3.7)	97(51.6)	82(43.6)	2(1.1)	188(100.0)	2.42±0.58
	고등학교 졸업	5(3.8)	26(19.5)	85(63.9)	17(12.8)	133(100.0)	2.86±0.68
	대학 졸업 이상	1(0.6)	19(11.2)	122(71.8)	28(16.5)	170(100.0)	3.04±0.55
유의도값		$X^2=97.044^{***}(df=6)$					F=50.783 ^{***}
혼인상태 (N=500)	비혼	4(1.8)	15(6.9)	153(70.5)	45(20.7)	217(100.0)	3.10±0.58
	기혼	-	2(11.1)	15(83.3)	1(5.6)	18(100.0)	2.94±0.42
	이혼	-	8(36.4)	13(59.1)	1(4.5)	22(100.0)	2.68±0.57
	사별	9(3.7)	120(49.4)	112(46.1)	2(0.8)	243(100.0)	2.44±0.58
유의도값		$X^2=137.412^{***}(df=9)$					F=50.849 ^{***}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7(3.1)	100(43.9)	108(47.4)	13(5.7)	228(100.0)	2.56±0.65
	100만원 이상	2(1.3)	19(12.5)	109(71.7)	22(14.5)	152(100.0)	2.89±0.60
유의도값		$X^2=46.907^{***}(df=3)$					T=-4.149 ^{***}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로 있어서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 하는 행동은 응답자의 57.7%가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한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한다(55.7%), 술을 마신다(14.8%), SNS/인터넷 서핑(9.3%), 컴퓨터 게임을 한다(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TV 시청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여성은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한다(68.2%), 남성은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한다(55.3%)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V-11]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하는 행동

(중복응답, 단위: %, 무응답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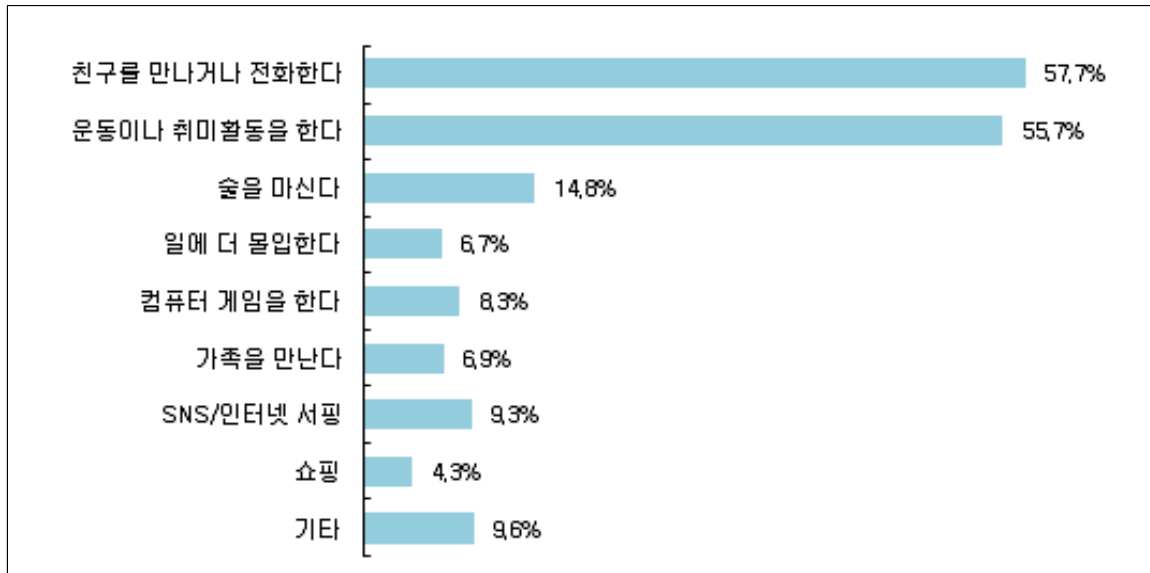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7	8	9
전체		57.7	55.7	14.8	6.7	8.3	6.9	9.3	4.3	9.6
성별 (N=492)	여성	68.2	51.5	5.5	6.6	2.6	9.1	8.8	6.6	12.4
	남성	44.5	61.0	26.6	6.9	15.6	4.1	10.1	1.4	6.0
연령 (N=492)	20-40대	55.3	53.0	16.9	6.4	18.3	5.9	20.5	5.5	5.9
	50-60대 이상	59.7	57.9	13.2	7.0	0.4	7.7	0.4	3.3	12.5
거주지역 (N=492)	도시	54.4	58.9	17.8	6.0	10.3	3.9	12.4	5.4	6.3
	농촌	64.6	49.1	8.7	8.1	4.3	13.0	3.1	1.9	16.1
최종학력 (N=483)	중학교 졸업 이하	67.9	47.3	5.4	6.5	-	10.9	-	2.2	16.8
	고등학교 졸업	52.3	61.4	22.0	6.8	11.4	2.3	16.7	8.3	3.0
	대학 졸업 이상	50.3	59.3	19.2	7.2	15.6	6.6	14.4	3.6	6.6
혼인상태 (N=492)	비혼	54.7	55.1	16.4	7.0	17.8	5.6	21.0	5.1	5.6
	기혼	50.0	55.6	22.2	5.6	5.6	5.6	5.6	5.6	11.1
	이혼	40.9	18.2	36.4	9.1	9.1	4.5	-	4.5	13.6
	사별	62.6	59.7	10.9	6.3	-	8.4	-	3.4	12.6
월소득 (N=375)	100만원 미만	66.1	53.3	11.5	7.5	1.8	9.3	3.1	2.2	11.9
	100만원 이상	52.0	54.7	17.6	7.4	12.8	5.4	13.5	3.4	7.4

1.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한다
2.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한다
3. 술을 마신다

4. 일에 더 몰입한다
5. 컴퓨터 게임을 한다
6. 가족을 만난다

7. SNS/인터넷 서핑
8. 쇼핑
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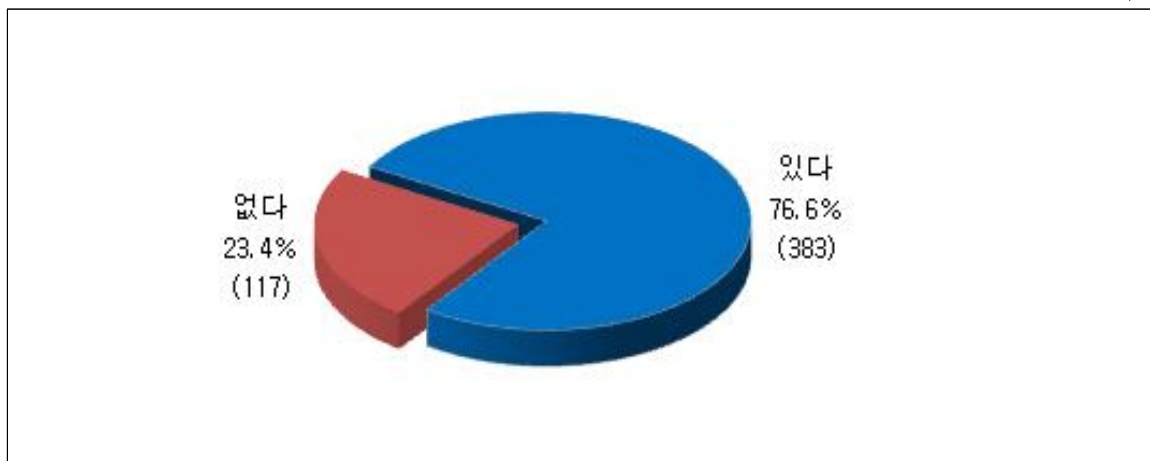
(단위 : %, 명)



[그림 IV-8]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하는 행동

위급한 상황 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에 관해 76.6%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3.4%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명)



[그림 IV-9] 위급한 상황 시 도와줄 사람



거주지역별, 학력별, 혼인상태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농촌지역(35.8%)이 도시지역(17.5%)보다, 중학교 졸업 이하(44.1%)가 대학 졸업 이상(8.2%)보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위급한 상황 시 도와줄 사람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전체		383(76.6)	117(23.4)	500(100.0)
성별 (N=500)	여성	206(74.1)	72(25.9)	278(100.0)
	남성	177(79.7)	45(20.3)	222(100.0)
유의도값		$X^2 = 2.182(df=1)$		
연령 (N=500)	20-40대	206(92.8)	16(7.2)	222(100.0)
	50-60대 이상	177(63.7)	101(36.3)	278(100.0)
유의도값		$X^2 = 58.409(df=1)$		
거주지역 (N=500)	도시	279(82.5)	59(17.5)	338(100.0)
	농촌	104(64.2)	58(35.8)	162(100.0)
유의도값		$X^2 = 20.566^{***}(df=1)$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105(55.9)	83(44.1)	188(100.0)
	고등학교 졸업	115(86.5)	18(13.5)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56(91.8)	14(8.2)	170(100.0)
유의도값		$X^2 = 74.141^{***}(df=2)$		
혼인상태 (N=500)	비혼	202(93.1)	15(6.9)	217(100.0)
	기혼	13(72.2)	5(27.8)	18(100.0)
	이혼	13(59.1)	9(40.9)	22(100.0)
	사별	155(63.8)	88(36.2)	243(100.0)
유의도값		$X^2 = 59.125^{***}(df=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42(62.3)	86(37.7)	228(100.0)
	100만원 이상	130(85.5)	22(14.5)	152(100.0)
유의도값		$X^2 = 24.224(df=1)$		

*** $p < 0.001$, ** $p < 0.01$, * $p < 0.05$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3.4%가 친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부모(24.8%), 형제와 자매(24.5%), 직장(학교)동료 및 선후배(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친구(54.4%)와 형제·자매(24.8%), 남성은 친구(74.0%)



와 부모(32.2%)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74.8%), 도시지역(71.1%), 비혼(74.8%)일 경우 위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친구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13]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중복응답, 단위: %, 무응답제외)

구분		1	2	3	4	5	6	7	8	9
전체		24.8	24.5	63.4	6.8	14.9	5.2	9.9	1.6	14.4
성별 (N=383)	여성	18.4	24.8	54.4	3.4	12.1	4.9	10.7	1.9	19.9
	남성	32.2	24.3	74.0	10.7	18.1	5.6	9.0	1.1	7.9
연령 (N=383)	20~40대	45.1	28.2	74.8	11.7	26.7	5.8	1.5	0.5	1.0
	50~60대 이상	1.1	20.3	50.3	1.1	1.1	4.5	19.8	2.8	29.9
거주지역 (N=383)	도시	25.4	26.5	71.7	8.2	16.1	5.0	9.7	0.7	7.5
	농촌	23.1	19.2	41.3	2.9	11.5	5.8	10.6	3.8	32.7
최종학력 (N=376)	중학교 졸업 이하	1.0	17.1	40.0	-	1.0	5.7	14.3	2.9	41.9
	고등학교 졸업	27.0	25.2	77.4	7.0	11.3	6.1	11.3	0.9	6.1
	대학 졸업 이상	40.4	28.8	69.9	11.5	27.6	4.5	5.1	1.3	1.3
혼인상태 (N=383)	비혼	45.0	29.7	74.8	12.4	25.2	5.9	1.5	0.5	0.5
	기혼	7.7	15.4	46.2	-	38.5	7.7	-	7.7	15.4
	이혼	23.1	38.5	30.8	-	-	-	38.5	7.7	-
	사별	-	17.4	52.9	0.6	0.6	4.5	19.4	1.9	33.5
월소득 (N=272)	100만원 미만	9.9	25.4	53.5	1.4	4.9	5.6	19.0	2.1	25.4
	100만원 이상	40.8	26.9	61.5	10.8	25.4	4.6	5.4	1.5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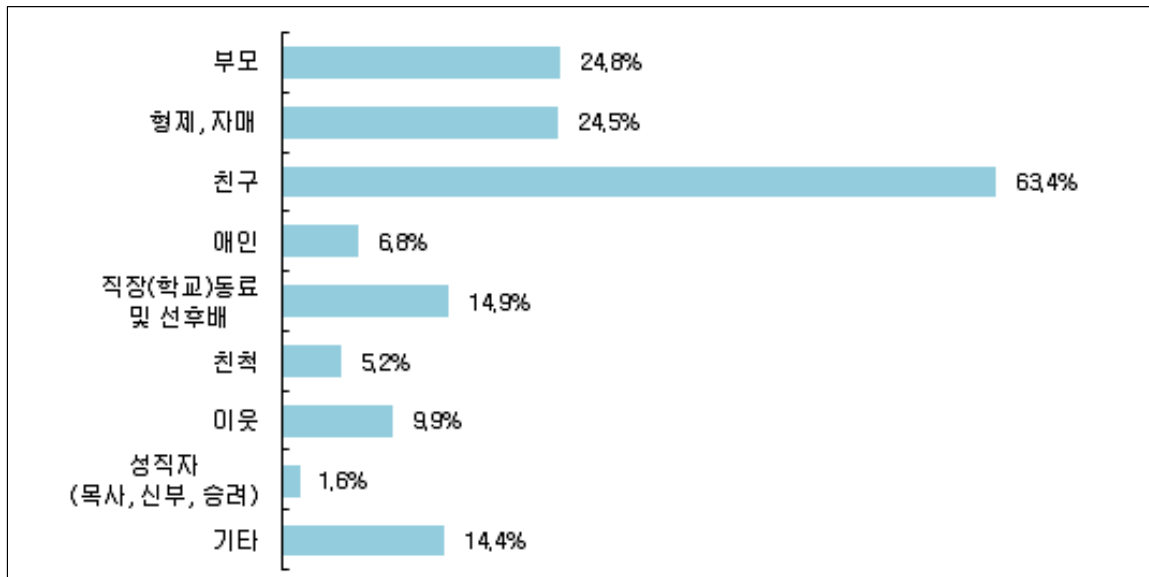
1. 부모
2. 형제, 자매
3. 친구

4. 애인
5. 직장(학교)동료 및 선후배
6. 친척

7. 이웃
8.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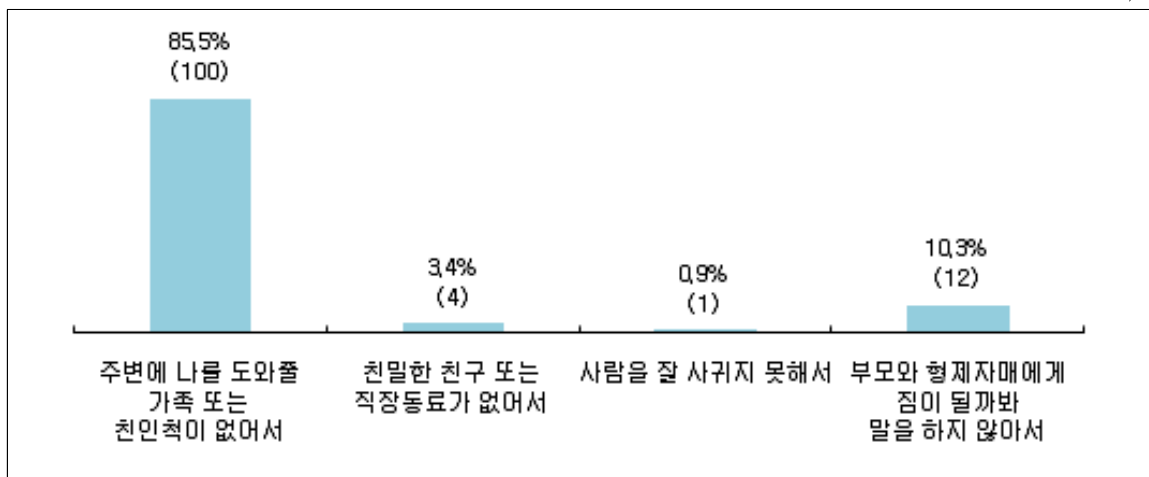
(단위 : %, 명)



[그림 IV-10]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만약,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 이유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가족 또는 친인척이 없어서가 85.5%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 명)



[그림 IV-11]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이유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이유에서 연령과 혼인상태에서 $p<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가족 또는 친인척이 없어서는 농촌지역(91.4%), 50~60대 이상(92.1%), 중학교 졸업 이하(91.6%)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14]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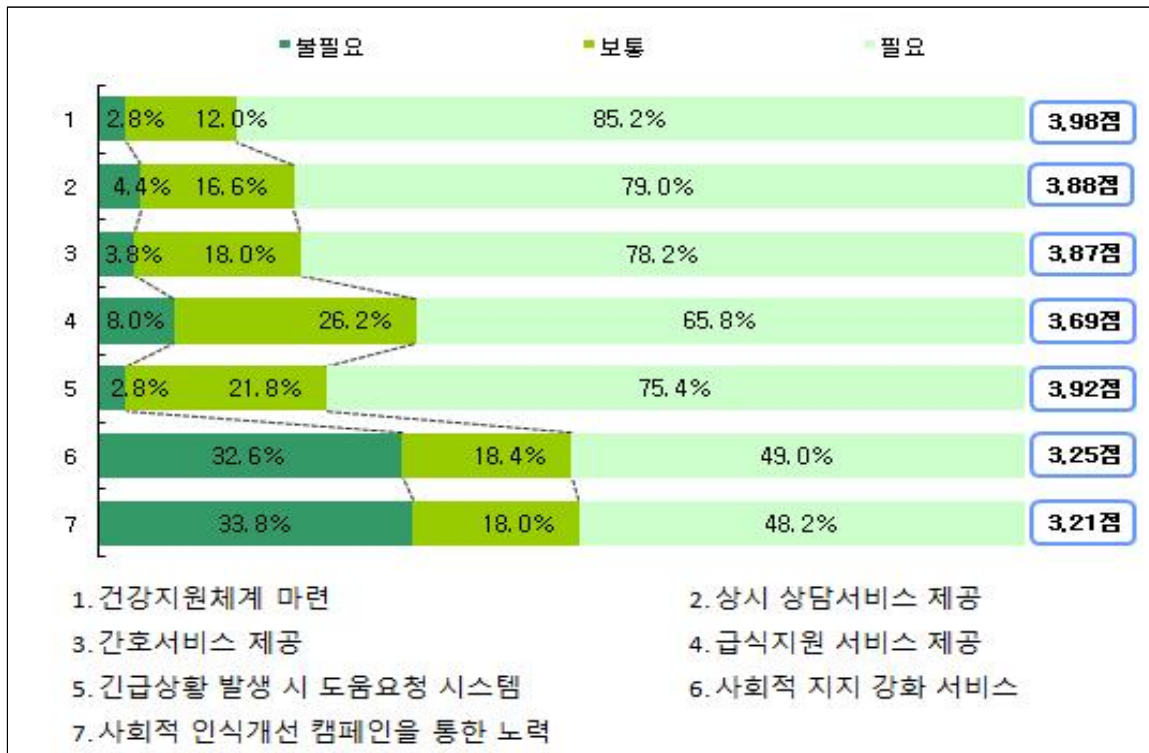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주변에 나를 도와줄 가족 또는 친인척이 없어서	친밀한 친구 또는 직장동료가 없어서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해서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짐이 될까봐 말을 하지 않아서	전체
전체		100(85.5)	4(3.4)	1(0.9)	12(10.3)	117(100.0)
성별 (N=117)	여성	62(86.1)	2(2.8)	-	8(11.1)	72(100.0)
	남성	38(84.4)	2(4.4)	1(2.2)	4(8.9)	45(100.0)
유의도값		$X^2=1.967(df=3)$				
연령 (N=117)	20~40대	7(43.8)	3(18.8)	16(6.3)	5(31.3)	16(100.0)
	50~60대 이상	93(92.1)	1(1.0)	-	7(6.9)	101(100.0)
유의도값		$X^2=30.794^{***}(df=3)$				
거주지역 (N=117)	도시	47(79.7)	3(5.1)	-	9(15.3)	59(100.0)
	농촌	53(91.4)	1(1.7)	1(1.7)	3(5.2)	58(100.0)
유의도값		$X^2=5.352(df=3)$				
최종학력 (N=115)	중학교 졸업 이하	76(91.6)	1(1.2)	-	6(7.2)	83(100.0)
	고등학교 졸업	14(77.8)	2(11.1)	-	2(11.1)	18(100.0)
	대학 졸업 이상	8(57.1)	1(7.1)	1(7.1)	4(28.6)	14(100.0)
유의도값		$X^2=19.046^{**}(df=6)$				
혼인상태 (N=117)	비혼	6(40.0)	3(20.0)	1(6.7)	5(33.3)	15(100.0)
	기혼	5(100.0)	-	-	-	5(100.0)
	이혼	7(77.8)	-	-	2(22.2)	9(100.0)
	사별	82(93.2)	1(1.1)	-	5(5.7)	88(100.0)
유의도값		$X^2=36.462^{***}(df=9)$				
월소득 (N=108)	100만원 미만	78(90.7)	1(1.2)	-	7(8.1)	86(100.0)
	100만원 이상	16(72.7)	1(4.5)	1(4.5)	4(18.2)	22(100.0)
유의도값		$X^2=7.376(df=3)$				

*** $p<0.001$, ** $p<0.01$, * $p<0.05$



건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 및 서비스는 건강지원체계 마련이 3.98점으로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 시스템 3.92점,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3.88점, 간호서비스 제공 3.87점, 급식지원 서비스 제공 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2] 건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중 건강지원체계의 필요성에 관해 응답자의 85.2%(매우 필요 16.8% + 필요 6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8%(전혀 불필요 0.8%, 불필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91.4%)이, 50~60대 이상(96.8%), 농촌지역(90.7%), 중학교 졸업(98.4%), 사별(98.0%)에서 건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95.6%)의 경우 건강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V-15] 건강지원체계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전체		4(0.8)	10(2.0)	60(12.0)	342(68.4)	84(16.8)	500(100.0)	3.98±0.66
성별 (N=500)	여성	1(0.4)	5(1.8)	18(6.5)	207(74.5)	47(16.9)	278(100.0)	4.06±0.58
	남성	3(1.4)	5(2.3)	42(18.9)	135(60.8)	37(16.7)	222(100.0)	3.89±0.75
유의도값		$X^2=20.939^{***}(df=4)$						T=2.715**
연령 (N=500)	20-40대	4(1.8)	8(3.6)	53(23.9)	130(58.6)	27(12.2)	222(100.0)	3.76±0.78
	50-60대 이상	-	2(0.7)	7(2.5)	212(76.3)	57(20.5)	278(100.0)	4.17±0.48
유의도값		$X^2=67.821^{***}(df=4)$						T=-6.826***
거주지역 (N=500)	도시	4(1.2)	9(2.7)	46(13.6)	224(66.3)	55(16.3)	338(100.0)	3.94±0.71
	농촌	-	1(0.6)	14(8.6)	118(72.8)	29(17.9)	162(100.0)	4.08±0.53
유의도값		$X^2=7.323(df=4)$						T=-2.254**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	-	3(1.6)	139(73.9)	46(24.5)	188(100.0)	4.23±0.46
	고등학교 졸업	1(0.8)	3(2.3)	18(13.5)	91(68.4)	20(15.0)	133(100.0)	3.95±0.67
	대학 졸업 이상	3(1.8)	7(4.1)	39(22.9)	103(60.6)	18(10.6)	170(100.0)	3.74±0.77
유의도값		$X^2=57.305^{***}(df=8)$						F=26.393***
혼인상태 (N=500)	비혼	4(1.8)	9(4.1)	51(23.5)	126(58.1)	27(12.4)	217(100.0)	3.75±0.80
	기혼	-	-	2(11.1)	15(83.3)	1(5.6)	18(100.0)	3.94±0.42
	이혼	-	-	3(13.6)	13(59.1)	6(27.3)	22(100.0)	4.14±0.64
	사별	-	1(0.4)	4(1.6)	188(77.4)	50(20.6)	243(100.0)	4.18±0.45
유의도값		$X^2=74.197^{***}(df=12)$						F=18.14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0.4)	1(0.4)	8(3.5)	171(75.0)	47(20.6)	228(100.0)	4.15±0.53
	100만원 이상	2(1.3)	5(3.3)	36(23.7)	86(56.6)	23(15.1)	152(100.0)	3.89±0.74
유의도값		$X^2=43.708^{***}(df=4)$						T=2.770**

***p<0.001, **p<0.01, *p<0.05

정신건강을 위한 상시 상담서비스는 응답자의 79.0%(매우 필요 14.2% + 필요 6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4%(전혀 불필요 0.8% + 불



필요 3.6%)로 나타났다. 여성(85.2%), 50~60대 이상(93.1%), 농촌지역(87.7%), 중학교 졸업 이하(95.7%), 사별(94.2%), 월소득 100만원 미만(88.2%)에서 상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상시 상담서비스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전체		4(0.8)	18(3.6)	83(16.6)	324(64.8)	71(14.2)	500(100.0)	3.88±0.71
성별 (N=500)	여성	-	5(1.8)	36(12.9)	198(71.2)	39(14.0)	278(100.0)	3.97±0.59
	남성	4(1.8)	13(5.9)	47(21.2)	126(56.8)	32(14.4)	222(100.0)	3.76±0.84
유의도값		$X^2 = 19.678^{***} (df=4)$						T=3.228**
연령 (N=500)	20-40대	4(1.8)	16(7.2)	66(29.7)	111(50.0)	25(11.3)	222(100.0)	3.62±0.85
	50-60대 이상	-	2(0.7)	17(6.1)	213(76.6)	46(16.5)	278(100.0)	4.09±0.50
유의도값		$X^2 = 76.831^{***} (df=4)$						T=-7.364***
거주지역 (N=500)	도시	3(0.9)	13(3.8)	69(20.4)	209(61.8)	44(13.0)	338(100.0)	3.82±0.73
	농촌	1(0.6)	5(3.1)	14(8.6)	115(71.0)	27(16.7)	162(100.0)	4.00±0.66
유의도값		$X^2 = 11.861^* (df=4)$						T=-2.715**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1(0.5)	1(0.5)	8(4.3)	143(76.1)	35(18.6)	188(100.0)	4.12±0.53
	고등학교 졸업	2(1.5)	4(3.0)	31(23.3)	77(57.9)	19(14.3)	133(100.0)	3.80±0.77
	대학 졸업 이상	1(0.6)	13(7.6)	43(25.3)	96(56.5)	17(10.0)	170(100.0)	3.68±0.78
유의도값		$X^2 = 53.138^{***} (df=7)$						F=19.020***
혼인상태 (N=500)	비혼	4(1.8)	16(7.4)	66(30.4)	106(48.8)	25(11.5)	217(100.0)	3.61±0.85
	기혼	-	-	2(11.1)	15(83.3)	1(5.6)	18(100.0)	3.94±0.42
	이혼	-	1(4.5)	2(9.1)	13(59.1)	6(27.3)	22(100.0)	4.09±0.75
	사별	-	1(0.4)	13(5.3)	190(78.2)	39(16.0)	243(100.0)	4.10±0.47
유의도값		$X^2 = 87.500^{***} (df=12)$						F=20.989***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	6(2.6)	21(9.2)	162(71.1)	39(17.1)	228(100.0)	4.03±0.61
	100만원 이상	2(1.3)	9(5.9)	36(23.7)	86(56.6)	19(12.5)	152(100.0)	3.83±0.79
유의도값		$X^2 = 22.432^{***} (df=4)$						T=1.991**

*** $p < 0.001$, ** $p < 0.01$, * $p < 0.05$



간호서비스는 응답자의 78.2%(매우 필요 14.0% + 필요 6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8%(전혀 불필요 1.0% + 불필요 2.8%)로 나타났다. 여성(84.1%), 50~60대 이상(88.4%), 농촌지역(84.0%), 중학교 졸업 이하(90.4%), 사별(90.5%), 월소득 100만원 미만(86.8%)에서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간호서비스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전체		5(1.0)	14(2.8)	90(18.0)	321(64.2)	70(14.0)	500(100.0)	3.87±0.71
성별 (N=500)	여성	-	5(1.8)	39(14.0)	193(69.4)	41(14.7)	278(100.0)	3.97±0.60
	남성	5(2.3)	9(4.1)	51(23.0)	128(57.7)	29(13.1)	222(100.0)	3.75±0.82
유의도값		$X^2=16.902^{**}(df=4)$						$T=3.339^{***}$
연령 (N=500)	20-40대	5(2.3)	12(5.4)	60(27.0)	126(56.8)	19(8.6)	222(100.0)	3.64±0.80
	50-60대 이상	-	2(0.7)	30(10.8)	195(70.1)	51(18.3)	278(100.0)	4.06±0.56
유의도값		$X^2=45.907^{***}(df=4)$						$F=-6.615^{***}$
*거주지역 (N=500)	도시	4(1.2)	11(3.3)	68(20.1)	218(64.5)	37(10.9)	338(100.0)	3.81±0.72
	농촌	1(0.6)	3(1.9)	22(13.6)	103(63.6)	33(20.4)	162(100.0)	4.01±0.69
유의도값		$X^2=10.682^{*}(df=4)$						$T=-3.076^{**}$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1(0.5)	1(0.5)	16(8.5)	132(70.2)	38(20.2)	188(100.0)	4.09±0.59
	고등학교 졸업	2(1.5)	5(3.8)	27(20.3)	80(60.2)	19(14.3)	133(100.0)	3.82±0.78
	대학 졸업 이상	2(1.2)	8(4.7)	47(27.6)	100(58.8)	13(7.6)	170(100.0)	3.67±0.74
유의도값		$X^2=37.031^{***}(df=8)$						$F=16.733^{***}$
혼인상태 (N=500)	비혼	5(2.3)	12(5.5)	62(28.6)	120(55.3)	18(8.3)	217(100.0)	3.62±0.81
	기혼	-	1(5.6)	2(11.1)	13(72.2)	2(11.1)	18(100.0)	3.89±0.68
	이혼	-	-	4(18.2)	13(59.1)	5(22.7)	22(100.0)	4.05±0.65
	사별	-	1(0.4)	22(9.1)	175(72.0)	45(18.5)	243(100.0)	4.09±0.53
유의도값		$X^2=58.258^{***}(df=12)$						$F=18.84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0.4)	3(1.3)	26(11.4)	156(68.4)	42(18.4)	228(100.0)	4.03±0.63
	100만원 이상	3(2.0)	5(3.3)	39(25.7)	88(57.9)	17(11.2)	152(100.0)	3.76±0.78
유의도값		$X^2=19.213^{**}(df=4)$						$T=2.711^{**}$

*** $p < 0.001$, ** $p < 0.01$, * $p < 0.05$



그리고 도움 요청시스템은 응답자의 75.4%(매우 필요 20.0% + 필요 55.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8%(전혀 불필요 1.0% + 불필요 1.8%)에 불과하다. 여성(78.8%), 기혼(94.5%), 월소득 100만원 미만(80.3%)에서 도움요청시스템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표 Ⅳ-18] 도움 요청시스템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전체		5(1.0)	9(1.8)	109(21.8)	277(55.4)	100(20.0)	500(100.0)	3.92±0.76
성별 (N=500)	여성	2(0.7)	2(0.7)	55(19.8)	167(60.1)	52(18.7)	278(100.0)	3.95±0.69
	남성	3(1.4)	7(3.2)	54(24.3)	110(49.5)	48(21.6)	222(100.0)	3.87±0.83
유의도값		$X^2=8.713(df=4)$						T=1.205
연령 (N=500)	20-40대	5(2.3)	8(3.6)	43(19.4)	120(54.1)	46(20.7)	222(100.0)	3.87±0.86
	50-60대 이상	-	1(0.4)	66(23.7)	157(56.5)	54(19.4)	278(100.0)	3.95±0.67
유의도값		$X^2=14.793^{**}(df=4)$						T=-1.081^{**}
거주지역 (N=500)	도시	5(1.5)	5(1.5)	77(22.8)	183(54.1)	68(20.1)	338(100.0)	3.90±0.78
	농촌	-	4(2.5)	32(19.8)	94(58.0)	32(19.8)	162(100.0)	3.95±0.70
유의도값		$X^2=3.758(df=4)$						T=7.145^{***}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	1(0.5)	38(20.2)	112(59.6)	37(19.7)	188(100.0)	3.98±0.65
	고등학교 졸업	1(0.8)	2(1.5)	36(27.1)	66(49.6)	28(21.1)	133(100.0)	3.89±0.78
	대학 졸업 이상	4(2.4)	6(3.5)	33(19.4)	93(54.7)	34(20.0)	170(100.0)	3.86±0.86
유의도값		$X^2=13.305(df=8)$						F=1.235
혼인상태 (N=500)	비혼	5(2.3)	8(3.7)	44(20.3)	115(53.0)	45(20.7)	217(100.0)	3.86±0.87
	기혼	-	-	1(5.6)	12(66.7)	5(27.8)	18(100.0)	4.22±0.55
	이혼	-	-	4(18.2)	14(63.6)	4(18.2)	22(100.0)	4.00±0.62
	사별	-	1(0.4)	60(24.7)	136(56.0)	46(18.9)	243(100.0)	3.93±0.67
유의도값		$X^2=19.310(df=12)$						F=1.492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	2(0.9)	43(18.9)	135(59.2)	48(21.1)	228(100.0)	4.00±0.66
	100만원 이상	5(3.3)	5(3.3)	27(17.8)	85(55.9)	30(19.7)	152(100.0)	3.83±0.84
유의도값		$X^2=10.688^{*}(df=4)$						T=1.660^{**}

***p<0.001, **p<0.01, *p<0.05



사회적 지지 강화서비스 필요성에 관해 49.0%(매우 필요 10.4% + 필요 3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2.6%(전혀 불필요 2.2% + 불필요 30.4%)로 나타났다. 여성(54.3%), 50~60대 이상(53.2%), 농촌지역(58.0%), 중학교 졸업 이하(60.6%), 이혼(77.2%), 월소득 100만원 미만(56.6%)에서 사회적 지지 강화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사회적 지지 강화서비스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전체		11(2.2)	152(30.4)	92(18.4)	193(38.6)	52(10.4)	500(100.0)	3.25±1.07
성별 (N=500)	여성	4(1.4)	85(30.6)	38(13.7)	123(44.2)	28(10.1)	278(100.0)	3.31±1.06
	남성	7(3.2)	67(30.2)	54(24.3)	70(31.5)	24(10.8)	222(100.0)	3.17±1.07
유의도값		$X^2=14.504^{**}(df=4)$						T=1.489
연령 (N=500)	20-40대	11(5.0)	51(23.0)	63(28.4)	79(35.6)	18(8.1)	222(100.0)	3.19±1.04
	50-60대 이상	-	101(36.3)	29(10.4)	114(41.0)	34(12.2)	278(100.0)	3.29±1.09
유의도값		$X^2=45.583^{***}(df=4)$						T=-1.071^{**}
거주지역 (N=500)	도시	11(3.3)	109(32.2)	67(19.8)	121(35.8)	30(8.9)	338(100.0)	3.15±1.07
	농촌	-	43(26.5)	25(15.4)	72(44.4)	22(13.6)	162(100.0)	3.45±1.03
유의도값		$X^2=12.043^{*}(df=4)$						T=-2.996^{**}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	54(28.7)	20(10.6)	88(46.8)	26(13.8)	188(100.0)	3.46±1.05
	고등학교 졸업	4(3.0)	55(41.4)	23(17.3)	37(27.8)	14(10.5)	133(100.0)	3.02±1.11
	대학 졸업 이상	7(4.1)	36(21.2)	49(28.8)	66(38.8)	12(7.1)	170(100.0)	3.24±1.00
유의도값		$X^2=44.635^{***}(df=8)$						F=6.975^{**}
혼인상태 (N=500)	비혼	11(5.1)	50(23.0)	63(29.0)	74(34.1)	19(8.8)	217(100.0)	3.18±1.05
	기혼	-	4(22.2)	4(22.2)	10(55.6)	-	18(100.0)	3.33±0.84
	이혼	-	-	5(22.7)	12(54.5)	5(22.7)	22(100.0)	4.00±0.69
	사별	-	98(40.3)	20(8.2)	97(39.9)	28(11.5)	243(100.0)	3.23±1.10
유의도값		$X^2=70.514^{***}(df=12)$						F=4.054^{**}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2(0.9)	74(32.5)	23(10.1)	100(43.9)	29(12.7)	228(100.0)	3.35±1.09
	100만원 이상	5(3.3)	22(14.5)	46(30.3)	65(42.8)	14(9.2)	152(100.0)	3.41±0.98
유의도값		$X^2=36.017^{***}(df=4)$						T=-0.426^{*}

*** $p < 0.001$, ** $p < 0.01$, * $p < 0.05$



[4] 주거환경 및 안전(맞춤형 주거 및 안전)

본 연구의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주택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9.4%가 단독주택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빌라/오피스텔(22.6%), 일반 아파트(21.8%), 기숙사(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제외한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이상(63.3%), 농촌지역(57.4%), 중학교 졸업 이하(67.6%),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단독주택(58.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0] 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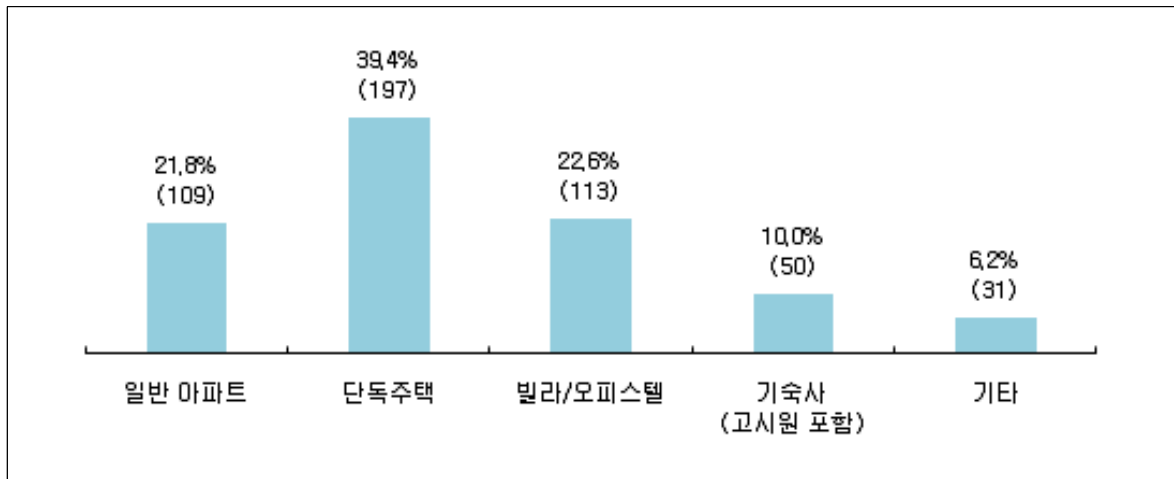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일반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포함)	기타	전체
전체		109(21.8)	197(39.4)	113(22.6)	50(10.0)	31(6.2)	500(100.0)
성별 (N=500)	여성	68(24.5)	121(43.5)	55(19.8)	20(7.2)	14(5.0)	278(100.0)
	남성	41(18.5)	76(34.2)	58(26.1)	30(13.5)	17(7.7)	222(100.0)
유의도값		$X^2 = 13.231^*(df=4)$					
연령 (N=500)	20~40대	34(15.3)	21(9.5)	93(41.9)	49(22.1)	25(11.3)	222(100.0)
	50~60대 이상	75(27.0)	176(63.3)	20(7.2)	1(0.4)	6(2.2)	278(100.0)
유의도값		$X^2 = 238.987^{***}(df=4)$					
거주지역 (N=500)	도시	63(18.6)	104(30.8)	93(27.5)	48(14.2)	30(8.9)	338(100.0)
	농촌	46(28.4)	93(57.4)	20(12.3)	2(1.2)	1(0.6)	162(100.0)
유의도값		$X^2 = 66.114^{***}(df=4)$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43(22.9)	127(67.6)	13(6.9)	1(0.5)	4(2.1)	188(100.0)
	고등학교 졸업	20(15.0)	35(26.3)	31(23.3)	34(25.6)	13(9.8)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44(25.9)	30(17.6)	68(40.0)	14(8.2)	14(8.2)	170(100.0)
유의도값		$X^2 = 169.975^{***}(df=8)$					
혼인상태 (N=500)	비혼	36(16.6)	20(9.2)	86(39.6)	49(22.6)	26(12.0)	217(100.0)
	기혼	5(27.8)	2(11.1)	10(55.6)	1(5.6)	-	18(100.0)
	이혼	7(31.8)	10(45.5)	4(18.2)	-	1(4.5)	22(100.0)
	사별	61(25.1)	165(67.9)	13(5.3)	-	4(1.6)	243(100.0)
유의도값		$X^2 = 260.291^{***}(df=12)$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52(22.8)	133(58.3)	29(12.7)	3(1.3)	11(4.8)	228(100.0)
	100만원 이상	50(32.9)	26(17.1)	58(38.2)	5(3.3)	13(8.6)	152(100.0)
유의도값		$X^2 = 69.978^{***}(df=4)$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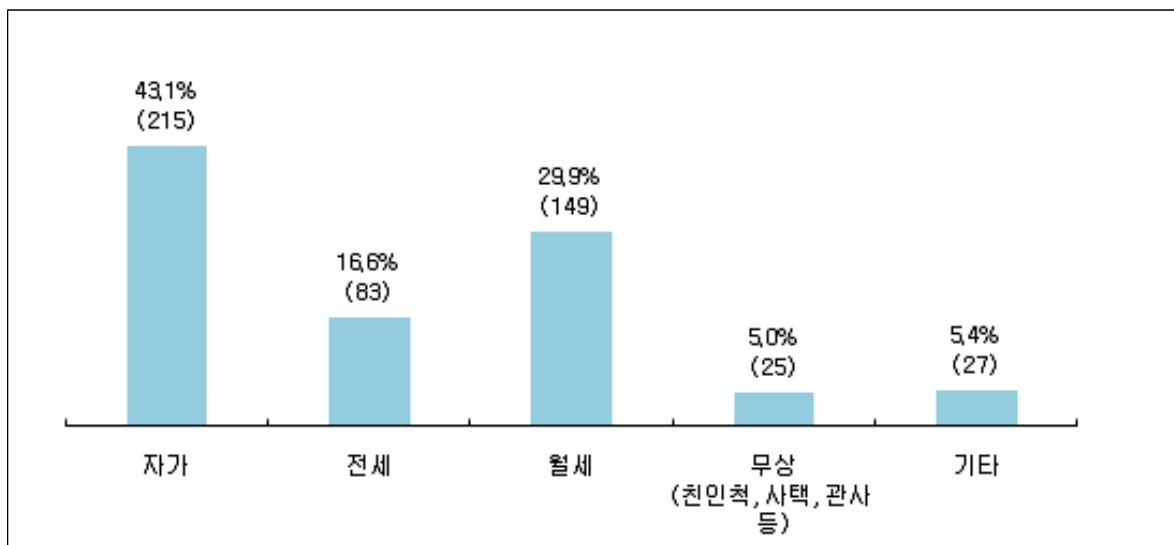
(단위 : %, 명)



[그림 IV-13] 주택 유형

주택 소유형태는 응답자의 43.1%가 자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월세 (29.9%), 전세(16.6%), 기타(5.4%), 무상(5.0%)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 명)



[그림 IV-14] 주택 소유형태



성별 특성으로 여성은 자가 49.5%, 남성은 월세 36.0%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월세는 20~40대(55.7%), 도시 지역(35.6%), 대학 졸업 이상(45.3%), 비혼(56.0%), 월소득 100만원 이상(40.1%)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주택 소유형태

(단위: 명, %, 무응답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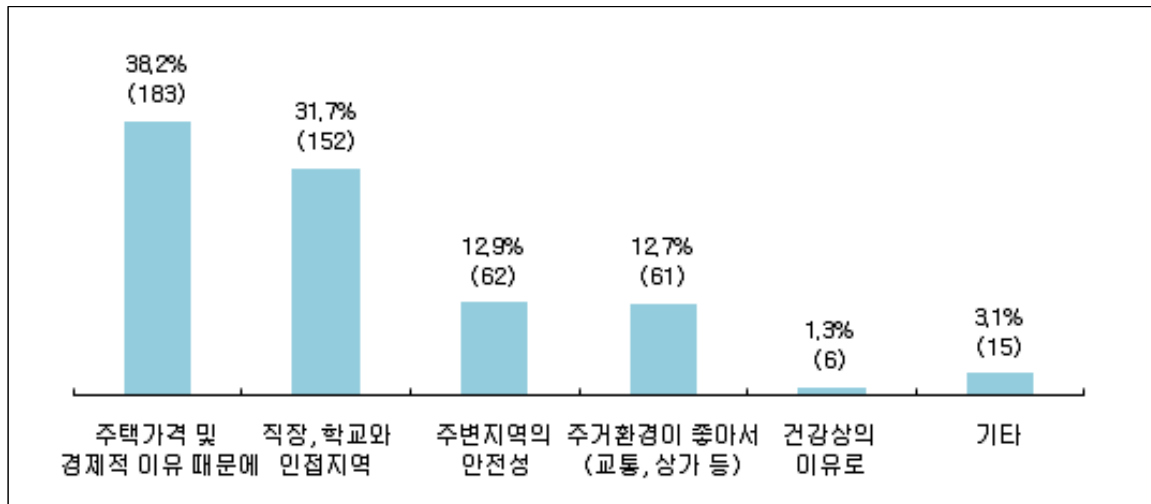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기타	전체
전체		215(43.1)	83(16.6)	149(29.9)	2(5.0)	27(5.4)	499(100.0)
성별 (N=499)	여성	137(49.5)	41(14.8)	69(24.9)	16(5.8)	14(5.1)	277(100.0)
	남성	78(35.1)	42(18.9)	80(36.0)	9(4.1)	13(5.9)	222(100.0)
유의도값		$X^2 = 13.109^*(df=4)$					
연령 (N=499)	20-40대	20(9.0)	44(19.9)	123(55.7)	10(4.5)	24(10.9)	221(100.0)
	50-60대 이상	195(70.1)	39(14.0)	26(9.4)	15(5.4)	3(1.1)	278(100.0)
유의도값		$X^2 = 219.578^{***}(df=4)$					
거주지역 (N=499)	도시	117(34.7)	62(18.4)	120(35.6)	12(3.6)	26(7.7)	337(100.0)
	농촌	98(60.5)	21(13.0)	29(17.9)	13(8.0)	1(0.6)	162(100.0)
유의도값		$X^2 = 44.840^{***}(df=4)$					
최종학력 (N=490)	중학교 졸업 이하	128(68.1)	22(11.7)	22(11.7)	13(6.9)	3(1.6)	188(100.0)
	고등학교 졸업	43(32.6)	16(12.1)	50(37.9)	7(5.3)	16(12.1)	132(100.0)
	대학 졸업 이상	38(22.4)	43(25.3)	77(45.3)	5(2.9)	7(4.1)	170(100.0)
유의도값		$X^2 = 116.284^{***}(df=8)$					
혼인상태 (N=499)	비혼	21(9.7)	41(19.0)	121(56.0)	9(4.2)	24(11.1)	216(100.0)
	기혼	5(27.8)	5(27.8)	7(38.9)	1(5.6)	-	18(100.0)
	이혼	11(50.0)	6(27.3)	2(9.1)	3(13.6)	-	22(100.0)
	사별	178(73.3)	31(12.8)	19(7.8)	12(4.9)	3(1.2)	243(100.0)
유의도값		$X^2 = 233.358^{***}(df=12)$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37(60.1)	30(13.2)	40(17.5)	15(6.6)	6(2.6)	228(100.0)
	100만원 이상	46(30.3)	39(25.7)	61(40.1)	5(3.3)	1(0.7)	152(100.0)
유의도값		$X^2 = 46.003^{***}(df=4)$					

*** $p < 0.001$, ** $p < 0.01$, * $p < 0.05$



주택 선택 시 고려하는 분야는 38.2%가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이어서 직장, 학교와 인접 지역(31.7%), 주변지역의 안전성(12.9%), 주거 환경이 좋아서(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그림 IV-15] 주택 선택시 고려 사항

여성은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 40.2%, 남성은 직장, 학교와 인접해서 39.5%로 나타났다. 주택 선택시 고려 사항으로 50~60대 이상(54.7%), 중학교 졸업 이하(59.9%), 사별(54.3%), 월소득 100만원 미만(57.1%)일 경우는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를 고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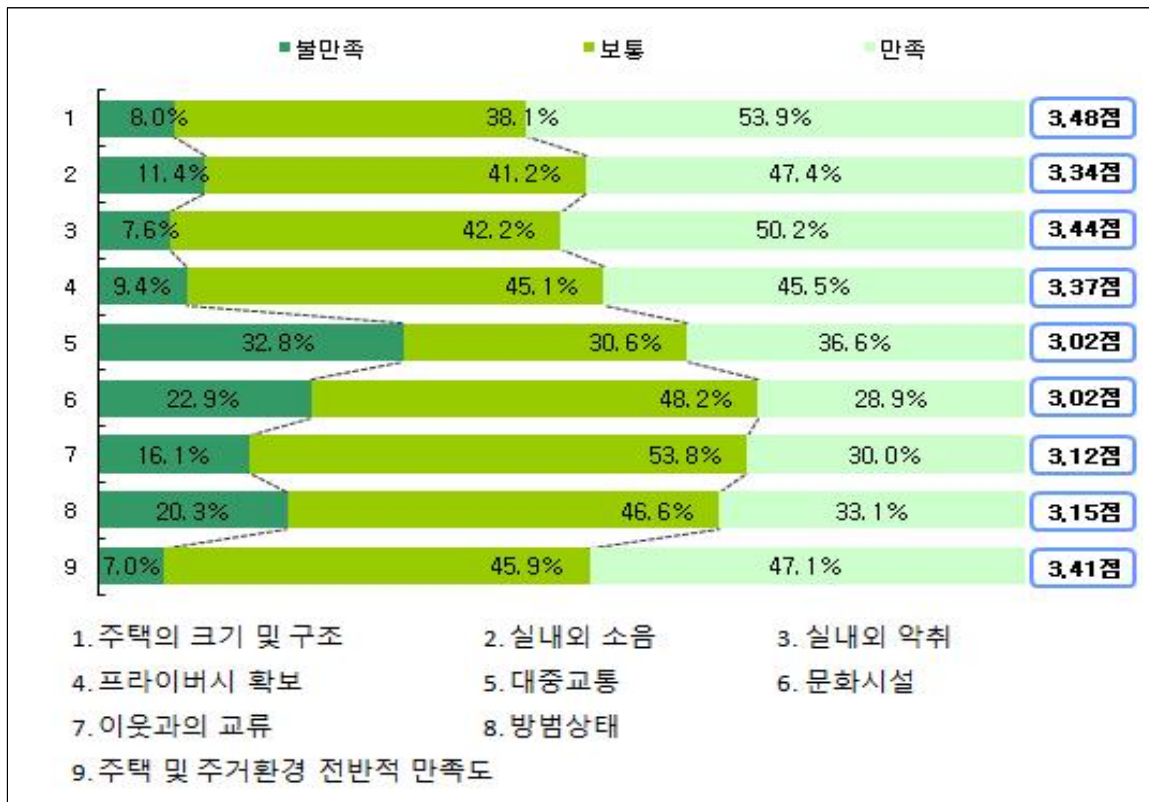
[표 IV-22] 주택 선택시 고려 사항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	직장, 학교와 인접 지역	주변지역 의 안전성	주거환경 이 좋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전체
전체		183(38.2)	152(31.7)	62(12.9)	61(12.7)	6(1.3)	15(3.1)	479(100.0)
성별 (N=479)	여성	106(40.2)	67(25.4)	39(14.8)	35(13.3)	5(1.9)	12(4.5)	264(100.0)
	남성	77(35.8)	85(39.5)	23(10.7)	26(12.1)	1(0.5)	3(1.4)	215(100.0)
유의도값		$X^2=15.399^{**}(df=5)$						
연령 (N=479)	20-40대	42(19.0)	148(67.0)	11(5.0)	16(7.2)	1(0.5)	3(1.4)	221(100.0)
	50-60대 이상	141(54.7)	4(1.6)	51(19.8)	45(17.4)	5(1.9)	12(4.7)	258(100.0)
유의도값		$X^2=236.190^{***}(df=5)$						
거주지역 (N=479)	도시	97(29.8)	133(40.8)	36(11.0)	46(14.1)	3(0.9)	11(3.4)	326(100.0)
	농촌	86(56.2)	19(12.4)	26(17.0)	15(9.8)	3(2.0)	4(2.6)	153(100.0)
유의도값		$X^2=50.960^{***}(df=5)$						
최종학력 (N=471)	중학교 졸업 이하	106(59.9)	1(0.6)	33(18.6)	22(12.4)	4(2.3)	11(6.2)	177(100.0)
	고등학교 졸업	35(28.0)	62(49.6)	11(8.8)	15(12.0)	2(1.6)	-	125(100.0)
	대학 졸업 이상	39(23.1)	88(52.1)	16(9.5)	23(13.6)	-	3(1.8)	169(100.0)
유의도값		$X^2=145.522^{***}(df=10)$						
혼인상태 (N=479)	비혼	40(18.5)	142(65.7)	12(5.6)	17(7.9)	1(0.5)	4(1.9)	216(100.0)
	기혼	4(22.2)	9(50.0)	1(5.6)	1(5.6)	1(5.6)	2(11.1)	18(100.0)
	이혼	18(81.8)	1(4.5)	-	3(13.6)	-	-	22(100.0)
	사별	121(54.3)	-	49(22.0)	40(17.9)	4(1.8)	9(4.0)	223(100.0)
유의도값		$X^2=252.471^{***}(df=15)$						
월소득 (N=368)	100만원 미만	124(57.1)	21(9.7)	35(16.1)	24(11.1)	3(1.4)	10(4.6)	217(100.0)
	100만원 이상	42(27.8)	64(42.4)	13(8.6)	27(17.9)	1(0.7)	4(2.6)	151(100.0)
유의도값		$X^2=66.389^{***}(df=5)$						

***p<0.001, **p<0.01, *p<0.05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주택의 크기 및 구조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내외 악취 3.44점, 주택 및 주거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3.41점, 실내외 소음 3.34점, 프라이버시 확보 3.37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6]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거주하는 주거환경 중 대중교통 관련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36.6%(매우 만족 3.0% + 만족 33.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2.8%(매우 불만족 4.6% + 불만족 28.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0~40대는 만족(30.6%)하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50~60대는 불만족(39.6%)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51.5%)과 월소득 100만원 미만(43.8%)의 경우 대중교통 관련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대중교통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평균 (M±S.D)
전체		23(4.6)	140(28.2)	152(30.6)	167(33.6)	15(3.0)	497(100.0)	3.02±0.96
성별 (N=497)	여성	12(4.3)	81(29.3)	86(31.2)	90(32.6)	7(2.5)	276(100.0)	3.00±0.95
	남성	11(5.0)	59(26.7)	66(29.9)	77(34.8)	8(3.6)	221(100.0)	3.05±0.98
유의도값		$X^2=1.138(df=4)$						T=-0.667
연령 (N=497)	20~40대	18(8.1)	31(14.0)	91(41.0)	68(30.6)	14(6.4)	222(100.0)	3.13±1.00
	50~60대 이상	5(1.8)	109(39.6)	61(22.2)	99(36.0)	1(0.4)	275(100.0)	2.93±0.92
유의도값		$X^2=68.879^{***}(df=4)$						T=2.269*
거주지역 (N=497)	도시	16(4.8)	64(19.0)	123(36.6)	119(35.4)	14(4.2)	336(100.0)	3.15±0.94
	농촌	7(4.3)	76(47.2)	29(18.0)	48(29.8)	1(0.6)	161(100.0)	2.75±0.96
유의도값		$X^2=48.532^{***}(df=4)$						T=4.395***
최종학력 (N=488)	중학교 졸업 이하	5(2.7)	72(38.9)	39(21.1)	69(37.3)	-	185(100.0)	2.93±0.93
	고등학교 졸업	11(8.3)	32(24.1)	44(33.1)	40(30.1)	6(4.5)	133(100.0)	2.98±1.03
	대학 졸업 이상	7(4.1)	32(18.8)	67(39.4)	55(32.4)	9(5.3)	170(100.0)	3.16±0.93
유의도값		$X^2=39.716^{***}(df=8)$						F=2.680
혼인상태 (N=497)	비혼	17(7.8)	28(12.9)	91(41.9)	66(30.4)	15(6.9)	217(100.0)	3.16±1.00
	기혼	1(5.6)	6(33.3)	3(16.7)	8(44.4)	-	18(100.0)	3.00±1.03
	이혼	-	3(13.6)	12(54.5)	7(31.8)	-	22(100.0)	3.18±0.66
	사별	5(2.1)	103(42.9)	46(19.2)	86(35.8)	-	240(100.0)	2.89±0.93
유의도값		$X^2=93.192^{***}(df=12)$						F=3.232*
월소득 (N=378)	100만원 미만	5(2.2)	94(41.6)	46(20.4)	76(33.6)	5(2.2)	226(100.0)	2.92±0.96
	100만원 이상	6(3.9)	23(15.1)	58(38.2)	58(38.2)	7(4.6)	152(100.0)	3.24±0.92
유의도값		$X^2=34.134^{***}(df=4)$						T=-2.505*

***p<0.001, **p<0.01, *p<0.05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8.9%(매우 만족 1.8% + 만족 27.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2.9%(매우 불만족 5.6% + 불만족 17.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50~60대 이상(35.2%), 농촌지역(31.0%), 중학교 졸업 이하(32.3%), 월소득 100만원 미만(34.4%)일 경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혼인상태별 차이검증에서 $p<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문화시설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평균 (M±S.D)
전체		28(5.6)	86(17.3)	240(48.2)	135(27.1)	9(1.8)	498(100.0)	3.02±0.86
성별 (N=498)	여성	12(4.3)	48(17.4)	134(48.6)	76(27.5)	6(2.2)	276(100.0)	3.06±0.84
	남성	16(7.2)	38(17.1)	106(47.7)	59(26.6)	3(1.4)	222(100.0)	2.98±0.88
유의도값		$X^2=2.313(df=4)$						T=1.037
연령 (N=498)	20-40대	23(10.4)	36(16.2)	116(52.3)	39(17.6)	8(3.6)	222(100.0)	2.88±0.94
	50-60대 이상	5(1.8)	50(18.1)	124(44.9)	96(34.8)	1(0.4)	276(100.0)	3.14±0.77
유의도값		$X^2=38.222^{***}(df=4)$						T=3.374^{**}
거주지역 (N=498)	도시	17(5.0)	45(13.4)	181(53.7)	86(25.5)	8(2.4)	337(100.0)	3.07±0.83
	농촌	11(6.8)	41(25.5)	59(36.6)	49(30.4)	1(0.6)	161(100.0)	2.93±0.93
유의도값		$X^2=19.281^{**}(df=4)$						T=1.666
최종학력 (N=489)	중학교 졸업 이하	6(3.2)	38(20.4)	82(44.1)	60(32.3)	-	186(100.0)	3.05±0.81
	고등학교 졸업	12(9.0)	17(12.8)	67(50.4)	33(24.8)	4(3.0)	133(100.0)	3.00±0.93
	대학 졸업 이상	10(5.9)	29(17.1)	88(51.8)	38(22.4)	5(2.9)	170(100.0)	2.99±0.87
유의도값		$X^2=17.469^{*}(df=8)$						F=0.253
혼인상태 (N=498)	비혼	22(10.1)	34(15.7)	111(51.2)	41(18.9)	9(4.1)	217(100.0)	2.91±0.96
	기혼	1(5.6)	4(22.2)	9(50.0)	4(22.2)	-	18(100.0)	2.89±0.83
	이혼	-	3(13.6)	15(68.2)	4(18.2)	-	22(100.0)	3.05±0.58
	사별	5(2.1)	45(18.7)	105(43.6)	86(35.7)	-	241(100.0)	3.13±0.78
유의도값		$X^2=43.223^{***}(df=12)$						F=2.574
월소득 (N=379)	100만원 미만	9(4.0)	44(19.4)	96(42.3)	76(33.5)	2(0.9)	227(100.0)	3.08±0.85
	100만원 이상	8(5.3)	25(16.4)	77(50.7)	36(23.7)	6(3.9)	152(100.0)	3.05±0.89
유의도값		$X^2=9.181(df=4)$						T=0.234

***p<0.001, **p<0.01, *p<0.05

주거환경에 있어서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만족도는 30.0%(매우 만족 1.4% + 만족 28.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6.1%(매우 불만족 3.2% + 불만족 12.9%)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성(36.8%)와 50~60대 이상(42.7%), 농촌지역(34.4%), 중학교 졸업 이하(46.2%), 사별(45.2%), 월소득 100만원 미만(40.4%)인 경우 이웃과 교류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이웃과의 교류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평균 (M±S.D)
전체		16(3.2)	64(12.9)	267(53.8)	142(28.6)	7(1.4)	496(100.0)	3.12±0.77
성별 (N=496)	여성	5(1.8)	32(11.7)	136(49.6)	96(35.0)	5(1.8)	274(100.0)	3.23±0.75
	남성	11(5.0)	32(14.4)	131(59.0)	46(20.7)	2(0.9)	222(100.0)	2.98±0.77
유의도값		$X^2=15.959^{**}$ (df=4)						T=3.672 ^{***}
연령 (N=496)	20~40대	15(6.8)	33(14.9)	142(64.0)	28(12.6)	4(1.8)	222(100.0)	2.88±0.78
	50~60대 이상	1(0.4)	31(11.3)	125(45.6)	114(41.6)	3(1.1)	274(100.0)	3.32±0.70
유의도값		$X^2=60.839^{***}$ (df=4)						T=-6.540 ^{***}
거주지역 (N=496)	도시	15(4.5)	45(13.4)	182(54.2)	90(26.8)	4(1.2)	336(100.0)	3.07±0.79
	농촌	1(0.6)	19(11.9)	85(53.1)	52(32.5)	3(1.9)	160(100.0)	3.23±0.70
유의도값		$X^2=6.764$ (df=4)						T=-2.220
최종학력 (N=487)	중학교 졸업 이하	1(0.5)	22(12.0)	76(41.3)	82(44.6)	3(1.6)	184(100.0)	3.35±0.73
	고등학교 졸업	10(7.5)	17(12.8)	74(55.6)	30(22.6)	2(1.5)	133(100.0)	2.98±0.85
	대학 졸업 이상	5(2.9)	24(14.1)	113(66.5)	26(15.3)	2(1.2)	170(100.0)	2.98±0.68
유의도값		$X^2=51.309^{***}$ (df=8)						F=7.876 ^{***}
혼인상태 (N=496)	비혼	15(6.9)	28(12.9)	142(65.4)	28(12.9)	4(1.8)	217(100.0)	2.90±0.78
	기혼	-	6(33.3)	9(50.0)	3(16.7)	-	18(100.0)	2.83±0.71
	이혼	-	3(13.6)	13(59.1)	6(27.3)	-	22(100.0)	3.14±0.64
	사별	1(0.4)	27(11.3)	103(43.1)	105(43.9)	3(1.3)	239(100.0)	3.34±0.71
유의도값		$X^2=75.395^{***}$ (df=12)						F=14.766 ^{***}
월소득 (N=377)	100만원 미만	4(1.8)	25(11.1)	105(46.7)	88(39.1)	3(1.3)	225(100.0)	3.27±0.75
	100만원 이상	3(2.0)	22(14.5)	96(63.2)	29(19.1)	2(1.3)	152(100.0)	3.08±0.80
유의도값		$X^2=17.199^{**}$ (df=4)						F=1.910

*** $p < 0.001$, ** $p < 0.01$, * $p < 0.05$



주거환경 중 방법상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33.1%(매우 만족 2.8% + 만족 30.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3%(매우 불만족 0.6% + 불만족 19.7%)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방법상태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평균 (M±S.D)
전체		3(0.6)	98(19.7)	232(46.6)	151(30.3)	14(2.8)	498(100.0)	3.15±0.78
성별 (N=498)	여성	1(0.4)	60(21.7)	121(43.8)	87(31.5)	7(2.5)	276(100.0)	3.14±0.79
	남성	2(0.9)	38(17.1)	111(50.0)	64(28.8)	7(3.2)	222(100.0)	3.16±0.77
유의도값		$X^2 = 3.391 (df=4)$						$T = -0.295$
연령 (N=498)	20-40대	2(0.9)	23(10.4)	122(55.0)	63(28.4)	12(5.4)	222(100.0)	3.27±0.75
	50-60대 이상	2(0.4)	75(27.2)	110(39.9)	88(31.9)	2(0.7)	276(100.0)	3.05±0.80
유의도값		$X^2 = 34.377^{***} (df=4)$						$T = 3.080^{**}$
거주지역 (N=498)	도시	2(0.6)	50(14.8)	172(51.0)	101(30.0)	12(3.6)	337(100.0)	3.21±0.76
	농촌	1(0.6)	48(29.8)	60(37.3)	50(31.1)	2(1.2)	161(100.0)	3.02±0.83
유의도값		$X^2 = 18.981^{**} (df=4)$						$T = 2.486^*$
최종학력 (N=489)	중학교 졸업 이하	-	49(26.3)	77(41.4)	59(31.7)	1(0.5)	186(100.0)	3.06±0.78
	고등학교 졸업	-	23(17.3)	70(52.6)	33(24.8)	7(5.3)	133(100.0)	3.18±0.78
	대학 졸업 이상	3(1.8)	24(14.1)	82(48.2)	55(32.4)	6(3.5)	170(100.0)	3.22±0.80
유의도값		$X^2 = 23.240^* (df=8)$						$F = 6.039^{***}$
혼인상태 (N=498)	비혼	2(0.9)	20(9.2)	120(55.3)	62(28.6)	13(6.0)	217(100.0)	3.29±0.75
	기혼	1(5.6)	5(27.8)	7(38.9)	5(27.8)	-	18(100.0)	2.89±0.90
	이혼	-	1(4.5)	12(54.5)	9(40.9)	-	22(100.0)	3.36±0.58
	사별	-	72(29.9)	93(38.6)	75(31.1)	1(0.4)	241(100.0)	3.02±0.79
유의도값		$X^2 = 59.591^{***} (df=12)$						$F = 6.039^{***}$
월소득 (N=379)	100만원 미만	-	62(27.3)	96(42.3)	68(30.0)	1(0.4)	227(100.0)	3.04±0.77
	100만원 이상	3(2.0)	18(11.8)	72(47.4)	53(34.9)	6(3.9)	152(100.0)	3.21±0.77
유의도값		$X^2 = 22.083^{***} (df=4)$						$T = -1.718$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또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84.1%(매우 필요 22.4% + 필요 6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4%(전혀 불필요 1.0% + 불필요 2.4%)에 불과하다. 여성(89.8%), 50~60대 이상(92.4%), 농촌지역(91.3%), 중학교 졸업 이하(93.6%), 월소득 100만원 미만(92.6%)의 경우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 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5(1.0)	12(2.4)	62(12.4)	308(61.7)	112(22.4)	499(100.0)	4.02±0.73
성별 (N=499)	여성	1(0.4)	5(1.8)	22(7.9)	186(67.1)	63(22.7)	277(100.0)	4.10±0.63
	남성	4(1.8)	7(3.2)	40(18.0)	122(55.0)	49(22.1)	222(100.0)	3.92±0.83
유의도값		$X^2=16.547^{**}(df=4)$						T=2.635 ^{**}
연령 (N=499)	20-40대	5(2.3)	8(3.6)	45(20.3)	104(46.8)	60(27.0)	222(100.0)	3.93±0.90
	50-60대 이상	-	4(1.4)	17(6.1)	204(73.6)	52(18.8)	277(100.0)	4.10±0.55
유의도값		$X^2=46.520^{***}(df=4)$						T=-2.457 [*]
거주지역 (N=499)	도시	4(1.2)	10(3.0)	51(15.1)	196(58.2)	76(22.6)	337(100.0)	3.98±0.78
	농촌	1(0.6)	2(1.2)	11(6.8)	112(69.1)	36(22.2)	162(100.0)	4.11±0.62
유의도값		$X^2=9.991^{*}(df=4)$						T=-1.890
최종학력 (N=490)	중학교 졸업 이하	1(0.5)	3(1.6)	8(4.3)	139(74.3)	36(19.3)	187(100.0)	4.10±0.58
	고등학교 졸업	2(1.5)	5(3.8)	23(17.3)	76(57.1)	27(20.3)	133(100.0)	3.91±0.81
	대학 졸업 이상	2(1.2)	4(2.4)	30(17.6)	85(50.0)	49(28.8)	170(100.0)	4.03±0.82
유의도값		$X^2=31.686^{***}(df=8)$						F=2.655
혼인상태 (N=499)	비혼	5(2.3)	8(3.7)	46(21.2)	99(45.6)	59(27.2)	217(100.0)	3.92±0.91
	기혼	-	1(5.6)	1(5.6)	11(61.1)	5(27.8)	18(100.0)	4.11±0.76
	이혼	-	-	3(13.6)	17(77.3)	2(9.1)	22(100.0)	3.95±0.49
	사별	-	3(1.2)	12(5.0)	181(74.8)	46(19.0)	242(100.0)	4.12±0.53
유의도값		$X^2=57.729^{***}(df=12)$						F=2.996 [*]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2(0.9)	3(1.3)	12(5.3)	157(68.9)	54(23.7)	228(100.0)	4.13±0.64
	100만원 이상	1(0.7)	6(3.9)	28(18.4)	80(52.6)	37(24.3)	152(100.0)	3.91±0.79
유의도값		$X^2=21.590^{***}(df=4)$						T=2.495 [*]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의 필요 정도는 80.6%(매우 필요 25.3% + 필요 55.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8%(전혀 불필요 1.0% + 불필요 1.8%)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표 IV-28]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5(1.0)	9(1.8)	83(16.6)	276(55.3)	126(25.3)	499(100.0)	4.02±0.76
성별 (N=499)	여성	1(0.4)	8(2.9)	37(13.4)	164(59.2)	67(24.2)	277(100.0)	4.04±0.72
	남성	4(1.8)	1(0.5)	46(20.7)	112(50.5)	59(26.6)	222(100.0)	4.00±0.81
유의도값		$X^2=12.617^*(df=4)$						T=0.155
연령 (N=499)	20-40대	5(2.3)	2(0.9)	43(19.4)	111(50.0)	61(27.5)	222(100.0)	4.00±0.84
	50-60대 이상	-	7(2.5)	40(14.4)	165(59.6)	65(23.5)	277(100.0)	4.04±0.69
유의도값		$X^2=12.670^*(df=4)$						T=-0.629
거주지역 (N=499)	도시	4(1.2)	6(1.8)	58(17.2)	182(54.0)	87(25.8)	337(100.0)	4.01±0.78
	농촌	1(0.6)	3(1.9)	25(15.4)	94(58.0)	39(24.1)	162(100.0)	4.03±0.73
유의도값		$X^2=1.016(df=4)$						T=-0.220
최종학력 (N=490)	중학교 졸업 이하	1(0.5)	5(2.7)	25(13.4)	109(58.3)	47(25.1)	187(100.0)	4.05±0.74
	고등학교 졸업	3(2.3)	2(1.5)	19(14.3)	75(56.4)	34(25.6)	133(100.0)	4.02±0.82
	대학 졸업 이상	1(0.6)	2(1.2)	37(21.8)	86(50.6)	44(25.9)	170(100.0)	4.00±0.76
유의도값		$X^2=9.316(df=8)$						F=0.184
혼인상태 (N=499)	비혼	5(2.3)	3(1.4)	44(20.3)	106(48.8)	59(27.2)	217(100.0)	3.97±0.86
	기혼	-	-	2(11.1)	11(61.1)	5(27.8)	18(100.0)	4.17±0.62
	이혼	-	-	5(22.7)	14(63.6)	3(13.6)	22(100.0)	3.91±0.61
	사별	-	6(2.5)	32(13.2)	145(59.9)	59(24.4)	242(100.0)	4.06±0.69
유의도값		$X^2=16.859(df=12)$						F=0.90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0.4)	5(2.2)	25(11.0)	131(57.5)	66(28.9)	228(100.0)	4.12±0.72
	100만원 이상	1(0.7)	3(2.0)	36(23.7)	74(48.7)	38(25.0)	152(100.0)	3.92±0.83
유의도값		$X^2=11.115^*(df=4)$						T=2.042*

***p<0.001, **p<0.01, *p<0.05



1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8.2%(매우 필요 23.7% + 필요 54.5%)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4%(전혀 불필요 1.0% + 불필요 2.4%)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성(84.4%), 50~60대 이상(84.1%), 농촌지역(87.0%), 중학교 졸업 이하(87.1%), 월소득 100만원 미만(87.8%)의 경우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주거환경 개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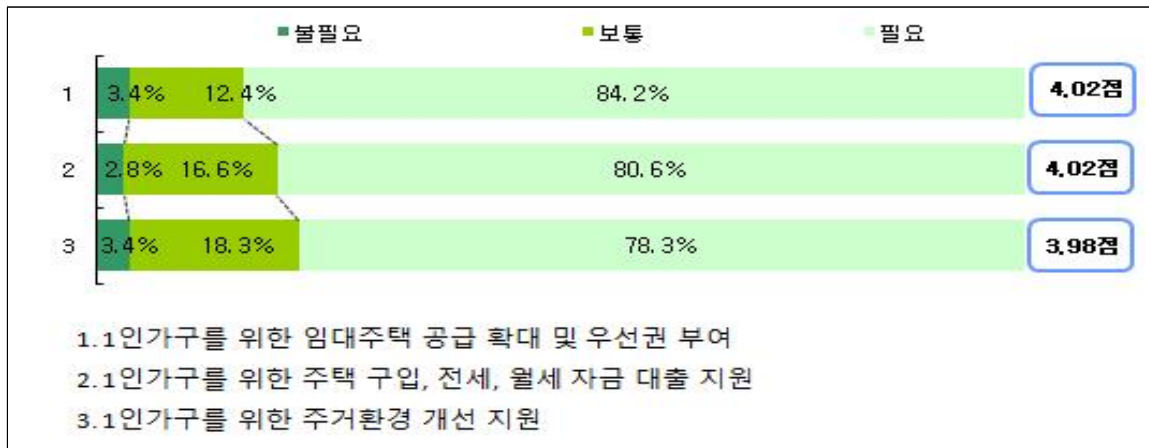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5(1.0)	12(2.4)	91(18.3)	271(54.5)	118(23.7)	497(100.0)	3.98±0.78
성별 (N=497)	여성	-	4(1.5)	39(14.2)	168(61.1)	64(23.3)	275(100.0)	4.06±0.66
	남성	5(2.3)	8(3.6)	52(23.4)	103(46.4)	54(24.3)	222(100.0)	3.87±0.90
유의도값		$X^2 = 19.195^{**} (df=4)$						T=2.664 ^{**}
연령 (N=497)	20~40대	5(2.3)	7(3.2)	52(23.6)	97(44.1)	59(26.8)	220(100.0)	3.90±0.91
	50~60대 이상	-	5(1.8)	39(14.1)	174(62.8)	59(21.3)	277(100.0)	4.04±0.65
유의도값		$X^2 = 22.832^{***} (df=4)$						T=-1.867
거주지역 (N=497)	도시	4(1.2)	10(3.0)	73(21.7)	168(50.0)	81(24.1)	336(100.0)	3.93±0.83
	농촌	1(0.6)	2(1.2)	18(11.2)	103(64.0)	37(23.0)	161(100.0)	4.07±0.67
유의도값		$X^2 = 12.274^* (df=4)$						T=-2.109 [*]
최종학력 (N=488)	중학교 졸업 이하	1(0.5)	2(1.1)	21(11.2)	122(65.2)	41(21.9)	187(100.0)	4.07±0.65
	고등학교 졸업	2(1.5)	5(3.8)	22(16.7)	71(53.8)	32(24.2)	132(100.0)	3.95±0.84
	대학 졸업 이상	2(1.2)	5(3.0)	46(27.2)	73(43.2)	43(25.4)	169(100.0)	3.89±0.86
유의도값		$X^2 = 24.477^{**} (df=8)$						F=2.483
혼인상태 (N=497)	비혼	5(2.3)	7(3.3)	52(24.2)	92(42.8)	59(27.4)	215(100.0)	3.90±0.92
	기혼	-	1(5.6)	1(5.6)	12(66.7)	4(22.2)	18(100.0)	4.06±0.73
	이혼	-	-	6(27.3)	13(59.1)	3(13.6)	22(100.0)	3.86±0.64
	사별	-	4(1.7)	32(13.2)	154(63.6)	52(21.5)	242(100.0)	4.05±0.64
유의도값		$X^2 = 31.481^{**} (df=12)$						F=1.662
월소득 (N=378)	100만원 미만	3(1.3)	5(2.2)	20(8.8)	139(61.0)	61(26.8)	228(100.0)	4.10±0.74
	100만원 이상	1(0.7)	4(2.7)	39(26.0)	71(47.3)	35(23.3)	150(100.0)	3.88±0.75
유의도값		$X^2 = 21.093^{***} (df=4)$						T=2.178 [*]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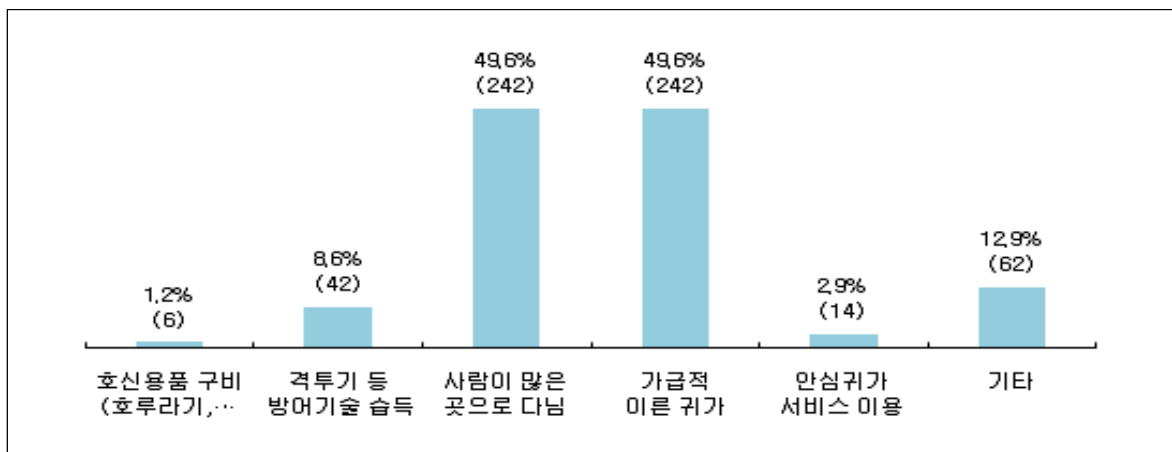
그렇다면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는 1인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 전세 및 월세 등의 자금 대출 지원이 4.02점으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다. 그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3.98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

한편, 현재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 가급적 이른 귀가를 하고 있다가 각각 4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격투기 등 방어기술을 습득하였다(8.6%),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한다(2.9%), 호신용품을 구비한다(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그림 IV-18]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



여성은 가급적 이른 귀가(66.2%), 남성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41.8%)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40대(57.5%), 도시지역(52.3%), 대학 졸업 이상(59.0%), 월소득 100만원 이상(56.5%)일 경우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

(중복응답, 단위: %, 무응답제외)

구분		호신용품 구비	격투기 등 방어기술 습득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님	가급적 이른 귀가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	기타
전체		1.2	8.6	49.6	49.6	2.9	12.7
성별 (N=488)	여성	1.8	2.2	55.6	66.2	3.3	4.7
	남성	0.5	16.9	41.8	28.2	2.3	23.0
연령 (N=488)	20~40대	2.4	13.7	57.5	33.0	3.3	17.5
	50~60대 이상	0.4	4.7	43.5	62.3	2.5	9.1
거주지역 (N=488)	도시	1.2	9.8	52.3	46.8	4.0	15.9
	농촌	1.2	6.2	44.1	55.3	0.6	6.2
최종학력 (N=479)	중학교 졸업 이하	-	1.6	42.8	66.8	3.2	5.9
	고등학교 졸업	0.8	15.1	47.6	34.9	2.4	23.0
	대학 졸업 이상	3.0	11.4	59.0	41.0	3.0	12.7
혼인상태 (N=488)	비혼	2.9	13.5	59.4	33.8	3.4	17.4
	기혼	-	16.7	22.2	61.1	-	5.6
	이혼	-	4.5	27.3	54.5	4.5	22.7
	사별	-	4.1	45.2	61.8	2.5	8.3
월소득 (N=373)	100만원 미만	-	7.5	46.0	59.3	2.7	7.1
	100만원 이상	3.4	6.1	56.5	41.5	4.1	13.6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0.0%(매우 안전하다 4.0% + 안전하다 56.0%)로 나타났으며, 불안하다는 6.0%로 응답하였다. 50~60대 이상(70.5%), 농촌지역(71.6%), 사별(71.2%)한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도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혼인상태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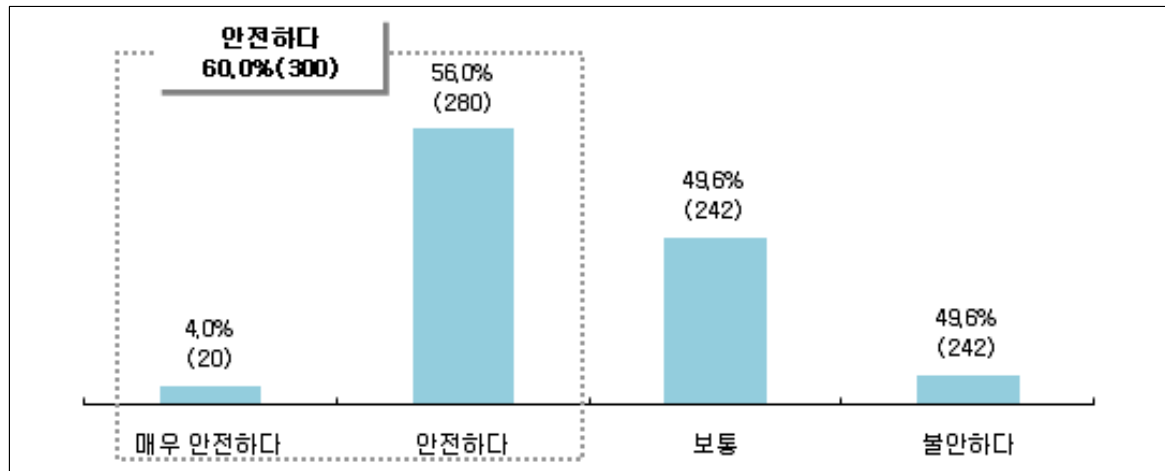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불안하다	전체	평균 (M±S.D)
전체		20(4.0)	280(56.0)	170(34.0)	30(6.0)	500(100.0)	3.58±0.67
성별 (N=500)	여성	6(2.2)	160(57.6)	89(32.0)	23(8.3)	278(100.0)	3.54±0.68
	남성	14(6.3)	120(54.1)	81(36.5)	7(3.2)	222(100.0)	3.64±0.65
유의도값		$X^2 = 11.699^{**} (df=3)$					$T = -1.655$
연령 (N=500)	20~40대	13(5.9)	91(41.0)	102(45.9)	16(7.2)	222(100.0)	3.45±0.72
	50~60대 이상	7(2.5)	189(68.0)	68(24.5)	14(5.0)	278(100.0)	3.68±0.61
유의도값		$X^2 = 37.228^{***} (df=3)$					$T = -3.730^{***}$
거주지역 (N=500)	도시	15(4.4)	169(50.0)	129(38.2)	25(7.4)	338(100.0)	3.51±0.70
	농촌	5(3.1)	111(68.5)	41(25.3)	5(3.1)	162(100.0)	3.72±0.57
유의도값		$X^2 = 15.921^{**} (df=3)$					$T = -3.415^{**}$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5(2.7)	129(68.6)	42(22.3)	12(6.4)	188(100.0)	3.68±0.63
	고등학교 졸업	5(3.8)	67(50.4)	51(38.3)	10(7.5)	133(100.0)	3.50±0.69
	대학 졸업 이상	10(5.9)	78(45.9)	74(43.5)	8(4.7)	170(100.0)	3.53±0.68
유의도값		$X^2 = 25.347^{**} (df=6)$					$F = 3.289^*$
혼인상태 (N=500)	비혼	14(6.5)	90(41.5)	97(44.7)	16(7.4)	217(100.0)	3.47±0.73
	기혼	-	10(55.6)	8(44.4)	-	18(100.0)	3.56±0.51
	이혼	1(4.5)	12(54.5)	7(31.8)	2(9.1)	22(100.0)	3.55±0.74
	사별	5(2.1)	168(69.1)	58(23.9)	12(4.9)	243(100.0)	3.68±0.60
유의도값		$X^2 = 39.783^{***} (df=9)$					$F = 4.004^{**}$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6(2.6)	152(66.7)	56(24.6)	14(6.1)	228(100.0)	3.66±0.63
	100만원 이상	8(5.3)	69(45.4)	67(44.1)	8(5.3)	152(100.0)	3.39±0.65
유의도값		$X^2 = 19.664^{**} (df=3)$					$T = 3.107^{**}$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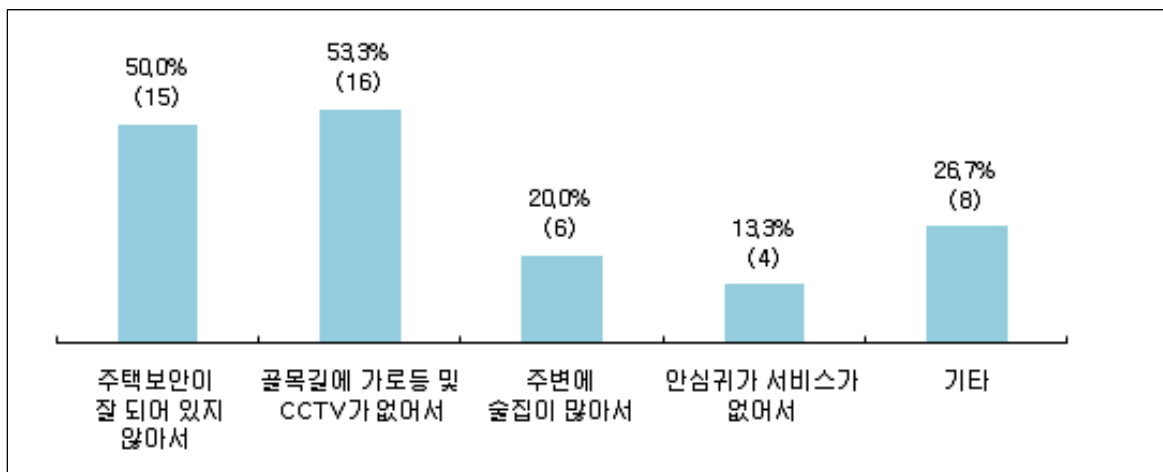


(단위 : 명)



[그림 IV-19]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안전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주택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50.0%), 주변에 집이 많아서(20.0%), 안심귀가 서비스가 없어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0] 살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



여성은 주택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56.5%), 남성은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71.4%)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40대(62.5%), 도시지역(60.0%), 고등학교 졸업(70.0%), 비혼(62.5%), 월소득 100원 이상(50.0%)은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32] 살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복응답, 단위: %, 무응답제외)

구분		주택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	주변에 집이 많아서	안심 귀가 서비스가 없어서	기타
전체		50.0	53.3	20.0	13.3	26.7
성별 (N=30)	여성	56.5	47.8	13.0	13.0	30.4
	남성	28.6	71.4	42.9	14.3	14.3
연령 (N=30)	20~40대	43.8	62.5	25.0	12.5	25.0
	50~60대 이상	57.1	42.9	14.3	14.3	28.6
거주지역 (N=30)	도시	40.0	60.0	24.0	16.0	32.0
	농촌	100.0	20.0	-	-	-
최종학력 (N=30)	중학교 졸업 이하	58.3	33.3	-	16.7	33.3
	고등학교 졸업	40.0	70.0	30.0	20.0	20.0
	대학 졸업 이상	50.0	62.5	37.5	-	25.0
혼인상태 (N=30)	비혼	37.5	62.5	31.3	12.5	31.3
	이혼	100.0	50.0	-	-	-
	사별	58.3	41.7	8.3	16.7	25.0
월소득 (N=22)	100만원 미만	64.3	42.9	14.3	7.1	28.6
	100만원 이상	62.5	50.0	25.0	-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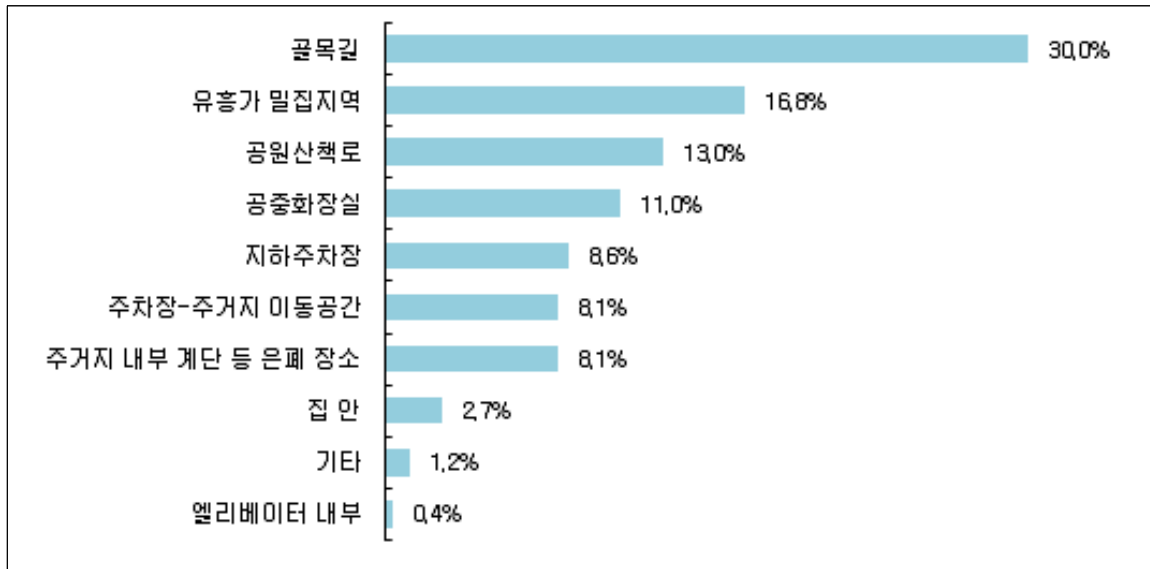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장소로 골목길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유흥가 밀집 지역(16.8%), 공원 산책로(13.0%), 공중화장실(11.0%), 지하주차장(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골목길이 범죄 발생 우려 장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3] 범죄 발생 우려 장소

(순위별 가중치, 단위: %, 무응답제외)

구분		집 안	주차장-주거지 이동 공간	공중 화장실	유흥가 밀집 지역	공원 산책로	골목길	주거지 내부계단 등 은폐 장소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내부	기타
전체		2.7	8.1	11.0	16.8	13.0	30.0	8.1	8.6	0.4	1.2
성별 (N=464)	여성	3.0	5.4	10.8	13.1	14.8	33.6	9.6	8.0	0.4	1.3
	남성	2.3	11.6	11.3	21.4	10.7	25.6	6.2	9.3	0.5	1.1
연령 (N=464)	20-40대	2.3	11.5	8.8	20.7	6.9	32.4	8.0	7.8	1.5	0.2
	50-60대 이상	3.0	5.4	12.7	13.6	18.0	28.2	8.2	9.3	1.5	0.1
거주지역 (N=464)	도시	3.1	7.8	11.3	17.3	12.2	32.1	6.6	8.5	0.3	0.8
	농촌	1.7	8.9	10.4	15.6	14.8	25.7	11.3	8.8	0.7	2.1
최종학력 (N=456)	중학교 졸업 이하	3.6	5.9	9.9	13.7	16.7	31.5	9.3	7.7	1.4	0.2
	고등학교 졸업	2.5	6.0	12.3	18.1	13.1	31.2	5.3	10.8	0.5	-
	대학 졸업 이상	2.0	12.6	10.9	19.9	8.0	27.0	9.4	7.7	2.4	0.2
혼인상태 (N=496)	비혼	2.3	11.1	8.9	20.8	7.2	32.2	8.6	7.0	0.6	1.1
	기혼	-	18.0	15.7	7.8	-	22.2	12.0	22.2	2.1	-
	이혼	3.7	10.9	1.9	23.7	7.4	32.8	6.1	10.4	-	3.0
	사별	3.1	4.5	13.4	13.1	19.8	28.3	7.5	8.9	0.1	1.3
월소득 (N=376)	100만원 미만	2.9	6.0	12.0	16.9	15.4	29.8	7.1	8.3	1.3	0.2
	100만원 이상	1.8	11.6	6.9	21.2	9.3	29.6	9.3	7.6	2.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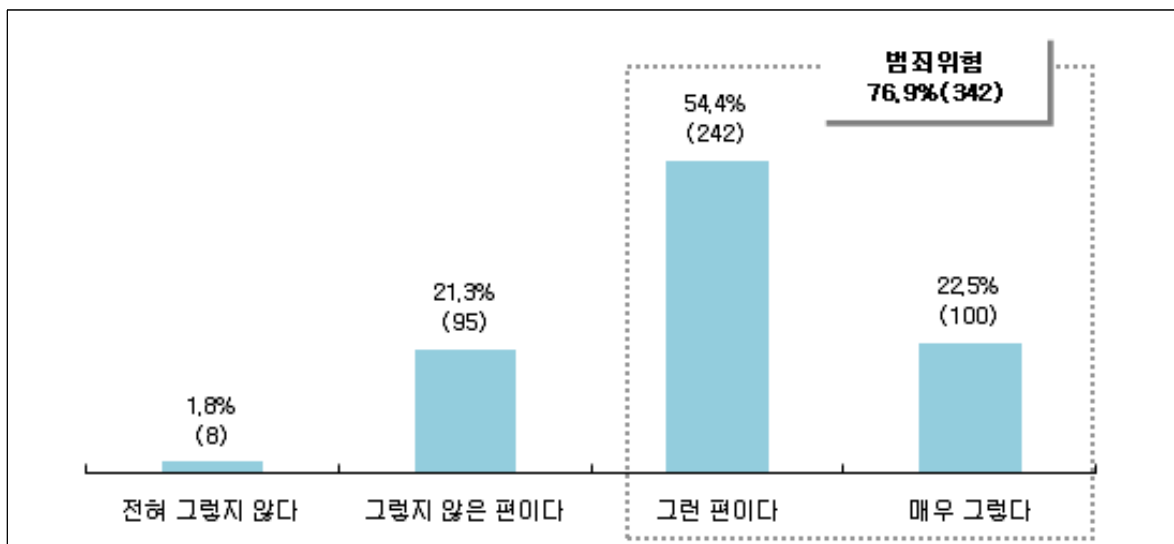
순위별 가중치 = {(1순위×2)+(2순위×1)}÷3



[그림 IV-21] 범죄 발생 우려 장소

1인 가구가 2인 이상의 가구에 대비 범죄 노출 위험도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있다가 76.9%(매우 그렇다 22.5% + 그런 편이다 54.4%)로 나타나며, 위험도가 없다 23.1%(전혀 그렇지 않다 1.8%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그림 IV-22] 2인 이상 가구 대비 범죄 노출 위험도



여성(84.1%), 50~60대 이상(81.0%), 도시지역(77.9%), 고등학교 졸업(83.5%), 기혼(100.0%), 월소득 100원 미만(79.1%)의 경우 1인 가구가 2인 이상의 가구에 대비 범죄 노출 위험도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최종학력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2인 이상 가구 대비 범죄 노출 위험도

(중복응답, 단위: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M±S.D)
전체		8(1.8)	95(21.3)	242(54.4)	100(22.5)	445(100.0)	2.98±0.71
성별 (N=445)	여성	1(0.4)	37(15.5)	140(58.6)	61(25.5)	239(100.0)	3.09±0.65
	남성	7(3.4)	58(28.2)	102(49.5)	39(18.9)	206(100.0)	2.84±0.76
유의도값		$X^2=17.599^{**}(df=3)$					$T=3.722^{***}$
연령 (N=445)	20~40대	8(3.8)	50(23.9)	105(50.2)	46(22.0)	209(100.0)	2.90±0.78
	50~60대 이상	-	45(19.1)	137(58.1)	54(22.9)	236(100.0)	3.04±0.65
유의도값		$X^2=11.539^{**}(df=3)$					$T=-1.956$
거주지역 (N=445)	도시	8(2.6)	59(19.4)	160(52.6)	77(25.3)	304(100.0)	3.01±0.74
	농촌	-	36(25.5)	82(58.2)	23(16.3)	141(100.0)	2.91±0.64
유의도값		$X^2=9.428^{*}(df=2)$					$T=1.358$
최종학력 (N=437)	중학교 졸업 이하	-	33(21.3)	97(62.6)	25(16.1)	155(100.0)	2.95±0.61
	고등학교 졸업	-	20(16.5)	64(52.9)	37(30.6)	121(100.0)	3.14±0.67
	대학 졸업 이상	8(5.0)	41(25.5)	78(48.4)	34(21.1)	161(100.0)	2.86±0.81
유의도값		$X^2=25.810^{***}(df=6)$					$F=5.667^{**}$
혼인상태 (N=441)	비혼	8(3.9)	48(23.4)	102(49.8)	47(22.9)	205(100.0)	2.92±0.78
	기혼	-	-	12(75.0)	4(25.0)	16(100.0)	3.25±0.45
	이혼	-	10(50.0)	8(40.0)	2(10.0)	20(100.0)	2.60±0.68
	사별	-	37(18.1)	120(58.8)	47(23.0)	204(100.0)	3.05±0.64
유의도값		$X^2=26.904^{**}(df=9)$					$F=3.878^{**}$
월소득 (N=340)	100만원 미만	-	42(20.9)	121(60.2)	38(18.9)	201(100.0)	2.98±0.63
	100만원 이상	5(3.6)	35(25.2)	72(51.8)	27(19.4)	139(100.0)	3.00±0.69
유의도값		$X^2=8.929^{*}(df=3)$					$T=-0.219$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주택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법 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9%(매우 필요 20.3% + 필요 58.6%)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2%(전혀 불필요 0.4% + 불필요 1.8%)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성(85.2%), 50~60대 이상(85.2%), 농촌지역(84.5%), 중학교 졸업 이하(86.6%), 사별(87.2%), 월소득 100만원 미만(82.8%)일 경우 상대적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방법활동 강화가 필요함을 응답하였다.

[표 IV-35] 주택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법 활동 강화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2(0.4)	9(1.8)	94(18.9)	292(58.6)	101(20.3)	498(100.0)	3.97±0.71
성별 (N=498)	여성	-	3(1.1)	38(13.8)	181(65.6)	54(19.6)	276(100.0)	4.04±0.61
	남성	2(0.9)	6(2.7)	56(25.2)	111(50.0)	47(21.2)	222(100.0)	3.88±0.80
유의도값		$X^2=18.070^{**}$ (df=4)						T=2.420*
연령 (N=498)	20~40대	2(0.9)	7(3.2)	55(24.9)	118(53.4)	39(17.6)	221(100.0)	3.84±0.78
	50~60대 이상	-	2(0.7)	39(14.1)	174(62.8)	62(22.4)	277(100.0)	4.07±0.62
유의도값		$X^2=17.401^{**}$ (df=4)						T=-3.586***
거주지역 (N=498)	도시	2(0.6)	8(2.4)	70(20.8)	198(58.8)	59(17.5)	337(100.0)	3.90±0.72
	농촌	-	1(0.6)	24(14.9)	94(58.4)	42(26.1)	161(100.0)	4.10±0.65
유의도값		$X^2=8.750$ (df=4)						T=-2.935**
최종학력 (N=489)	중학교 졸업 이하	-	2(1.1)	23(12.3)	125(66.8)	37(19.8)	187(100.0)	4.05±0.60
	고등학교 졸업	2(1.5)	1(0.8)	32(24.1)	66(49.6)	32(24.1)	133(100.0)	3.94±0.80
	대학 졸업 이상	-	6(3.6)	37(21.9)	95(56.2)	31(18.3)	169(100.0)	3.89±0.73
유의도값		$X^2=21.938^{**}$ (df=8)						F=2.409
혼인상태 (N=498)	비혼	2(0.9)	6(2.8)	54(25.0)	117(54.2)	37(17.1)	216(100.0)	3.84±0.77
	기혼	-	-	4(22.2)	10(55.6)	4(22.2)	18(100.0)	4.00±0.69
	이혼	-	1(4.5)	7(31.8)	11(50.0)	3(13.6)	22(100.0)	3.73±0.77
	사별	-	2(0.8)	29(12.0)	154(63.6)	57(23.6)	242(100.0)	4.10±0.62
유의도값		$X^2=23.629^*$ (df=12)						F=6.267***
월소득 (N=378)	100만원 미만	-	3(1.3)	36(15.9)	135(59.5)	53(23.3)	227(100.0)	4.05±0.67
	100만원 이상	-	5(3.3)	35(23.2)	82(54.3)	29(19.2)	151(100.0)	3.96±0.71
유의도값		$X^2=5.422$ (df=3)						T=0.982

***p<0.001, **p<0.01, *p<0.05



좁은 골목길 CCTV 설치 확대는 79.7%(매우 필요 23.7% + 필요 5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6%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여성(86.3%)과 50~60대 이상(85.2%), 농촌지역(83.9%), 중학교 졸업 이하(87.7%), 월소득 100만원 미만(84.1%)일 경우 CCTV 설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6] 좁은 골목길 CCTV 설치 확대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	13(2.6)	88(17.7)	279(56.0)	118(23.7)	498(100.0)	4.01±0.72
성별 (N=498)	여성	-	7(2.5)	31(11.2)	171(62.0)	67(24.3)	276(100.0)	4.08±0.67
	남성	-	6(2.7)	57(25.7)	108(48.6)	51(23.0)	222(100.0)	3.92±0.77
유의도값		$X^2=18.516^{***}$ (df=3)						T=2.453*
연령 (N=498)	20~40대	-	8(3.6)	52(23.5)	115(52.0)	46(20.8)	221(100.0)	3.90±0.76
	50~60대 이상	-	5(1.8)	35(13.0)	164(59.2)	72(26.0)	277(100.0)	4.09±0.67
유의도값		$X^2=11.788^{**}$ (df=3)						T=-2.959**
거주지역 (N=498)	도시	-	10(3.0)	65(19.3)	186(55.2)	76(22.6)	337(100.0)	3.97±0.73
	농촌	-	3(1.9)	23(14.3)	93(57.8)	42(26.1)	161(100.0)	4.08±0.69
유의도값		$X^2=2.755$ (df=3)						T=-1.559
최종학력 (N=489)	중학교 졸업 이하	-	5(2.7)	18(9.6)	117(62.6)	47(25.1)	187(100.0)	4.10±0.67
	고등학교 졸업	-	3(2.3)	31(23.3)	70(52.6)	29(21.8)	133(100.0)	3.94±0.74
	대학 졸업 이상	-	5(3.0)	38(22.5)	86(50.9)	40(23.7)	169(100.0)	3.95±0.76
유의도값		$X^2=14.382^*$ (df=6)						F=2.671
혼인상태 (N=498)	비혼	-	8(3.7)	51(23.6)	112(51.9)	45(20.8)	216(100.0)	3.90±0.76
	기혼	-	-	3(16.7)	11(61.1)	4(22.2)	18(100.0)	4.06±0.64
	이혼	-	-	8(36.4)	11(50.0)	3(13.6)	22(100.0)	3.77±0.69
	사별	-	5(2.1)	26(10.7)	145(59.9)	66(27.3)	242(100.0)	4.12±0.67
유의도값		$X^2=22.114^{**}$ (df=9)						F=4.674**
월소득 (N=378)	100만원 미만	-	5(2.2)	31(13.7)	124(54.6)	67(29.5)	227(100.0)	4.11±0.71
	100만원 이상	-	5(3.3)	30(19.9)	84(55.6)	32(21.2)	151(100.0)	4.00±0.70
유의도값		$X^2=5.004$ (df=3)						T=1.212

*** $p < 0.001$, ** $p < 0.01$, * $p < 0.05$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안전시스템 마련에 대해 조사한 결과, 72.8%(매우 필요 19.4% + 필요 53.4%)가 안전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4%(전혀 불필요 0.6% + 불필요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여성(81.0%)과 50~60대 이상(77.9%), 농촌지역(78.8%), 중학교 졸업 이하(80.1%), 사별(79.4%), 월소득 100만원 미만(73.9%)일 경우 안전시스템 마련에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안전시스템 마련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3(0.6)	19(3.8)	113(22.8)	265(53.4)	96(19.4)	496(100.0)	3.87±0.78
성별 (N=496)	여성	-	9(3.3)	43(15.7)	162(59.1)	60(21.9)	274(100.0)	4.00±0.71
	남성	3(1.4)	10(4.5)	70(31.5)	103(46.4)	36(16.2)	222(100.0)	3.72±0.84
유의도값		$X^2 = 23.446^{***} (df=4)$						T=3.954 ^{***}
연령 (N=496)	20-40대	2(0.9)	6(2.7)	66(30.0)	113(51.4)	33(15.0)	220(100.0)	3.77±0.77
	50-60대 이상	1(0.4)	13(4.7)	47(17.0)	152(55.1)	63(22.8)	276(100.0)	3.95±0.79
유의도값		$X^2 = 15.091^* (df=4)$						T=-2.625 ^{**}
거주지역 (N=496)	도시	3(0.9)	9(2.7)	89(26.6)	178(53.1)	56(16.7)	335(100.0)	3.82±0.77
	농촌	-	10(6.2)	24(14.9)	87(54.0)	40(24.8)	161(100.0)	3.98±0.81
유의도값		$X^2 = 15.186^{**} (df=4)$						T=-2.060 [*]
최종학력 (N=487)	중학교 졸업 이하	-	9(4.8)	28(15.1)	110(59.1)	39(21.0)	186(100.0)	3.96±0.75
	고등학교 졸업	1(0.8)	5(3.8)	36(27.3)	69(52.3)	21(15.9)	132(100.0)	3.79±0.78
	대학 졸업 이상	2(1.2)	5(3.0)	48(28.4)	82(48.5)	32(18.9)	169(100.0)	3.81±0.82
유의도값		$X^2 = 14.148 (df=8)$						F=2.500
혼인상태 (N=496)	비혼	3(1.4)	5(2.3)	65(30.2)	110(51.2)	32(14.9)	215(100.0)	3.76±0.78
	기혼	-	1(5.9)	3(17.6)	9(52.9)	4(23.5)	17(100.0)	3.94±0.83
	이혼	-	-	8(36.4)	12(54.5)	2(9.1)	22(100.0)	3.73±0.63
	사별	-	13(5.4)	37(15.3)	134(55.4)	58(24.0)	242(100.0)	3.98±0.78
유의도값		$X^2 = 25.517^{**} (df=12)$						F=3.371 [*]
월소득 (N=377)	100만원 미만	1(0.4)	13(5.8)	45(19.9)	115(50.9)	52(23.0)	226(100.0)	3.90±0.83
	100만원 이상	2(1.3)	2(1.3)	41(27.2)	80(53.0)	26(17.2)	151(100.0)	3.77±0.76
유의도값		$X^2 = 8.969 (df=4)$						T=1.190

*** $p < 0.001$, ** $p < 0.01$, * $p < 0.05$



대중교통 시간 확대가 필요한지 관해 72.6%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4%로 나타났다. 여성(75.3%), 50~60대 이상(79.0%), 농촌지역(78.2%) 기혼(83.3%), 월소득 100만원 미만(77.4%)일수록 대중교통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38] 대중교통 시간 확대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3(0.6)	4(0.8)	129(26.0)	207(41.6)	154(31.0)	497(100.0)	4.02±0.81
성별 (N=497)	여성	1(0.4)	2(0.7)	65(23.6)	122(44.4)	85(30.9)	275(100.0)	4.05±0.78
	남성	2(0.9)	2(0.9)	64(28.8)	85(38.3)	69(31.1)	222(100.0)	3.98±0.85
유의도값		$X^2=2.999(df=4)$						T=0.954
연령 (N=497)	20-40대	3(1.4)	3(1.4)	72(32.6)	77(34.8)	66(29.9)	221(100.0)	3.90±0.89
	50-60대 이상	-	3(0.4)	57(20.7)	130(47.1)	88(31.9)	276(100.0)	4.11±0.73
유의도값		$X^2=16.574^{**}(df=4)$						T=-2.693 ^{**}
거주지역 (N=497)	도시	3(0.9)	2(0.6)	96(28.6)	125(37.2)	110(32.7)	336(100.0)	4.00±0.85
	농촌	-	2(1.2)	33(20.5)	82(50.9)	44(27.3)	161(100.0)	4.04±0.73
유의도값		$X^2=10.691^{*}(df=4)$						T=-0.550
최종학력 (N=488)	중학교 졸업 이하	-	1(0.5)	37(19.9)	98(52.7)	50(26.9)	186(100.0)	4.06±0.70
	고등학교 졸업	2(1.5)	1(0.8)	33(24.8)	44(33.1)	53(39.8)	133(100.0)	4.09±0.90
	대학 졸업 이상	1(0.6)	2(1.2)	58(34.3)	60(35.5)	48(28.4)	169(100.0)	3.90±0.85
유의도값		$X^2=24.604^{**}(df=8)$						F=2.565
혼인상태 (N=497)	비혼	3(1.4)	3(1.4)	71(32.9)	72(33.3)	67(31.0)	216(100.0)	3.91±0.90
	기혼	-	-	3(16.7)	11(61.1)	4(22.2)	18(100.0)	4.06±0.64
	이혼	-	-	10(45.5)	10(45.5)	2(9.1)	22(100.0)	3.64±0.66
	사별	-	1(0.4)	45(18.7)	114(47.3)	81(33.6)	241(100.0)	4.14±0.72
유의도값		$X^2=29.856^{**}(df=12)$						F=4.830 ^{**}
월소득 (N=377)	100만원 미만	-	1(0.4)	50(22.1)	106(46.9)	69(30.5)	226(100.0)	4.08±0.74
	100만원 이상	1(0.7)	1(0.7)	52(34.4)	64(42.4)	33(21.9)	151(100.0)	3.87±0.79
유의도값		$X^2=9.580^{*}(df=4)$						T=2.085 [*]

***p<0.001, **p<0.01, *p<0.05



주택 및 원룸의 보안장치 강화의 필요성은 7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6.0%에 불과하다. 여성(76.6%), 50~60대 이상(73.0%), 농촌지역(80.9%), 중학교 졸업 이하(76.6%), 기혼(83.4%), 월소득 100만원 미만(76.3%)에서 보안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주택 및 원룸 보안장치 강화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2(0.4)	28(5.6)	114(22.8)	227(45.4)	129(25.8)	500(100.0)	3.91±0.86
성별 (N=500)	여성	-	16(5.8)	49(17.6)	133(47.8)	80(28.8)	278(100.0)	4.00±0.83
	남성	2(0.9)	12(5.4)	65(29.3)	94(42.3)	49(22.1)	222(100.0)	3.79±0.88
유의도값		$X^2 = 12.856^*(df=4)$						T=2.633**
연령 (N=500)	20-40대	2(0.9)	6(2.7)	61(27.5)	94(42.3)	59(26.6)	222(100.0)	3.91±0.85
	50-60대 이상	-	22(7.9)	53(19.1)	133(47.8)	70(25.2)	278(100.0)	3.90±0.87
유의도값		$X^2 = 13.237^*(df=4)$						T=0.091
거주지역 (N=500)	도시	2(0.6)	24(7.1)	87(25.7)	131(38.8)	94(27.8)	338(100.0)	3.86±0.93
	농촌	-	4(2.5)	27(16.7)	96(59.3)	35(21.6)	162(100.0)	4.00±0.70
유의도값		$X^2 = 20.881^{***}(df=4)$						T=-1.871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	11(5.9)	33(17.6)	99(52.7)	45(23.9)	188(100.0)	3.95±0.81
	고등학교 졸업	1(0.8)	8(6.0)	40(30.1)	45(33.8)	39(29.3)	133(100.0)	3.85±0.94
	대학 졸업 이상	1(0.6)	7(4.1)	40(23.5)	78(45.9)	44(25.9)	170(100.0)	3.92±0.84
유의도값		$X^2 = 14.314(df=8)$						F=0.523
혼인상태 (N=500)	비혼	2(0.9)	6(2.8)	60(27.6)	90(41.5)	59(27.2)	217(100.0)	3.91±0.86
	기혼	-	1(5.6)	2(11.1)	10(55.6)	5(27.8)	18(100.0)	4.06±0.80
	이혼	-	-	9(40.9)	12(54.5)	1(4.5)	22(100.0)	3.64±0.58
	사별	-	21(8.6)	43(17.7)	115(47.3)	64(26.3)	243(100.0)	3.91±0.88
유의도값		$X^2 = 26.047^*(df=12)$						F=0.91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	7(3.1)	47(20.6)	121(53.1)	53(23.2)	228(100.0)	3.96±0.75
	100만원 이상	1(0.7)	7(4.6)	39(25.7)	72(47.4)	33(21.7)	152(100.0)	3.83±0.87
유의도값		$X^2 = 3.787(df=4)$						T=1.220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및 활성화의 필요성은 응답자의 7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여성(76.5%), 농촌지역(80.1%), 중학교 졸업 이하(77.5%), 기혼(77.7%), 월소득 100만원 미만(73.6%)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0]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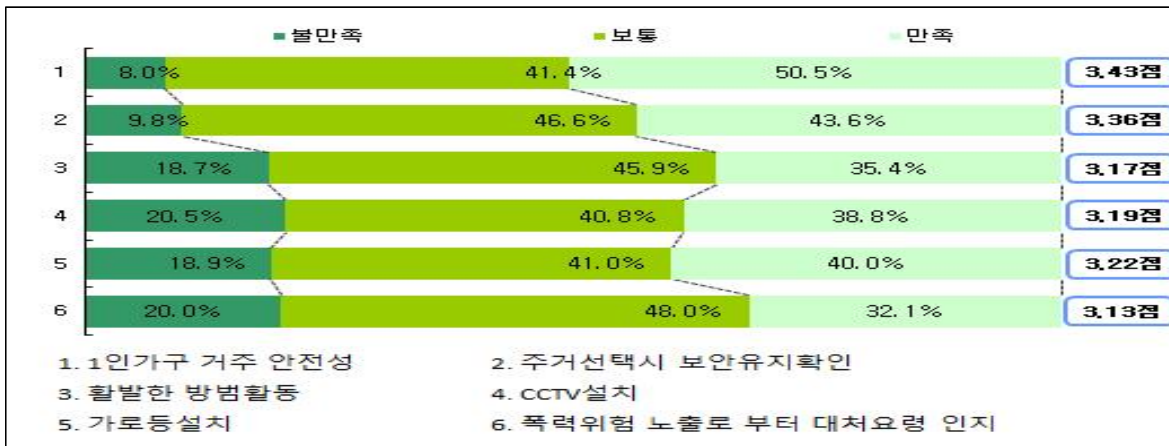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2(0.4)	27(5.4)	117(23.5)	216(43.4)	136(27.3)	498(100.0)	3.92±0.87
성별 (N=498)	여성	-	14(5.1)	51(18.5)	131(47.5)	80(29.0)	276(100.0)	4.00±0.82
	남성	2(0.9)	13(5.9)	66(29.7)	85(38.3)	56(25.2)	222(100.0)	3.81±0.91
유의도값		$X^2=12.281^*(df=4)$						T=2.446*
연령 (N=498)	20-40대	2(0.9)	8(3.6)	61(27.6)	91(41.2)	59(26.7)	221(100.0)	3.89±0.87
	50-60대 이상	-	19(6.9)	56(20.2)	125(45.1)	77(27.8)	277(100.0)	3.94±0.87
유의도값		$X^2=8.236(df=4)$						T=0.548
거주지역 (N=498)	도시	2(0.6)	24(7.1)	88(26.1)	129(38.3)	94(27.9)	337(100.0)	3.86±0.93
	농촌	-	3(1.9)	29(18.0)	87(54.0)	42(26.1)	161(100.0)	4.04±0.72
유의도값		$X^2=15.922^{**}(df=4)$						T=-2.449*
최종학력 (N=489)	중학교 졸업 이하	-	8(4.3)	34(18.2)	99(52.9)	46(24.6)	187(100.0)	3.98±0.78
	고등학교 졸업	1(0.8)	8(6.0)	42(31.6)	47(35.3)	35(26.3)	133(100.0)	3.80±0.92
	대학 졸업 이상	1(0.6)	8(4.7)	40(23.7)	67(39.6)	53(31.4)	169(100.0)	3.96±0.89
유의도값		$X^2=15.657^*(df=8)$						F=1.851
혼인상태 (N=498)	비혼	2(0.9)	7(3.2)	61(28.2)	87(40.3)	59(27.3)	216(100.0)	3.90±0.87
	기혼	-	2(11.1)	2(11.1)	8(44.4)	6(33.3)	18(100.0)	4.00±0.97
	이혼	-	-	8(36.4)	13(59.1)	1(4.5)	22(100.0)	3.68±0.57
	사별	-	18(7.4)	46(19.0)	108(44.6)	70(28.9)	242(100.0)	3.95±0.88
유의도값		$X^2=21.926^*(df=12)$						F=0.743
월소득 (N=378)	100만원 미만	-	5(2.2)	55(24.2)	110(48.5)	57(25.1)	227(100.0)	3.96±0.76
	100만원 이상	1(0.7)	7(4.6)	37(24.5)	70(46.4)	36(23.8)	151(100.0)	3.81±0.87
유의도값		$X^2=3.341(df=4)$						T=1.352

***p<0.001, **p<0.0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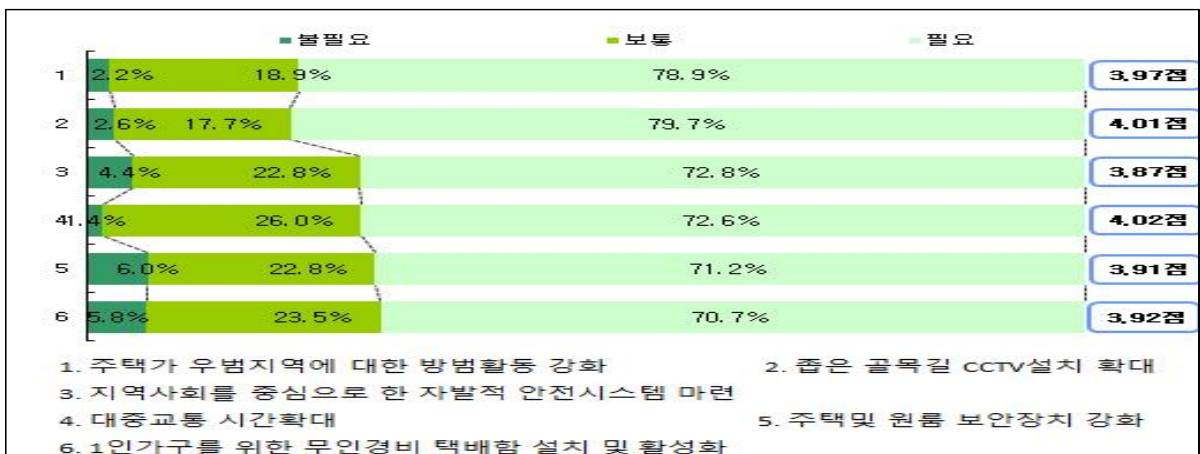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인가구 거주 안전성(3.43점)과 주거 선택시 보안유지확인(3.3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로등 설치(3.22점), CCTV 설치(3.19점), 활발한 방범활동(3.17점), 폭력위험 노출로부터 대처요령 인지(3.1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3]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는 대중교통 시간확대(4.02점)와 좁은 골목길 CCTV 설치(4.0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택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강화(3.97점), 1인가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및 활성화(3.92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안전시스템 마련(3.87점), 대중교통 시간확대(4.02점), 주택및 원룸 보안장치 강화(3.9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4]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5]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1인가구 경제적 활동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6.2%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남성(41.9%), 20~40대(62.2%), 도시지역(40.8%), 대학 졸업 이상(73.5%), 비혼(62.2%), 월소득 100만원 이상(87.5%)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표 IV-41] 경제적 활동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전체
전체		181(36.2)	319(63.8)	500(100.0)
성별 (N=500)	여성	88(31.7)	190(68.3)	278(100.0)
	남성	93(41.9)	129(58.1)	222(100.0)
유의도값		$X^2=5.601^*(df=1)$		
연령 (N=500)	20~40대	138(62.2)	84(37.8)	222(100.0)
	50~60대 이상	43(15.5)	235(84.5)	278(100.0)
유의도값		$X^2=116.528^{***}(df=1)$		
거주지역 (N=500)	도시	138(40.8)	200(59.2)	338(100.0)
	농촌	43(26.5)	119(73.5)	162(100.0)
유의도값		$X^2=9.676^{**}(df=1)$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20(10.6)	168(89.4)	188(100.0)
	고등학교 졸업	35(26.3)	98(73.7)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25(73.5)	45(26.5)	170(100.0)
유의도값		$X^2=160.472^{***}(df=2)$		
혼인상태 (N=500)	비혼	135(62.2)	82(37.8)	217(100.0)
	기혼	11(61.1)	7(38.9)	18(100.0)
	이혼	13(59.1)	9(40.9)	22(100.0)
	사별	22(9.1)	221(90.9)	243(100.0)
유의도값		$X^2=150.938^{***}(df=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39(17.1)	189(82.9)	228(100.0)
	100만원 이상	133(87.5)	19(12.5)	152(100.0)
유의도값		$X^2=182.411^{***}(df=1)$		

***p<0.001, **p<0.01, *p<0.05



1인가구 일의 형태는 응답자의 43.5%가 상용근로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간제/아르바이트(23.5%), 임시근로자(기간제 포함) 14.1%, 자영업(10.0%) 순으로 나타났다. 20~40대(51.1%), 농촌지역(61.9%), 대학 졸업 이상(56.7%), 비혼(51.5%), 100만원 이상(58.5%)에서 상용직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일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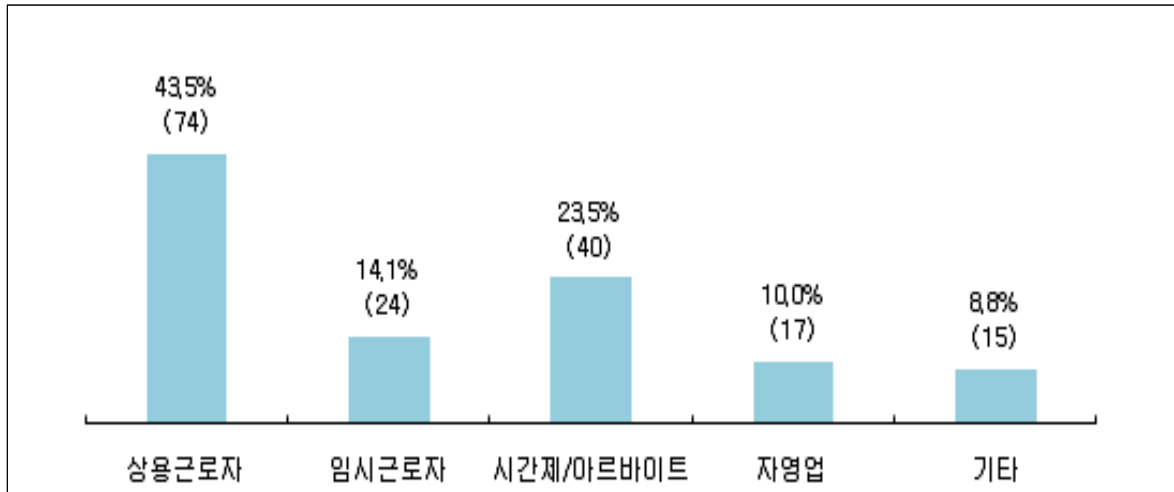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기간제 포함)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영업	기타	전체
전체		74(43.5)	24(14.1)	40(23.5)	17(10.0)	15(8.8)	170(100.0)
성별 (N=170)	여성	37(44.0)	10(11.9)	20(23.8)	11(13.1)	6(7.1)	84(100.0)
	남성	37(43.0)	14(16.3)	20(23.3)	6(7.0)	9(10.5)	86(100.0)
유의도값		$X^2 = 2.714 (df=4)$					
연령 (N=170)	20~40대	67(51.1)	14(10.7)	34(26.0)	9(6.9)	7(5.3)	131(100.0)
	50~60대 이상	7(17.9)	10(25.6)	6(15.4)	8(20.5)	8(20.5)	39(100.0)
유의도값		$X^2 = 27.226^{***} (df=4)$					
거주지역 (N=170)	도시	48(37.5)	15(11.7)	36(28.1)	15(11.7)	14(10.9)	128(100.0)
	농촌	26(61.9)	9(21.4)	4(9.5)	2(4.8)	1(2.4)	42(100.0)
유의도값		$X^2 = 15.244^{**} (df=4)$					
최종학력 (N=169)	중학교 졸업 이하	2(10.0)	4(20.0)	3(15.0)	4(20.0)	7(35.0)	20(100.0)
	고등학교 졸업	4(13.8)	5(17.2)	15(51.7)	2(6.9)	3(10.3)	29(100.0)
	대학 졸업 이상	68(56.7)	15(12.5)	21(17.5)	11(9.2)	5(4.2)	120(100.0)
유의도값		$X^2 = 49.916^{***} (df=8)$					
혼인상태 (N=170)	비혼	67(51.5)	11(8.5)	34(26.2)	11(8.5)	7(5.4)	130(100.0)
	기혼	4(36.4)	5(45.5)	1(9.1)	-	1(9.1)	11(100.0)
	이혼	2(28.6)	1(14.3)	1(14.3)	2(28.6)	1(14.3)	7(100.0)
	사별	1(4.5)	7(31.8)	4(18.2)	4(18.2)	6(27.3)	22(100.0)
유의도값		$X^2 = 43.204^{***} (df=12)$					
월소득 (N=162)	100만원 미만	-	5(13.2)	25(65.8)	2(5.3)	6(15.8)	38(100.0)
	100만원 이상	73(58.9)	19(15.3)	10(8.1)	15(12.1)	7(5.6)	124(100.0)
유의도값		$X^2 = 72.348^{***} (df=4)$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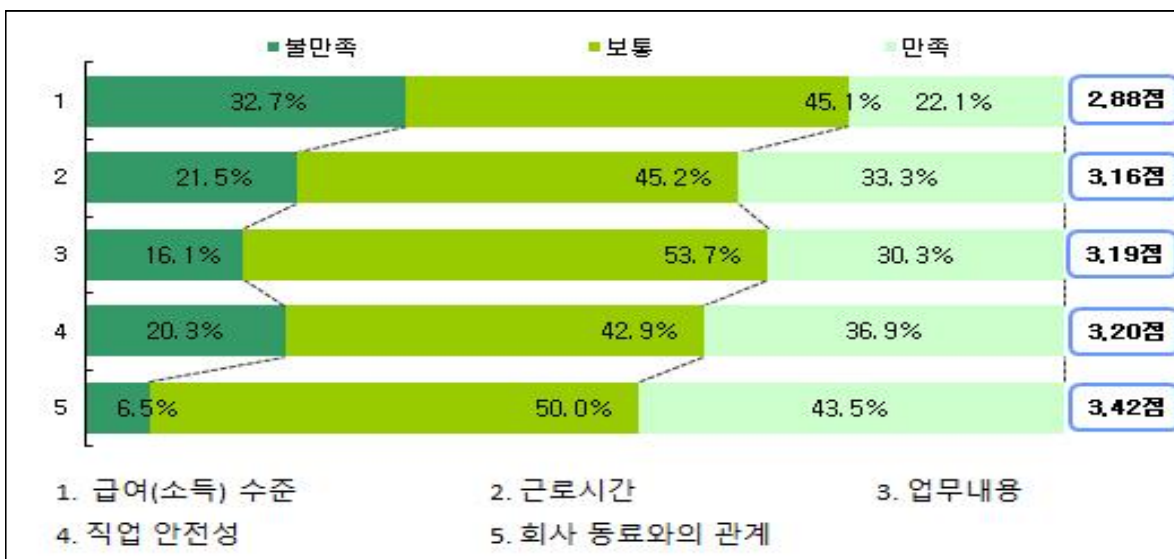


(단위 : 명)



[그림 IV-25] 일의 형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3.42점)와 직업 안전성(3.20점)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내용(3.19점), 근로시간(3.16점), 급여(소득) 수준(2.88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일자리 만족도



1인가구 급여(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22.1%가 만족(매우 만족 3.1% + 만족 19.0%)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급여(소득) 수준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평균 (M±S.D)
전체		10(4.4)	64(28.3)	102(45.1)	43(19.0)	7(3.1)	226(100.0)	2.88±0.87
성별 (N=226)	여성	2(1.8)	35(31.5)	51(45.9)	21(18.9)	2(1.8)	111(100.0)	2.87±0.80
	남성	8(7.0)	29(25.2)	51(44.3)	22(19.1)	5(4.3)	115(100.0)	2.89±0.94
유의도값		$X^2=5.402(df=4)$						T=-0.112
연령 (N=226)	20-40대	7(4.4)	39(24.4)	75(46.9)	32(20.0)	7(4.4)	160(100.0)	2.96±0.89
	50-60대 이상	3(4.5)	25(37.9)	27(40.9)	11(16.7)	-	66(100.0)	2.70±0.80
유의도값		$X^2=6.541(df=4)$						T=2.043*
거주지역 (N=226)	도시	7(4.1)	48(27.9)	78(45.3)	33(19.2)	6(3.5)	172(100.0)	2.90±0.88
	농촌	3(5.6)	16(29.6)	24(44.4)	10(18.5)	1(1.9)	54(100.0)	2.81±0.87
유의도값		$X^2=0.621(df=4)$						T=0.633
최종학력 (N=225)	중학교 졸업 이하	3(7.5)	15(37.5)	18(45.0)	4(10.0)	-	29(100.0)	2.58±0.78
	고등학교 졸업	2(3.7)	18(33.3)	27(50.0)	7(13.0)	-	54(100.0)	2.72±0.74
	대학 졸업 이상	5(3.8)	30(22.9)	57(43.5)	32(24.4)	7(5.3)	131(100.0)	3.05±0.92
유의도값		$X^2=14.200(df=8)$						F=5.923**
혼인상태 (N=226)	비혼	6(3.8)	36(22.9)	74(47.1)	34(21.7)	7(4.5)	157(100.0)	3.00±0.88
	기혼	2(20.0)	1(10.0)	4(40.0)	3(30.0)	-	10(100.0)	2.80±1.14
	이혼	1(7.1)	7(50.0)	3(21.4)	3(21.4)	-	14(100.0)	2.57±0.94
	사별	1(2.2)	20(44.4)	21(46.7)	3(6.7)	-	45(100.0)	2.58±0.66
유의도값		$X^2=25.489(df=12)$						F=3.505*
월소득 (N=196)	100만원 미만	2(3.2)	25(40.3)	27(43.5)	7(11.3)	1(1.6)	62(100.0)	2.68±0.78
	100만원 이상	6(4.5)	33(24.6)	58(43.3)	33(24.6)	4(3.0)	134(100.0)	2.71±0.91
유의도값		$X^2=7.699(df=4)$						T=-0.243

***p<0.001, **p<0.01, *p<0.05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33.3%가 만족(매우 만족 5.0% + 만족 28.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최종학력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근로시간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평균 (M±S.D)
전체		3(1.4)	44(20.1)	99(45.2)	62(28.3)	11(5.0)	219(100.0)	3.16±0.90
성별 (N=219)	여성	-	20(19.0)	47(44.8)	36(34.3)	2(1.9)	105(100.0)	3.19±0.76
	남성	3(2.6)	24(21.1)	52(45.6)	26(22.8)	9(7.9)	114(100.0)	3.12±0.92
유의도값		$X^2 = 24.739^*(df=12)$						T=0.589
연령 (N=219)	20-40대	3(1.9)	30(18.8)	71(44.4)	46(28.8)	10(6.3)	160(100.0)	3.19±0.88
	50-60대 이상	-	14(23.7)	28(47.5)	16(27.1)	1(1.7)	59(100.0)	3.07±0.76
유의도값		$X^2 = 3.550(df=4)$						T=0.927
거주지역 (N=219)	도시	2(1.2)	36(21.3)	74(43.8)	46(27.2)	11(6.5)	169(100.0)	3.17±0.88
	농촌	1(2.0)	8(16.0)	25(50.0)	16(32.0)	-	50(100.0)	3.12±0.75
유의도값		$X^2 = 4.623(df=4)$						T=0.334
최종학력 (N=218)	중학교 졸업 이하	1(2.9)	7(20.6)	18(52.9)	7(20.6)	1(2.9)	34(100.0)	3.00±0.82
	고등학교 졸업	1(1.9)	15(27.8)	29(53.7)	9(16.7)	-	54(100.0)	2.85±0.71
	대학 졸업 이상	1(0.8)	21(16.2)	52(40.0)	46(35.4)	10(7.7)	130(100.0)	3.33±0.87
유의도값		$X^2 = 16.152^*(df=8)$						F=7.228**
혼인상태 (N=219)	비혼	3(1.9)	26(16.6)	70(44.6)	48(30.6)	10(6.4)	157(100.0)	3.23±0.87
	기혼	-	2(20.0)	4(40.0)	4(40.0)	-	10(100.0)	3.20±0.79
	이혼	-	7(58.3)	3(25.0)	2(16.7)	-	12(100.0)	2.58±0.79
	사별	-	9(22.5)	22(55.0)	8(20.0)	1(2.5)	40(100.0)	3.03±0.73
유의도값		$X^2 = 17.511(df=12)$						F=2.599
월소득 (N=191)	100만원 미만	-	16(28.1)	29(50.9)	8(14.0)	4(7.0)	57(100.0)	3.00±0.85
	100만원 이상	2(1.5)	25(18.7)	52(38.8)	50(37.3)	5(3.7)	134(100.0)	3.13±0.92
유의도값		$X^2 = 11.928^*(df=4)$						T=-0.783

*** $p < 0.001$, ** $p < 0.01$, * $p < 0.05$



주된 경제소득원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4.1%가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33.3%가 본인소득으로 나타났다. 여성(42.4%)과 50~60대 이상(55.4%), 농촌지역(40.1%), 중학교 졸업(59.0%) 이하, 100만원 미만(53.1%)은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남성(39.6%)과 20~40대(57.6%), 도시지역(36.0%), 대학 졸업(69.0%) 이상, 100만원 이상(84.7%)은 본인소득이 높았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주된 경제소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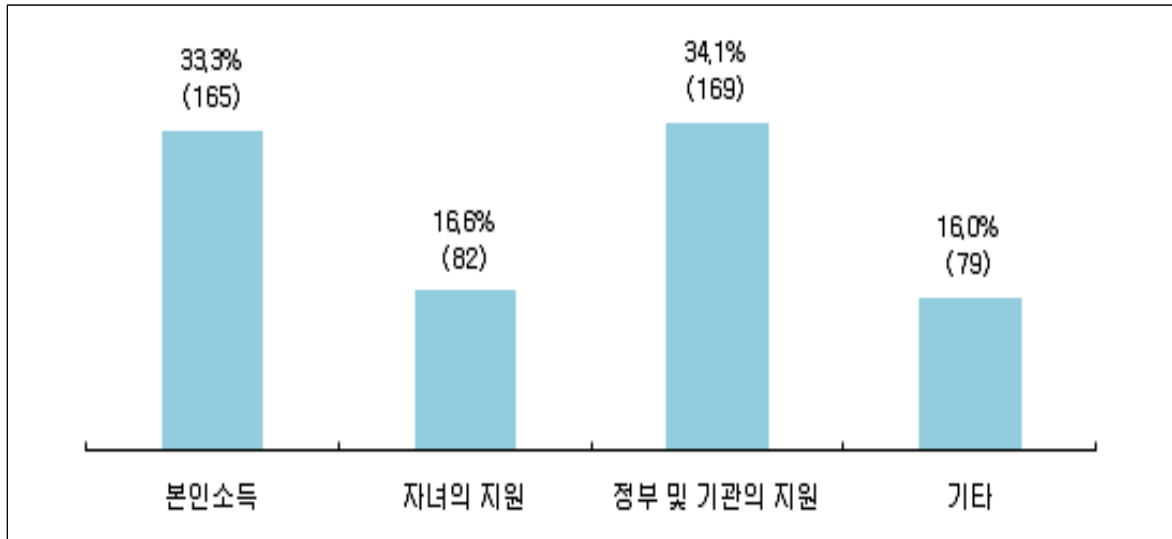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본인소득	자녀의 지원	정부 및 기관의 지원	기타	전체
전체		165(33.3)	82(16.6)	169(34.1)	79(16.0)	495(100.0)
성별 (N=495)	여성	79(28.4)	47(16.9)	118(42.4)	34(12.2)	278(100.0)
	남성	86(39.6)	35(16.1)	51(23.5)	45(20.7)	217(100.0)
유의도값		$X^2 = 22.979^{***} (df=3)$				
연령 (N=495)	20~40대	125(57.6)	2(0.9)	15(6.9)	75(34.6)	217(100.0)
	50~60대 이상	40(14.4)	80(28.8)	154(55.4)	4(1.4)	278(100.0)
유의도값		$X^2 = 293.052^{***} (df=3)$				
거주지역 (N=495)	도시	120(36.0)	38(11.4)	104(31.2)	71(21.3)	333(100.0)
	농촌	45(27.8)	44(27.2)	65(40.1)	8(4.9)	162(100.0)
유의도값		$X^2 = 39.400^{***} (df=3)$				
최종학력 (N=486)	중학교 졸업 이하	15(8.0)	56(29.8)	111(59.0)	6(3.2)	188(100.0)
	고등학교 졸업	34(26.2)	14(10.8)	32(24.6)	50(38.5)	130(100.0)
	대학 졸업 이상	116(69.0)	10(6.0)	20(11.9)	22(13.1)	168(100.0)
유의도값		$X^2 = 258.702^{***} (df=6)$				
혼인상태 (N=495)	비혼	122(57.5)	2(0.9)	14(6.6)	74(34.9)	212(100.0)
	기혼	11(61.1)	2(11.1)	3(16.7)	2(11.1)	18(100.0)
	이혼	13(59.1)	3(13.6)	6(27.3)	-	22(100.0)
	사별	19(7.8)	75(30.9)	146(60.1)	3(1.2)	243(100.0)
유의도값		$X^2 = 336.321^{***} (df=9)$				
월소득 (N=378)	100만원 미만	28(12.3)	63(27.6)	121(53.1)	16(7.0)	228(100.0)
	100만원 이상	127(84.7)	7(4.7)	11(7.3)	5(3.3)	150(100.0)
유의도값		$X^2 = 197.787^{***} (df=3)$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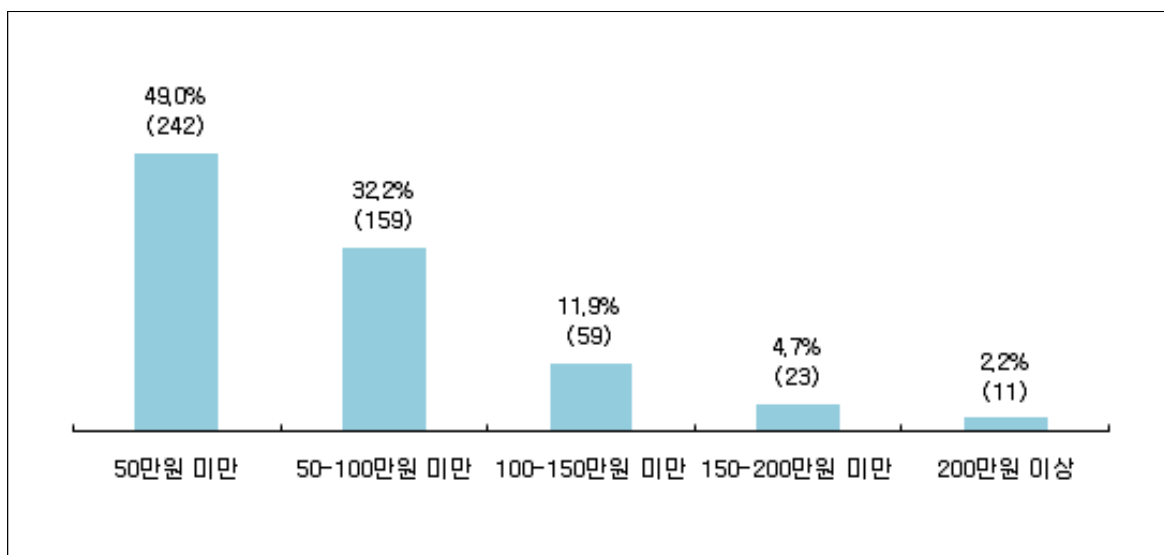
(단위 : 명)



[그림 IV-27] 주된 경제소득원

응답자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49.0%가 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50~100만원 미만이 32.2%로 나타났다.

(단위 : 명)



[그림 IV-28] 한달 평균 지출액



여성(57.1%), 50~60대(62.4%) 이상, 농촌지역(61.5%), 중학교 졸업(74.7%)이하, 사별(66.9%)은 평균 지출액은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한달 평균 지출액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전체
전체		242(49.0)	159(32.2)	59(11.9)	23(4.7)	11(2.2)	494(100.0)
성별 (N=494)	여성	157(57.1)	77(28.0)	25(9.1)	11(4.0)	5(1.8)	275(100.0)
	남성	85(38.8)	82(37.4)	34(15.5)	12(5.5)	6(2.7)	219(100.0)
유의도값		$X^2 = 16.956^{**}$ (df=4)					
연령 (N=494)	20-40대	71(32.3)	81(36.8)	39(17.7)	20(9.1)	9(4.1)	220(100.0)
	50-60대 이상	171(62.4)	78(28.5)	20(7.3)	3(1.1)	2(0.7)	274(100.0)
유의도값		$X^2 = 59.323^{***}$ (df=4)					
거주지역 (N=494)	도시	143(42.9)	119(35.7)	48(14.4)	15(4.5)	8(2.4)	333(100.0)
	농촌	99(61.5)	40(24.8)	11(6.8)	8(5.0)	3(1.9)	161(100.0)
유의도값		$X^2 = 17.037^{**}$ (df=4)					
최종학력 (N=485)	중학교 졸업 이하	139(74.7)	44(23.7)	3(1.6)	-	-	186(100.0)
	고등학교 졸업	65(49.6)	50(38.2)	12(9.2)	3(2.3)	1(0.8)	131(100.0)
	대학 졸업 이상	33(19.6)	64(38.1)	42(25.0)	19(11.3)	10(6.0)	168(100.0)
유의도값		$X^2 = 146.785^{***}$ (df=8)					
혼인상태 (N=494)	비혼	70(32.4)	77(35.6)	42(19.4)	18(8.3)	9(4.2)	216(100.0)
	기혼	4(22.2)	8(44.4)	2(11.1)	3(16.7)	1(5.6)	18(100.0)
	이혼	8(38.1)	8(38.1)	4(19.0)	-	1(4.8)	21(100.0)
	사별	160(66.9)	66(27.6)	11(4.6)	2(0.8)	-	239(100.0)
유의도값		$X^2 = 87.067^{***}$ (df=12)					
월소득 (N=376)	100만원 미만	163(72.1)	59(26.1)	4(1.8)	-	-	226(100.0)
	100만원 이상	13(8.7)	60(40.0)	45(30.0)	22(14.7)	10(6.7)	150(100.0)
유의도값		$X^2 = 186.410^{***}$ (df=4)					

*** $p < 0.001$, ** $p < 0.01$, * $p <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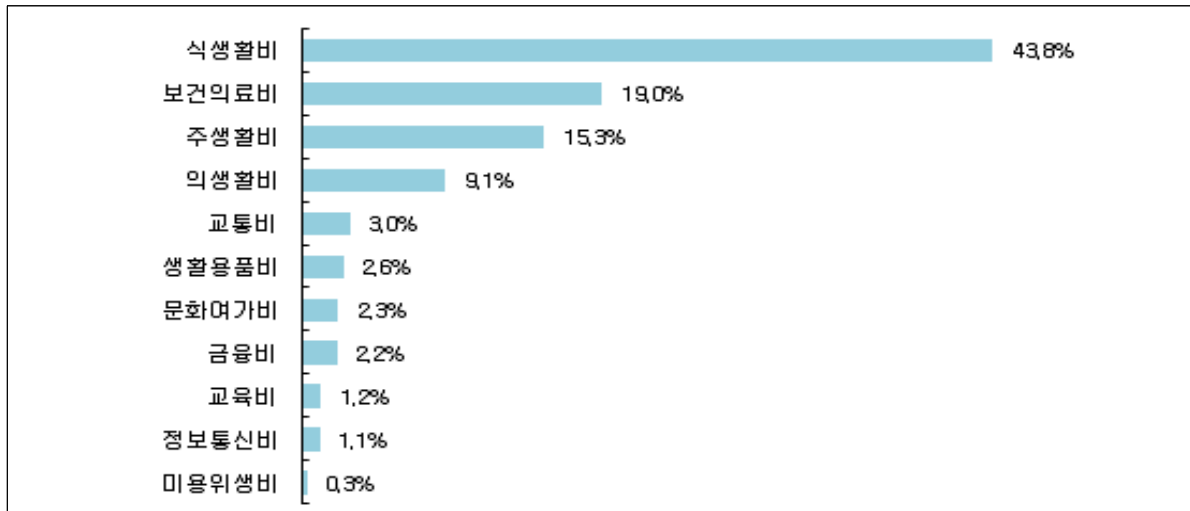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비중으로 응답자의 43.8%가 식생활비로 꼽았고, 이어서 보건의료비(19.0%), 주 생활비(15.3%), 의생활비(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에 상관없이 식비에 대한 생활비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최근 1년간 지출이 가장 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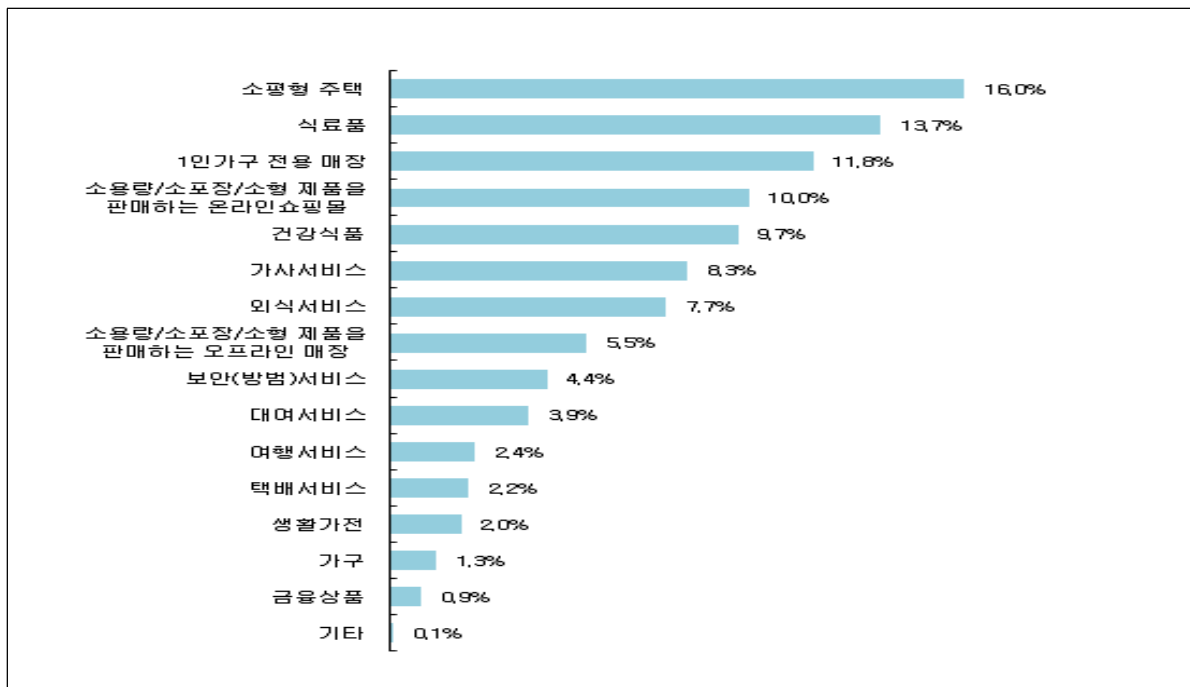
(순위별 가중치, 단위 : %, 무응답 제외)

구분		의 생활비	식 생활비	주 생활비	생활 용품비	보건 의료비	교통비	정보 통신비	문화 여가비	교육비	미용 위생비	금융비
전체		9.1	43.8	15.3	2.6	19.0	3.0	1.1	2.3	1.2	0.3	2.2
성별 (N=500)	여성	8.4	41.3	14.6	2.4	25.1	2.0	0.2	1.3	0.8	0.6	3.1
	남성	10.0	47.0	16.1	2.7	11.4	4.4	2.1	3.5	1.7	-	1.1
연령 (N=500)	20-40대	14.2	47.0	19.5	2.3	0.6	3.5	1.8	4.7	2.4	0.6	3.5
	50-60대 이상	5.0	41.3	11.9	2.8	33.8	2.7	0.5	0.4	0.2	0.1	1.2
거주지역 (N=500)	도시	11.5	46.7	15.8	2.8	12.4	2.8	1.4	2.8	1.6	0.5	1.6
	농촌	4.1	37.6	14.1	2.1	32.9	3.5	0.4	1.2	-	-	3.5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4.4	36.5	10.9	2.4	42.5	2.4	0.2	-	-	-	0.9
	고등학교 졸업	8.6	53.2	17.2	3.6	7.0	3.3	1.5	3.0	1.8	0.3	0.5
	대학 졸업 이상	14.8	43.9	18.6	2.2	3.0	3.8	1.8	4.0	2.2	0.8	5.1
혼인상태 (N=500)	비혼	15.0	46.8	18.5	2.2	0.6	2.8	1.9	5.0	2.5	0.8	4.0
	기혼	5.6	37.0	27.8	3.7	-	-	-	-	-	-	-
	이혼	-	42.4	13.6	9.1	15.2	10.6	4.5	1.5	-	-	-
	사별	4.9	41.8	11.6	2.2	36.2	2.0	0.1	0.1	-	-	0.7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3.6	40.9	12.7	2.7	35.7	2.4	0.5	0.4	0.4	0.4	0.2
	100만원 이상	14.8	39.1	17.8	2.9	5.7	5.1	1.6	4.7	0.9	0.5	7.1



[그림 IV-29] 최근 1년간 지출이 가장 큰 비중

1인 가구의 소비생활을 위해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으로 소평형 주택이 16.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식료품(13.7%), 1인 가구 전용 매장(11.8%),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0]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



1인 가구의 소비생활을 위해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은 전반적으로 소평형 주택이 많이 나타났다. 그 중 도시지역은 소평형 주택(16.9%), 농촌지역은 가사서비스(14.7%)를 희망하고 있다. 소평형 주택은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의 경우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 미만은 외식서비스(17.3%), 100만원 이상은 소평형 주택(25.1%)으로 나타났다.

[표 IV-48]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

(순위별 가중치, 단위 : %, 무응답 제외)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전체		16.0	13.7	1.4	2.0	7.7	3.9	9.7	0.9	2.2	8.3	4.4	2.4	10.0	5.5	11.8	0.1
성별 (N=496)	여성	15.5	13.3	0.7	1.5	6.8	2.7	12.9	1.0	1.9	9.6	5.7	2.4	9.4	5.9	10.5	0.2
	남성	16.7	14.1	2.3	2.6	9.0	5.5	5.8	0.9	2.4	6.7	2.9	2.3	10.6	4.9	13.4	-
연령 (N=496)	20-40대	21.3	11.8	3.0	3.0	8.9	4.8	1.7	1.8	3.0	1.1	5.7	2.3	13.2	5.3	13.0	-
	50-60대 이상	11.8	15.1	0.1	1.1	6.8	3.2	16.2	0.2	1.5	14.1	3.4	2.4	7.4	5.6	10.8	0.2
거주 지역 (N=496)	도시	16.9	13.3	1.7	2.0	7.0	2.9	8.2	1.2	2.5	5.2	5.0	3.0	11.8	5.3	14.1	0.1
	농촌	14.2	14.5	-	1.9	9.3	6.0	13.0	-	1.5	14.7	3.3	1.0	6.2	5.8	7.1	0.2
최종 학력 (N=496)	중학교 졸업 이하	11.6	17.9	0.2	1.2	6.4	3.4	17.9	0.2	1.4	15.1	4.5	1.1	7.2	5.6	5.9	0.4
	고등학교 졸업	12.2	14.5	0.5	3.1	6.4	5.3	5.1	1.3	3.3	4.6	5.3	3.3	9.9	6.9	18.3	-
	대학 졸업 이상	23.9	9.1	3.5	2.0	10.2	3.5	4.1	1.6	1.8	3.7	3.5	3.2	13.4	4.2	12.3	-
혼인 상태 (N=496)	비혼	21.5	12.2	3.1	2.9	8.5	4.6	1.9	1.9	2.9	0.9	5.7	2.8	13.0	5.1	12.9	-
	기혼	27.8	11.1	-	-	9.3	-	-	-	3.7	13.0	1.9	1.9	9.3	-	11.1	-
	이혼	13.6	10.6	1.5	4.5	1.5	-	3.0	-	-	19.7	4.5	6.1	3.0	13.6	18.2	-
	사별	10.5	15.4	-	1.0	7.5	3.6	18.2	0.3	1.5	13.5	3.5	1.7	7.9	4.9	10.3	0.3
월소득 (N=496)	100만원 미만	11.6	17.3	0.3	1.2	8.0	3.4	14.5	0.3	1.9	13.6	2.8	1.5	7.5	6.8	9.1	0.2
	100만원 이상	25.1	8.4	2.4	2.4	7.7	3.5	3.3	1.3	1.5	5.5	4.6	3.8	13.7	5.1	11.5	-

- | | | | |
|-----------|----------|---------------|-------------------------------------|
| 1) 소평형 주택 | 5) 외식서비스 | 9) 택배서비스 | 13) 소용량/소포장/소형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
| 2) 식료품 | 6) 대여서비스 | 10) 가사서비스 | 14) 소용량/소포장/소형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 |
| 3) 가구 | 7) 건강식품 | 11) 보안(방범)서비스 | 15) 1인 가구 전용매장(음식점, 세탁소, 노래방 등) |
| 4) 생활가전 | 8) 금융상품 | 12) 여행서비스 | 16) 기타 |

순위별 가중치 = {(1순위×2)+(2순위×1)}÷3



1인가구의 직업전환 등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 제공에 대한 필요도는 69.6%(매우 필요 14.4% + 필요 55.2%)로 나타났다. 여성(73.4%)과 이혼상태(90.0%)에서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별, 거주지역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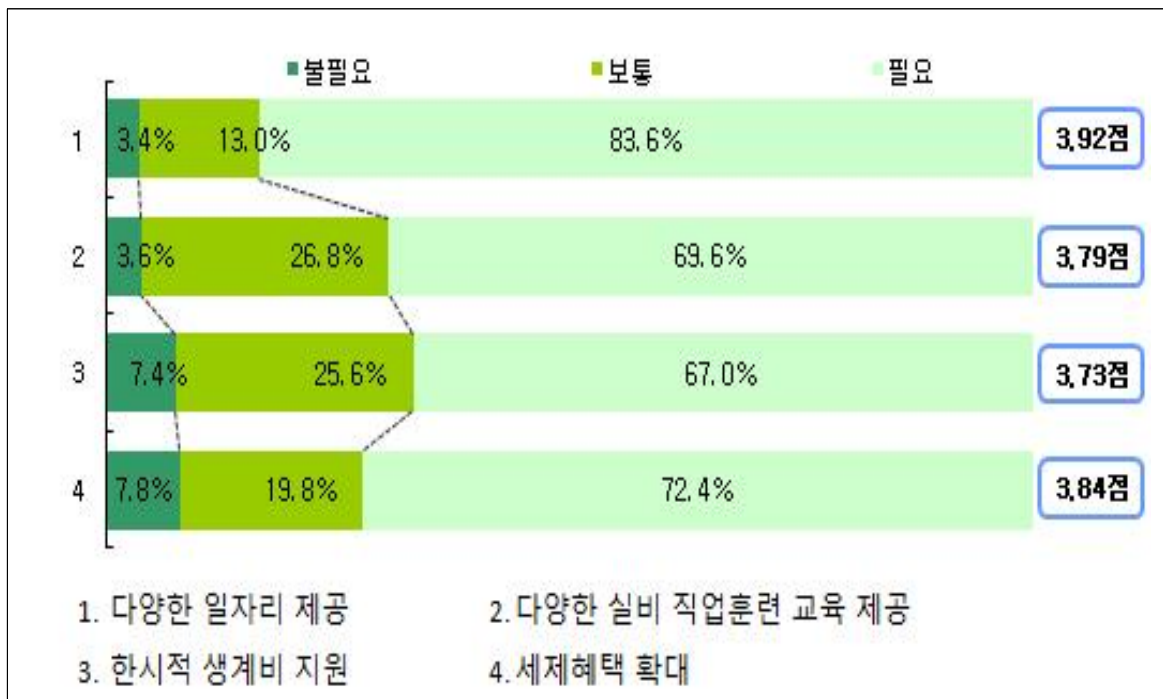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6(1.2)	12(2.4)	134(26.8)	276(55.2)	72(14.4)	500(100.0)	3.79±0.76
성별 (N=500)	여성	2(0.7)	9(3.2)	63(22.7)	178(64.0)	26(9.4)	278(100.0)	3.78±0.68
	남성	4(1.8)	3(1.4)	71(32.0)	98(44.1)	46(20.7)	222(100.0)	3.81±0.84
유의도값		$X^2 = 26.954^{***} (df=4)$						$T = -0.368^{**}$
연령 (N=500)	20-40대	6(2.7)	3(1.4)	64(28.8)	114(51.4)	35(15.8)	222(100.0)	3.76±0.83
	50-60대 이상	-	9(3.2)	70(25.2)	162(58.3)	37(13.3)	278(100.0)	3.82±0.69
유의도값		$X^2 = 11.545^{**} (df=4)$						$T = -0.795$
거주지역 (N=500)	도시	6(1.8)	6(1.8)	94(27.8)	169(50.0)	63(18.6)	338(100.0)	3.82±0.82
	농촌	-	6(3.7)	40(24.7)	107(66.0)	9(5.6)	162(100.0)	3.73±0.62
유의도값		$X^2 = 23.099^{***} (df=4)$						$T = -1.291^{**}$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	9(4.8)	52(27.7)	114(60.6)	13(6.9)	188(100.0)	3.70±0.67
	고등학교 졸업	3(2.3)	-	32(24.1)	68(51.1)	30(22.6)	133(100.0)	3.92±0.82
	대학 이상 졸업	3(1.8)	3(1.8)	47(27.6)	90(52.9)	27(15.9)	170(100.0)	3.79±0.79
유의도값		$X^2 = 27.539^{**} (df=8)$						$F = 3.332^*$
혼인상태 (N=500)	비혼	6(2.8)	3(1.4)	63(29.0)	110(50.7)	35(16.1)	217(100.0)	3.76±0.84
	기혼	-	-	4(22.2)	10(55.6)	4(22.2)	18(100.0)	4.00±0.69
	이혼	-	-	2(9.1)	17(77.3)	3(13.6)	22(100.0)	4.05±0.49
	사별	-	9(3.7)	65(26.7)	139(57.2)	30(12.3)	243(100.0)	3.78±0.70
유의도값		$X^2 = 19.415 (df=15)$						$F = 1.417$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0.4)	8(3.5)	57(25.0)	130(57.0)	32(14.0)	228(100.0)	3.81±0.73
	100만원 이상	3(2.0)	3(2.0)	44(28.9)	79(52.0)	23(15.1)	152(100.0)	3.76±0.80
유의도값		$X^2 = 3.816 (df=4)$						$T = 0.442$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 가구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가 해야 할 분야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3.9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세제혜택 확대(3.84점),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 제공(3.79점), 한시적 생계비 지원(3.7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1]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1인가구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할 분야 중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필요도는 83.6%(매우 필요 13.2% + 필요 70.4%)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77.5%)보다 여성(88.5%)에서 필요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50~60대 이상(93.2%), 농촌지역(87.1%), 중학교 이하(90.4%), 이혼(100.0%), 월소득 100만원 미만(89.9%)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더 많이 필요로 하였다.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다양한 일자리 제공 필요도

(단위: 명, %, 무응답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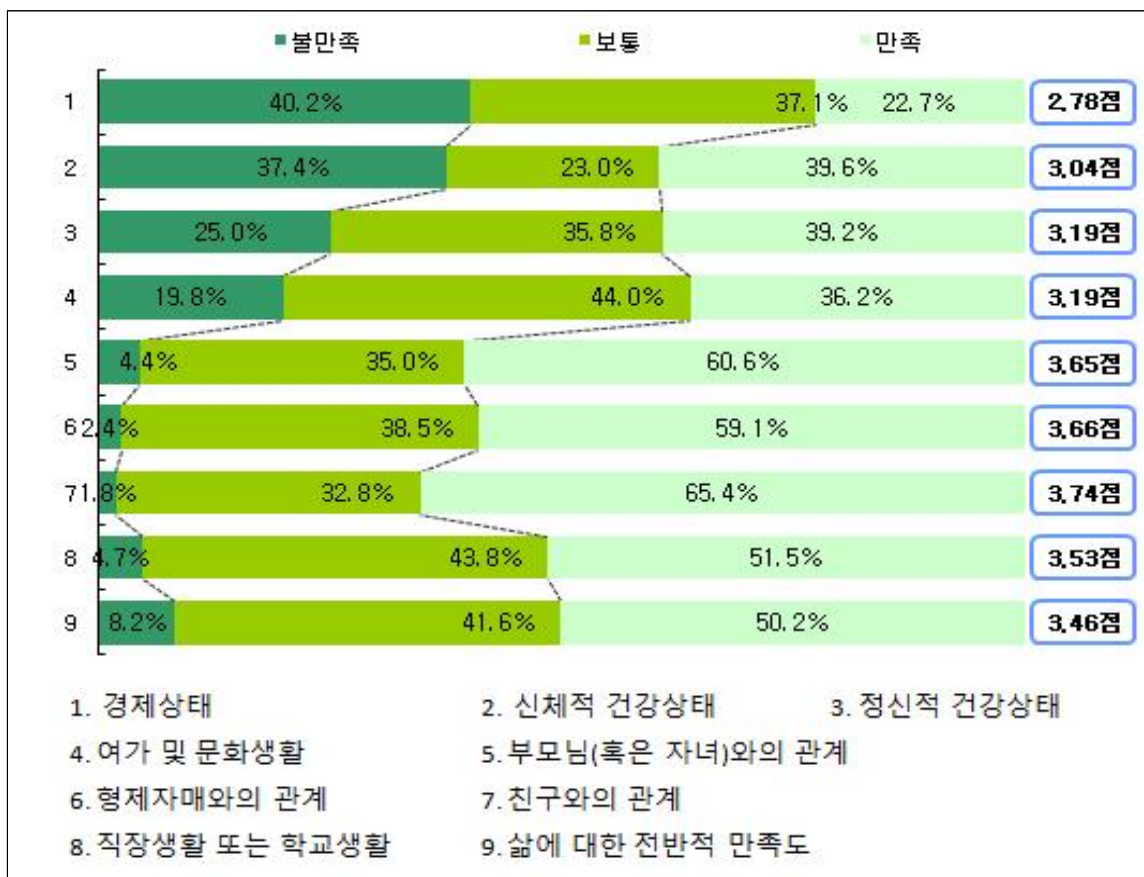
구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필요	전체	평균 (M±S.D)
전체		7(1.4)	10(2.0)	65(13.0)	352(70.4)	66(13.2)	500(100.0)	3.92±0.68
성별 (N=500)	여성	2(0.7)	7(2.5)	23(8.3)	217(78.1)	29(10.4)	278(100.0)	3.95±0.59
	남성	5(2.3)	3(1.4)	42(18.9)	135(60.8)	37(16.7)	222(100.0)	3.88±0.78
유의도값		$X^2=22.522^{***}(df=4)$						T=1.059^{**}
연령 (N=500)	20-40대	7(3.2)	4(1.8)	52(23.4)	120(54.1)	39(17.6)	222(100.0)	3.81±0.86
	50-60대 이상	-	6(2.2)	13(4.7)	232(83.5)	27(9.7)	278(100.0)	4.01±0.48
유의도값		$X^2=63.138^{***}(df=4)$						T=-3.054^{**}
거주지역 (N=500)	도시	7(2.1)	4(1.2)	50(14.8)	220(65.1)	57(16.9)	338(100.0)	3.93±0.74
	농촌	-	6(3.7)	15(9.3)	132(81.5)	9(5.6)	162(100.0)	3.89±0.53
유의도값		$X^2=24.202^{***}(df=4)$						T=0.791^{**}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	6(3.2)	12(6.4)	156(83.0)	14(7.4)	188(100.0)	3.95±0.51
	고등학교 졸업	3(2.3)	-	15(11.3)	90(67.7)	25(18.8)	133(100.0)	4.01±0.71
	대학 졸업 이상	4(2.4)	4(2.4)	37(21.8)	99(58.2)	26(15.3)	170(100.0)	3.82±0.80
유의도값		$X^2=41.372^{***}(df=8)$						F=3.170^{*}
혼인상태 (N=500)	비혼	7(3.2)	4(1.8)	53(24.4)	115(53.0)	38(17.5)	217(100.0)	3.80±0.86
	기혼	-	-	1(5.6)	12(66.7)	5(27.8)	18(100.0)	4.22±0.55
	이혼	-	-	-	18(81.8)	4(18.2)	22(100.0)	4.18±0.39
	사별	-	6(2.5)	11(4.5)	207(85.2)	19(7.8)	243(100.0)	3.98±0.47
유의도값		$X^2=78.079^{***}(df=12)$						F=5.479^{**}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2(0.9)	6(2.6)	15(6.6)	184(80.7)	21(9.2)	228(100.0)	3.95±0.58
	100만원 이상	3(2.0)	3(2.0)	35(23.0)	86(56.6)	25(16.4)	152(100.0)	3.92±0.76
유의도값		$X^2=31.165^{***}(df=4)$						T=0.275

***p<0.001, **p<0.01, *p<0.05



[6] 1인가구의 만족도 및 필요 정책

1인가구의 각 분야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친구와의 관계가 3.74점으로 가장 높았다. 형제자매와의 관계(3.66점), 부모님(혹은 자녀)와의 관계(3.65점), 직장생활 혹은 학교생활(3.53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3.46점)로 나타났다. 경제상태(2.78점)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2] 1인가구의 분야별 만족도

1인가구로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살펴본 결과, 50.2%(매우 만족 4.8% + 만족 45.4%) 전반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57.3%), 20~40대(60.0%), 도시지역(51.8%), 고등학교 졸업(59.4%) 이상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무응답제외)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평균 (M±S.D)
전체		2(0.4)	39(7.8)	208(41.6)	227(45.4)	24(4.8)	500(100.0)	3.46±0.73
성별 (N=500)	여성	1(0.4)	21(7.6)	132(47.5)	111(39.9)	13(4.7)	278(100.0)	3.41±0.71
	남성	1(0.5)	18(8.1)	76(34.2)	116(52.3)	11(5.0)	222(100.0)	3.53±0.73
유의도값		$X^2=9.431(df=4)$						T=1.866
연령 (N=500)	20-40대	1(0.5)	20(9.0)	68(30.6)	112(50.5)	21(9.5)	222(100.0)	3.60±0.80
	50-60대 이상	1(0.4)	19(6.8)	140(50.4)	115(41.4)	3(1.1)	278(100.0)	3.37±0.64
유의도값		$X^2=32.626^{***}(df=4)$						F=11.295^{***}
거주지역 (N=500)	도시	2(0.6)	29(8.6)	132(39.1)	153(45.3)	22(6.5)	338(100.0)	3.49±0.77
	농촌	-	10(6.2)	76(46.9)	74(45.7)	2(1.2)	162(100.0)	3.42±0.63
유의도값		$X^2=9.749^*(df=4)$						T=1.013^{**}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1(0.5)	15(8.0)	107(56.9)	64(34.0)	1(0.5)	188(100.0)	3.26±0.63
	고등학교 졸업	1(0.8)	11(8.3)	42(31.6)	68(51.1)	11(8.3)	133(100.0)	3.58±0.79
	대학 졸업 이상	2(0.4)	13(7.6)	57(33.5)	89(52.4)	11(6.5)	170(100.0)	3.58±0.73
유의도값		$X^2=37.403^{***}(df=8)$						F=11.551^{***}
혼인상태 (N=500)	비혼	1(0.5)	19(8.8)	63(29.0)	113(52.1)	21(9.7)	217(100.0)	3.62±0.80
	기혼	-	3(16.7)	10(55.6)	5(27.8)	-	18(100.0)	3.11±0.68
	이혼	-	2(9.1)	18(81.8)	2(9.1)	-	22(100.0)	3.00±0.44
	사별	1(0.4)	15(6.2)	117(48.1)	107(44.0)	3(1.2)	243(100.0)	3.40±0.64
유의도값		$X^2=52.221^{***}(df=12)$						F=8.792^{***}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1(0.4)	21(9.2)	111(48.7)	89(39.0)	6(2.6)	228(100.0)	3.34±0.70
	100만원 이상	-	11(7.2)	63(41.4)	69(45.4)	9(5.9)	152(100.0)	3.37±0.75
유의도값		$X^2=5.519(df=4)$						F=0.365

***p<0.001, **p<0.01, *p<0.05



1인가구로서 주택 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이용경험은 4.8% 정도만 경험한적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예측된다. 연령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 주택 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단위 :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전혀 경험하지 않음	경험한적 있음	전체
전체		476(95.2)	24(4.8)	500(100.0)
성별 (N=500)	여성	264(95.0)	14(5.0)	278(100.0)
	남성	212(95.5)	10(4.5)	222(100.0)
유의도값		$X^2=0.076(df=1)$		
연령 (N=500)	20-40대	201(90.5)	21(9.5)	222(100.0)
	50-60대 이상	275(98.9)	3(1.1)	278(100.0)
유의도값		$X^2=18.970^{***}(df=1)$		
거주지역 (N=500)	도시	324(95.9)	14(4.1)	338(100.0)
	농촌	152(93.8)	10(6.2)	162(100.0)
유의도값		$X^2=0.988(df=1)$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95(99.0)	1(1.0)	96(100.0)
	고등학교 졸업	126(94.7)	7(5.3)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54(90.6)	16(9.4)	170(100.0)
유의도값		$X^2=15.197^{**}(df=2)$		
혼인상태 (N=500)	비혼	198(91.2)	19(8.8)	217(100.0)
	기혼	16(88.9)	2(11.1)	18(100.0)
	이혼	21(95.5)	1(4.5)	22(100.0)
	사별	241(99.2)	2(0.8)	243(100.0)
유의도값		$X^2=17.414^{**}(df=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226(99.1)	2(0.9)	228(100.0)
	100만원 이상	140(92.1)	12(7.9)	152(100.0)
유의도값		$X^2=12.657^{***}(df=1)$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로서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 대출지원 이용경험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9.5%), 대학 졸업 이상(10.6%), 기혼(11.1%), 월소득 100만원 이상(9.9%)은 상대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 대출 지원

(단위 :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전혀 경험하지 않음	경험한적 있음	전체
전체		472(94.4)	28(5.6)	500(100.0)
성별 (N=500)	여성	262(94.2)	16(5.8)	278(100.0)
	남성	210(94.6)	12(5.4)	222(100.0)
유의도값		$X^2=0.029(df=1)$		
연령 (N=500)	20~40대	201(90.5)	21(9.5)	222(100.0)
	50~60대 이상	271(97.5)	7(2.5)	278(100.0)
유의도값		$X^2=11.250^{**}(df=1)$		
거주지역 (N=500)	도시	321(95.0)	17(5.0)	338(100.0)
	농촌	151(93.2)	11(6.8)	162(100.0)
유의도값		$X^2=0.642(df=1)$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183(97.3)	5(2.7)	188(100.0)
	고등학교 졸업	128(96.2)	5(3.8)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52(89.4)	18(10.6)	170(100.0)
유의도값		$X^2=11.717^{**}(df=2)$		
혼인상태 (N=500)	비혼	198(91.2)	19(8.8)	217(100.0)
	기혼	16(88.9)	2(11.1)	18(100.0)
	이혼	22(100.0)	-	22(100.0)
	사별	236(97.1)	7(2.9)	243(100.0)
유의도값		$X^2=9.826^{*}(df=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223(97.8)	5(2.2)	228(100.0)
	100만원 이상	137(90.1)	15(9.9)	152(100.0)
유의도값		$X^2=10.775^{**}(df=1)$		

***p<0.001, **p<0.01, *p<0.05



1인가구로서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은 4.4% 정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20~40대(8.1%), 농촌지역(7.4%), 대학 졸업 이상(8.8%), 기혼(11.1%), 월소득 100만원 이상(8.6%)은 상대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공공임대주택

(단위 :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전혀 경험하지 않음	경험한적 있음	전체
전체		478(95.6)	22(4.4)	500(100.0)
성별 (N=500)	여성	266(95.7)	12(4.3)	278(100.0)
	남성	212(95.5)	10(4.5)	222(100.0)
유의도값		$X^2 = 0.010(df=1)$		
연령 (N=500)	20~40대	204(91.9)	18(8.1)	222(100.0)
	50~60대 이상	274(98.6)	4(1.4)	278(100.0)
유의도값		$X^2 = 13.052^{***}(df=1)$		
거주지역 (N=500)	도시	328(97.0)	10(3.0)	338(100.0)
	농촌	150(92.6)	12(7.4)	162(100.0)
유의도값		$X^2 = 5.153^*(df=1)$		
최종학력 (N=491)	중학교 졸업 이하	185(98.4)	3(1.6)	188(100.0)
	고등학교 졸업	129(97.0)	4(3.0)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55(91.2)	15(8.8)	170(100.0)
유의도값		$X^2 = 11.822^{**}(df=2)$		
혼인상태 (N=500)	비혼	201(92.6)	16(7.4)	217(100.0)
	기혼	16(88.9)	2(11.1)	18(100.0)
	이혼	21(95.5)	1(4.5)	22(100.0)
	사별	240(98.8)	3(1.2)	243(100.0)
유의도값		$X^2 = 12.277^{**}(df=3)$		
월소득 (N=380)	100만원 미만	223(97.8)	5(2.2)	228(100.0)
	100만원 이상	139(91.4)	13(8.6)	152(100.0)
유의도값		$X^2 = 8.174^{**}(df=1)$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로서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이용경험은 5.0%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10.0%), 대학 졸업 이상(10.1%), 기혼(11.1%), 월소득 100만원 이상(9.3%)은 상대적으로 이용한 경험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혼인상태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 근로

(단위 :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전혀 경험하지 않음	경험한적 있음	전체
전체		474(95.0)	25(5.0)	499(100.0)
성별 (N=499)	여성	263(94.6)	15(5.4)	278(100.0)
	남성	211(95.5)	10(4.5)	221(100.0)
유의도값		$X^2 = 0.196(df=1)$		
연령 (N=499)	20~40대	199(90.0)	22(10.0)	221(100.0)
	50~60대 이상	275(98.9)	3(1.1)	278(100.0)
유의도값		$X^2 = 20.381^{***}(df=1)$		
거주지역 (N=499)	도시	322(95.5)	15(4.5)	337(100.0)
	농촌	152(93.8)	10(6.2)	162(100.0)
유의도값		$X^2 = 0.682(df=1)$		
최종학력 (N=490)	중학교 졸업 이하	186(98.9)	2(1.1)	188(100.0)
	고등학교 졸업	127(95.5)	6(4.5)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52(89.9)	17(10.1)	169(100.0)
유의도값		$X^2 = 15.005^{**}(df=2)$		
혼인상태 (N=499)	비혼	196(90.7)	20(9.3)	216(100.0)
	기혼	16(88.9)	2(11.1)	18(100.0)
	이혼	21(95.5)	1(4.5)	22(100.0)
	사별	241(99.2)	2(0.8)	243(100.0)
유의도값		$X^2 = 18.564^{***}(df=3)$		
월소득 (N=379)	100만원 미만	224(98.2)	4(1.8)	228(100.0)
	100만원 이상	137(90.7)	14(9.3)	151(100.0)
유의도값		$X^2 = 11.347^{**}(df=1)$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로서 안심택배서비스 이용경험은 7.2%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실적으로 그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20~40대(12.2%), 대학 졸업 이상(11.2%), 기혼(11.1%), 월소득 100만원 이상(9.3%)은 상대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6] 안심택배서비스

(단위 :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전혀 경험하지 않음	경험한적 있음	전체
전체		463(92.8)	36(7.2)	499(100.0)
성별 (N=499)	여성	261(93.9)	17(6.1)	278(100.0)
	남성	202(91.4)	19(8.6)	221(100.0)
유의도값		$X^2 = 1.133(df=1)$		
연령 (N=499)	20~40대	194(87.8)	27(12.2)	221(100.0)
	50~60대 이상	269(96.8)	9(3.2)	278(100.0)
유의도값		$X^2 = 14.832^{***}(df=1)$		
거주지역 (N=499)	도시	317(94.1)	20(5.9)	337(100.0)
	농촌	146(90.1)	16(9.9)	162(100.0)
유의도값		$X^2 = 2.540(df=1)$		
최종학력 (N=490)	중학교 졸업 이하	182(96.8)	6(3.2)	188(100.0)
	고등학교 졸업	122(91.7)	11(8.3)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50(88.8)	19(11.2)	169(100.0)
유의도값		$X^2 = 8.703^*(df=2)$		
혼인상태 (N=499)	비혼	190(88.0)	26(12.0)	216(100.0)
	기혼	16(88.9)	2(11.1)	18(100.0)
	이혼	22(100.0)	-	22(100.0)
	사별	235(96.7)	8(3.3)	243(100.0)
유의도값		$X^2 = 15.208^{**}(df=3)$		
월소득 (N=379)	100만원 미만	219(96.1)	9(3.9)	228(100.0)
	100만원 이상	137(90.7)	14(9.3)	151(100.0)
유의도값		$X^2 = 4.517^*(df=1)$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로서 정신적 상담서비스 이용경험은 5.2%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건강지원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40대(8.1%), 농촌지역(9.9%)은 상대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거주지역별 차이검증에서 $p < 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상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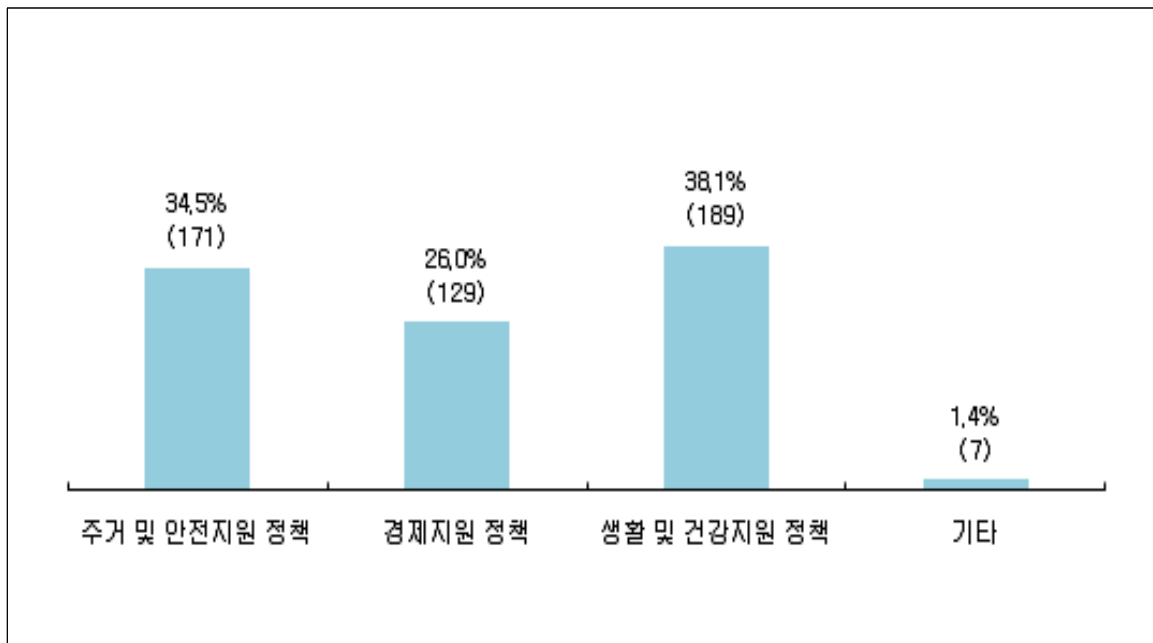
(단위 :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전혀 경험하지 않음	경험한적 있음	전체
전체		473(94.8)	26(5.2)	499(100.0)
성별 (N=499)	여성	262(94.2)	16(5.8)	278(100.0)
	남성	211(95.5)	10(4.5)	221(100.0)
유의도값		$X^2=0.377(df=1)$		
연령 (N=499)	20~40대	203(91.9)	18(8.1)	221(100.0)
	50~60대 이상	270(97.1)	8(2.9)	278(100.0)
유의도값		$X^2=6.916^{**}(df=1)$		
거주지역 (N=499)	도시	327(97.0)	10(3.0)	337(100.0)
	농촌	146(90.1)	16(9.9)	162(100.0)
유의도값		$X^2=10.575^{**}(df=1)$		
최종학력 (N=490)	중학교 졸업 이하	180(95.7)	8(4.3)	188(100.0)
	고등학교 졸업	129(97.0)	4(3.0)	133(100.0)
	대학 졸업 이상	155(91.7)	14(8.3)	169(100.0)
유의도값		$X^2=4.794(df=2)$		
혼인상태 (N=499)	비혼	200(92.6)	16(7.4)	216(100.0)
	기혼	16(88.9)	2(11.1)	18(100.0)
	이혼	21(95.5)	1(4.5)	22(100.0)
	사별	236(97.1)	7(2.9)	243(100.0)
유의도값		$X^2=6.070(df=3)$		
월소득 (N=379)	100만원 미만	220(96.5)	8(3.5)	228(100.0)
	100만원 이상	140(92.7)	11(7.3)	151(100.0)
유의도값		$X^2=2.720(df=1)$		

*** $p < 0.001$, ** $p < 0.01$, * $p < 0.05$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분야는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 및 안전지원 정책(34.5%), 경제지원 정책(2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3]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 분야

여성은 생활 및 건강지원정책(43.6%), 남성은 주거 및 안전지원정책(33.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40대(56.8%), 도시지역(39.5%), 월소득 100만원 이상(49.3%)은 주거 및 안전지원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한편, 50~60대 이상(63.8%), 농촌지역(60.5%), 월소득 100만원 미만(61.0%)은 생활 및 건강지원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연령별, 거주지역별, 최종학력별, 혼인상태별, 월소득별 차이검증에서 $p < 0.001$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 분야

(단위 : 명, %, 무응답 제외)

구분		주거 및 안전지원 정책	경제지원 정책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	기타	전체
전체		171(34.5)	129(26.0)	189(38.1)	7(1.4)	496(100.0)
성별	여성	96(34.9)	57(20.7)	120(43.6)	2(0.7)	275(100.0)
	남성	75(33.9)	72(32.6)	69(31.2)	5(2.3)	221(100.0)
유의도값		$X^2=13.654^{**}(df=3)$				
연령	20-40대	125(56.8)	77(35.0)	13(5.9)	5(2.3)	220(100.0)
	50-60대 이상	46(16.7)	52(18.8)	176(63.8)	2(0.7)	276(100.0)
유의도값		$X^2=179.166^{***}(df=3)$				
거주지역	도시	132(39.5)	106(31.7)	91(27.2)	5(1.5)	334(100.0)
	농촌	39(24.1)	23(14.2)	98(60.5)	2(1.2)	162(100.0)
유의도값		$X^2=52.153^{***}(df=3)$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7(14.5)	32(17.2)	127(68.3)	-	186(100.0)
	고등학교 졸업	57(43.2)	37(28.0)	34(25.8)	4(3.0)	132(100.0)
	대학 졸업 이상	84(49.7)	59(34.9)	23(13.6)	3(1.8)	169(100.0)
유의도값		$X^2=128.628^{***}(df=6)$				
혼인상태	비혼	117(54.4)	79(36.7)	13(6.0)	6(2.8)	215(100.0)
	기혼	8(44.4)	2(11.1)	8(44.4)	-	18(100.0)
	이혼	3(13.6)	10(45.5)	9(40.9)	-	22(100.0)
	사별	43(17.8)	38(15.8)	159(66.0)	1(0.4)	241(100.0)
유의도값		$X^2=183.923^{***}(df=9)$				
월소득	100만원 미만	44(19.3)	43(18.9)	139(61.0)	2(0.9)	228(100.0)
	100만원 이상	75(49.3)	48(31.6)	27(17.8)	2(1.3)	152(100.0)
유의도값		$X^2=71.580^{***}(df=3)$				

***p<0.001, **p<0.01, *p<0.05



02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경북지역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및 네트워크, 주거환경, 경제적 환경, 1인가구로 생활함에 있어 어려움과 정책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8년 7월 20일 ~ 7월 28일까지였으며, 20~40대 4명, 50~60대 이상 2명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터뷰 내용은 세대에 따른 1인가구 형성 동기, 가족관계, 주위 친구 및 이웃 관계, 주거 환경상 불편한 사항 or 도움이 필요한 부분, 평소 건강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or 도움이 필요한 부분결혼관, 여가생활, 경제적 지원, 노후 준비, 노년층지원서비스 경험과 경상북도에 바라는 점 등을 알기 위해 질문하였다.

2) 조사결과

[표 IV-59]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특성

구분		N(%)
전체		6(100.0)
성별 (N=6)	여성	4(66.7)
	남성	2(33.3)
연령 (N=6)	20~40대	4(66.7)
	50~60대 이상	2(33.3)
거주지역 (N=6)	도시	4(66.7)
	농촌	2(33.3)
최종학력 (N=6)	무학	1(16.7)
	중학교 졸업 이하	1(16.7)
	4년제 대학 졸업	2(33.3)
	대학원 재학 이상	2(33.3)
혼인상태 (N=6)	비혼	4(66.7)
	사별	2(33.3)
월 소득 (N=6)	100만원 미만	3(50.0)
	100~200만원 미만	1(16.7)
	200~300만원 미만	1(16.7)
	300만원 이상	1(16.7)



(1) 청년층(20대와 30대)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동기는 개인적 시간을 가지고 싶거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부모님과 생활패턴이 달라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취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하고 난 뒤 나만의 개인적인(영화감상) 시간을 가지고 싶고,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30대)

“학교생활 및 친구와의 교류를 위해 1인가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20대)

“부모님은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시지만,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30대)

1인가구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택 및 골목길에 관한 안전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였다.

“직장(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야근 시 안전문제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자차가 없어 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원룸촌은 보안이 잘되어 있지 않고, 골목마다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지도 않아 무서움을 느껴요” (20대, 30대)

“타지역의 경우 외진 곳에 사람이 지나가면 가로등이 켜지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때 마다 ○○○에서 관리하는 곳이니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라는 멘트가 나온다고 해요. 안전에 관한 경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30대)

“범죄 우범지역이나 외진 곳에는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신속한 출동 및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될 경우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30대)



20대와 30대는 1인가구로 살면서 가장 편한 점은 나만의 개인 생활이 있다는 것과 위급한 상황일 경우 가족관계보다는 주위 친구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미래 안정적인 생활을 선택하고 있으며, 도전적인 삶보다도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나만의 생활패턴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부모님의 참견 없이 자유로운 여가생활) (30대)

“기숙사 또는 자취 생활을 하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집이 있는 친구들로부터 반찬 등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숙사 선배들이 밥을 사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20대)

“위급한 상황 시에 친구나 직장동료 외에는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30대)

“요즘은 혼자 여행을 떠나서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도 함께 먹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웃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30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나 학과 조교를 병행하고 있지만, 학비와 용돈을 충당하기엔 부족하여,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어요” (20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과 관련해서 도움은 아직 필요 없으며, 혼자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돈을 저축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또한, 명예나 현재의 큰돈보다는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생활을 선택하고 싶어요” (30대)

여가시간에는 주로 친구와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평소 건강유지를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가시간에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영화관람을 주로 하며, 운동을 하고 싶지만, 야근이 많아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30대)

“여가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주는 프로



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동호회를 찾고 개별적인 모임에 참여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어, 지자체에서 나서줬으면 해요” (30대)

“운동(필라테스)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로 보충, 정신적 건강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받을 시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해소하고 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의 경우 육체적으로도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상담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해요. 도시가 아니면 연극이나,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30대)

[2] 장년층(40대)

1인가구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남편과의 사별이었으며,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개인 시간의 자유로운 활용이 편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 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보인다. 여가시간에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으며, 1인가구로 있다 보니 택배를 직접 수령할 때마다 불안하여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육아에 대한 문제로 여성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40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 육아에 대한 부담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돌봄, 육아지원, 경력단절 등 현실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해요” (40대)

“요즘은 세상이 험해서 이웃주민들과도 교류가 없어요. 주변에 사는 동생 내외와 교류를 하면서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해요. 또한,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아, 직장동료들과 도움을 주고 받으려는 생각도 했지만, 결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 관심사



가 달라 그 부분도 어려워요” (40대)

“택배나 배달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택배를 집으로 배송하지 않고 회사에서 수령해요. 무거운 물건을 받을 때도 집까지 사람을 안 들이고,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형식으로 택배를 받아요. 안전한 택배 서비스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40대)

[3] 노년층(60대 이상)

노년층 역시 1인가구가 된 계기는 남편과의 사별이었으며, 1인가구로 살면서 건강이나 외로움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년층은 위급한 상황 시에 가족보다는 이웃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유롭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건강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문제로 청소나 가사노동이 불편해요, 건강이 나빠질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60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느껴 경로당이나 외부로 나가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집 밖으로 나가면 돈이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60대)

“이웃 간에 품앗이를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며 생활하고 있어요” (60대)

“기초생활 수급자라 현재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고, 반찬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에 맞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60대)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에요” (60대)



03

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

[표 IV-60] 주요결과 요약

구 분	주요 내용
1인가구 특성	1인가구로 생활 한 기간 29.6%가 10년 이상 : 여성(39.6%), 50~60대 이상(47.8%), 농촌지역(45.1%), 중학교 졸업 이하(55.9%), 사별(49.4%)이 10년 이상 1인가구 선택은 51.0%가 비자발적, 49.0% 자발적으로 1인가구를 선택 : 자발적 선택은 남성(55.7%), 20~40대(79.7%), 도시지역(56.5%), 대학 졸업 이상(80.0%), 비혼(82.0%)에서 높음.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47.6%가 배우자와의 사별, 직장 또는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34.0%),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서(8.7%), 배우자와의 이혼·별거(5.7%), 가족과의 불화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서(2.2%)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갖추어야 할 것으로는 경제력(5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안전한 주거환경(13.8%) : 여성은 경제력(59.2%)과 안전한 주거환경(15.6%)에서, 남성은 요리 및 가사활동(13.2%)에서 높음.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이 66.5%로 높은 반면에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54.9%가 심리·정서적 외로움으로 가장 높음.
생활지원 (건강 및 네트워크)	1인가구의 신체건강 상태는 56.4%(매우 건강함 9.4% + 건강한 편 47.0%)가 건강 - 정신건강 상태는 68.4%(매우 건강함 9.8% + 건강한 편 58.6%)가 건강 1인가구로 있어서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 하는 행동은 응답자의 57.7%가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 - 여성은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한다(68.2%), 남성은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한다(55.3%)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위급한 상황 시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에 관해 76.6%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23.4%가 도와줄 사람이 없음. -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3.4%가 친구로 가장 높음 - 여성은 친구(54.4%)와 형제·자매(24.8%), 남성은 친구(74.0%)와 부모(32.2%)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 건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 및 서비스는 건강지원체계 마련이 3.98점으로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 시스템 3.92점,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3.88점, 간호서비스 제공 3.87점, 급식지원 서비스 제공 3.69점



[표 IV-60] 주요결과 요약

구 분	주요 내용
주거환경 및 안전 (맞춤형 주거 및 안전)	1인가구 주택 유형은 39.4%가 단독주택으로 가장 높음. - 주택 소유형태는 응답자의 43.1%가 자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29.9%), 전세(16.6%), 기타(5.4%), 무상(5.0%)
	- 주택 선택 시 고려하는 분야는 38.2%가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이며, 직장, 학교와 인접 지역(31.7%), 주변지역의 안전성(12.9%), 주거환경이 좋아서(12.7%) 등 - 여성은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 40.2%, 남성은 직장, 학교와 인접해서 39.5%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택의 크기 및 구조 3.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실내외 악취 3.44점, 주택 및 주거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3.41점, 실내외 소음 3.34점, 프라이버시 확보 3.37점
	1인가구의 임대주택 또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의 필요성은 84.1%(매우 필요 22.4% + 필요 61.7%)가 필요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의 필요 정도는 80.6%(매우 필요 25.3% + 필요 55.3%)가 필요
	1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필요성은 78.2%(매우 필요 23.7% + 필요 54.5%)가 필요
	주택 및 주거환경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는 1인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 전세 및 월세 등의 자금 대출 지원이 4.02점으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3.98점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 가급적 이른 귀가를 하고 있다가 각각 49.6%로 가장 높음.
	여성은 가급적 이른 귀가(66.2%), 남성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41.8%) 높은 비율 차지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는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 53.3%로 높게 차지 - 여성은 주택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56.5%), 남성은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71.4%) 가장 높은 비율임.
	-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장소로 골목길이 30.0%로 가장 높음. 1인 가구가 2인 이상의 가구에 대비 범죄 노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있다가 76.9%(매우 그렇다 22.5% + 그런 편이다 54.4%)임.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할 분야는 대중교통 시간확대(4.02점)와 좁은 골목길 CCTV 설치(4.01점)이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주택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활동 강화(3.97점), 1인가를 위한 무인경비 택배함 설치 및 활성화(3.92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안전시스템 마련(3.87점)



[표 IV-60] 주요결과 요약

구 분	주요 내용
경제적 환경 (일자리 및 소득)	1인가구 경제적 활동은 36.2% 정도 1인가구 일의 형태는 43.5%가 상용근로자로 가장 높고, 시간제/아르바이트(23.5%), 임시근로자(기간제 포함) 14.1%, 자영업(10.0%)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회사 동료와의 관계(3.42점)과 직업 안전성(3.20점)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내용(3.19점), 근로시간(3.16점), 급여(소득) 수준(2.88점) - 주된 경제소득원은 34.1%가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33.3%가 본인소득 - 여성(42.4%)과 50~60대 이상(55.4%), 농촌지역(40.1%), 중학교 졸업 이하(59.0%), 100만원 미만(53.1%)는 정부 및 기관의 지원 - 남성(39.6%)과 20~40대(57.6%), 도시지역(36.0%), 대학 졸업 이상(69.0%), 100만원 이상(84.7%)은 본인소득 - 한 달 평균 지출액은 49.0%가 50만원 미만고, 50~100만원 미만이 32.2% - 최근 1년간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은 43.8%가 식생활비로 꼽았고, 이어서 보건의료비(19.0%), 주 생활비(15.3%), 의생활비(9.1%) 1인 가구의 소비생활을 위해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으로 소평형 주택이 16.0%로 가장 높았고, 식료품(13.7%), 1인 가구 전용 매장(11.8%),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10.0%) 1인가구의 직업전환 등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 제공에 대한 필요도는 69.6%(매우 필요 14.4% + 필요 55.2%) 차지 1인 가구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가 해야 할 분야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3.9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세제혜택 확대(3.84점),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 제공(3.79점), 한시적 생계비 지원(3.73점)
1인가구 만족도 및 필요 정책	1인가구의 각 분야별 만족도는 친구와의 관계가 3.74점으로 가장 높음. 형제자매와의 관계(3.66점), 부모님(혹은 자녀)와의 관계(3.65점), 직장생활 혹은 학교 생활(3.53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3.46점) - 경제상태(2.78점)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1인가구로서 주택 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이용경험,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 대출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과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이용경험은 전무한 수준 1인가구에 대한 필요 정책분야는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 및 안전지원 정책(34.5%), 경제지원 정책(26.0%) 등



V. 결론 및 정책지원 방안





V. 결론 및 정책지원 방안

01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1)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가칭) 마련

1인가구의 급증으로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와 자녀중심으로 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어 1인가구는 법제적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법제상 권리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은 서울시, 부산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경북지역 1인가구는 322천 가구로 일반가구(1,062천) 중 30.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46.4%, 여성 53.6%로 여성 1인 가구가 7.2%p 더 많다. 1990년대에 비해 18.1% 증가하였으며, 남성 1인가구는 10.6%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은 1인가구(31.5%)가 가장 많고, 부부+자녀가구(24.4%), 부부가구(20.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45년에도 1인가구(38.1%)가 가장 많고, 부부가구(21.7%), 부부+자녀가구(11.7%)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경북지역은 2045년에는 부부+자녀가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 및 부부가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북지역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가칭)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시도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반면에 경북은 고독사가 제외된 독거노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공동체 생활 구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업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목 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내 용	- 제7조(기본계획 수립)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사 업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목 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 용	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사 업	전라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목 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등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적 가족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내 용	-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2.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사업 3. 독거노인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 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 및 연수 5.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및 안부살피기 사업 6. 고독사 예방 및 교육사업 7.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8. 독거노인 지원기관간 협력 및 사회적 가족 체계 구축 등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주거복지지원 조례(가칭) 마련

1인가구의 임대비용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1인가구의 주거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프랑스의 청년주거수당과 같이 체계적인 주거 임대비용 지원틀 마련 및 기존 보증금 대출·임대비용 지원의 대상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1인가구를 포함한 경북지역 주거복지지원 조례(가칭)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 대상과 관련한 사항에서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여성독거노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V-1] 1인가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구 분	주요 내용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가칭) 마련	◦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 독거노인 지원 조례에 고독사 예방 등을 포함하여 개정
경상북도 주거복지지원 조례(가칭) 마련	◦ 주거지원 조례 내용에 1인가구를 포함하여 개정



02 생활지원(건강 및 네트워크)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48.9%), 일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10.7%),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 없음(9.3%), 경제적 여유(8.9%), 자유로운 연애허관(3.6%)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54.9%가 심리·정서적 외로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시도와줄 사람 없음(38.0%), 경제적 불안감(26.7%), 노후에 대한 걱정(23.2%), 도난 등에 대한 주거침입문제(11.3%),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신체건강 상태는 56.4%(매우 건강함 9.4% + 건강한 편 47.0%)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43.6%(전혀 건강하지 않음 4.2% + 건강하지 않



은 편 39.4%)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정신건강 상태는 68.4%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31.6%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1인가구로 있어서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때 자주 하는 행동은 응답자의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한다는 가장 많이 꼽았고, 위급한 상황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친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중 건강지원체계의 필요성과 정신건강을 위한 상시 상담서비스, 간호서비스를 요구하였다. 도움 요청시스템 역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강화서비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건강지원서비스 정보 공유 및 대상층 확대

1인가구의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고립된 삶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건강문제는 1인가구 전반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1인가구의 건강상태 파악,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증진, 건강 관련 정보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복지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경북지역 보건소에서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다각도로 홍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북지역 차원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1인가구의 고독과 소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관계 및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건강관리나 영양 관련 정보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건강위험에 노출된 노인, 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등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층 조사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우려는 1인가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1인가구의 경우 불규칙한 식사시간, 잦은 외식 및 인스턴트 섭취 등으로 인한 영양의 불균형한 섭취,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해 건강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인, 특히 고령 여성 등에 국한된 현재 건강 관련 서비스의 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속하는 1인가구



전반에 서비스의 대상층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필요시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혹은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1인가구를 위한 소셜 팸 및 소셜다이닝 활성화

1인가구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Bennett & Dixon, 2006: 31). 주변에 가족·친인척·이웃 등과의 관계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 1인가구는 일상생활의 문제나 응급상황에 혼자 대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단절, 고립, 우울, 불안을 비롯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실패로 인한 위험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러한 관계망으로부터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커뮤니티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소셜 팸과 소셜다이닝은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공동체구성원들과 유대감 및 교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소셜 팸(사회적 가족)은 1인가구 간을 서로 연결하여 일종의 사회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연령의 1인가구가 공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셜다이닝은 즉석식품 등으로 혼자 식사를 해결하던 1인가구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해결함으로써 관심사 공유 및 건강한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 업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목 적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해 마련
내 용	◦ (성북구 성북평화의 집) 1인가구 주민들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넓히며 지속할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 장위1동 주민센터 일부 공간을 '1인 가구 커뮤니티 전용공간'으로 조성해 연극, 체육활동, 워크숍, 문화·예술 활동 등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 성북여성교실이 운영하는 조리실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쿠킹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강북구)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중장년 1인 남성들을 위한 요리



	수업, 청년세대 밥터디 프로그램 등 사회적 자립을 지원. ◦ (강북구 불타는 청중장년) 변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은 홀로 사는 남성들이 요리를 배우고 다양한 친목활동을 통해 지역 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집밥 만들기’ 교육을 매주 금요일 진행. (사)백류가든은 1인 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아빠의 식탁, 목공·철학·고전읽기 등 자조모임 구성 등 1인 가구의 취향과 재미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전망. ◦ (금천구) 청년 커뮤니티 공간 ‘청춘뽕당’ 공간을 개선해 청년 활동을 지원하며, 만 18세 이상의 1인 가구 포함된 3인 이상 동아리면 참여 가능. ◦ (금천구 1인가구 탐구생활)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체험·취미생활 프로그램을 진행.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인 가구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여가·동아리 지원이 결합된 통합서비스 ‘나도 혼자 산다’ 프로그램을 운영. ◦ (서대문구 우리함께 차차차)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0~64세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상담, 목공예, 요리 만들기, 운동, 상담, 1박2일 여행 등의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마련.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0~50대 혼자 사는 남성들이 영화, 볼링, 등산, 여행 등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금·토요일 격주로 총 10회 진행.
--	---

사 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공간 이음(마을부엌)
목 적	◦ 1인가구 청년 및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마을 공동 부엌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거리 문제의 불안정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관계 회복과 공동체 형성을 꾀하고자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마포’라는 지역 안에서의 밥상모임을 통해 청년을 기반으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네 주민들의 만남의 장 마련
내 용	◦ 마을부엌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함께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공유냉장고를 통한 먹거리 나눔뿐만 아니라 상호소통을 하며 함께 활용하며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펼쳐지는 공간

03

주거환경 및 안전

주택 소유형태는 응답자의 43.1%가 자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월세(29.9%), 전세(16.6%), 기타(5.4%), 무상(5.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자가 49.5%, 남성은 월세 36.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택 선택 시 고려하는 분야는 38.2%가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이어서 직장, 학교와 인접 지역(31.7%), 주변지역의 안정성(12.9%), 주거환경이 좋아서(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주택가격 및 경제적 이유 40.2%, 남성은 직장, 학교와 인접해서 39.5%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중 방법상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33.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3%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농촌지역, 학력이 낮을수록, 월소득 100만원 미만일 경우 방법상태의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또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및 우선권 부여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전세, 월세 자금 대출 지원의 필요 정도는 80.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과 학력이 낮을수록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8.2%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안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 가급적이른 귀가를 하고 있다가 각각 4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격투기 등 방어기술을 습득하였다(8.6%), 안심귀가 서비스를 이용한다(2.9%), 호신용품을 구비한다(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급적이른 귀가(66.2%), 남성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고 있다(41.8%)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주택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50.0%), 주변에 집이 많아서(20.0%), 안심귀가 서비스가 없어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주택보안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56.5%), 남성은 골목길에 가로등 및 CCTV가 없어서가(71.4%)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장소로 골목길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유흥가 밀집 지역(16.8%), 공원 산책로(13.0%), 공중화장실(11.0%), 지하주차장(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주택가 우범지역에 대한 방법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7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다. 여성과 50~60대 노년층, 농촌지역,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상대적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방법활동 강화가 필요함을 응답 하였다.



좁은 골목길 CCTV 설치 확대는 7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안전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요구하였다. 1인가구를 위한 무인경비 태배함 설치 및 활성화의 필요성은 응답자의 70.7%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택 및 원룸의 보안장치 강화의 필요성은 7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76.6%), 50~60대 노년층 이상(73.0%), 농촌지역(80.9%), 중학교 졸업 이하(76.6%), 기혼(83.4%),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76.3%)에서 보안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1) 원룸 등 안전한 소형주택 확대

배은경외(2010)는 “비혼 1인가구의 주거 관련 문제로 높은 주거비용과 소형주택의 공급부족, 안전한 주거에 대한 희구”를 지적하였다.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주거환경이나 안전의 문제를 우선 고려하기엔 주거비 부담이 커서 고시원 등 저렴한 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국민주택기금, 보금자리 주택 등에서 20~30대 여성 대부분이 우선순위와 자격조건에서 후순위일 뿐 아니라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5세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배제되어 있다(배은경외, 2010).

이성은 외(2012)에서도 “비혼 1인가구는 전세와 월세 비율이 높아서 세입자 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거불안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치안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건설비율확대, 임대형태로 주택 공급, 임대아파트 분양 시 취약한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건설시 안전 관련한 내용을 기준에 포함(CCTV 설치 등)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인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모, 다양한 지역의 주택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1인가구의 욕구



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어 1인가구의 입주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하여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 같이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건축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	목적 및 내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건립한 소형 임대주택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
여성안심주택	◦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한 여성가구 맞춤형 임대주택
‘더불어 숲’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서울시에서 매입한 민간토지에 사회주택을 건립하여 청년 1인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회주택

2)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

국의 사례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등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1년부터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동부엌, 거실을 공유하면서 여러 1인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주택은 1인가구의 주거불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혼자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우울, 고독, 불안과 같은 정신적 문제의 완화 및 사회적 관계망 강화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노인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 특성에 맞춰 개조된 주택에서 살아도 혼자 생활하는 과정에서 고독사, 관계단절, 낙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노인 1인가구를 위해 공동체주택의 공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업	서울특별시 가양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목 적	국내 첫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음채’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계획의 하나로 도시재생이나 전세난 등 주택 정책의 전환점, 돌파구 마련
내 용	- 공공주택은 집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으는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뜻이 맞는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계획부터 시공, 이름 짓기, 디자인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집을 지음. - 이음채는 특히 ‘육아형’으로 지어졌다. 만 3살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24세대가 입주자로 선정. 서울시가 소유한 주차장 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전용면적 49㎡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은 이곳에는 각자의 주거 공간 외에 공동육아 보육시설과 커뮤니티실, 옥상 공동 텃밭 등이 마련.

사 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목 적	1인가구 증가와 마을 공동체 붕괴도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거주지 제공 외에 주거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청년층의 안정적 거주와 정착을 유도.
내 용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발 벗고 뛰는 주택협동조합으로 집을 사는 대신 집주인과 보증부월세(1호)·전세계약(2호)을 했고, 이를 다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 2인이 함께 방을 쓰면 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가 23만원이고,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음.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 달팽이집은 2년 만에 6호까지 만들어 짐.





사 업	‘싱글 룸 거주(Single Room Occupancy: SRO)’ 프로그램
목 적	◦ 미국 SRO 주택은 특수주거유형 중 하나이며, 노후화된 호텔, 이용되지 않는 학교, 공가 등과 같이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시설을 리모델링 혹은 신축한 주택.
내 용	◦ 이 주택은 저소득층, 노숙자, 저임금 노동자, 약물중독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1인가구에게 공급. 임대기간은 10년간 지속하며, 임대지원 보조금을 통해 일부 보수비용, 소유비용, 관리비용, 임대료 등을 지원.



미국 SRO 지원체계



샌프란시스코 SRO : 낡은 호텔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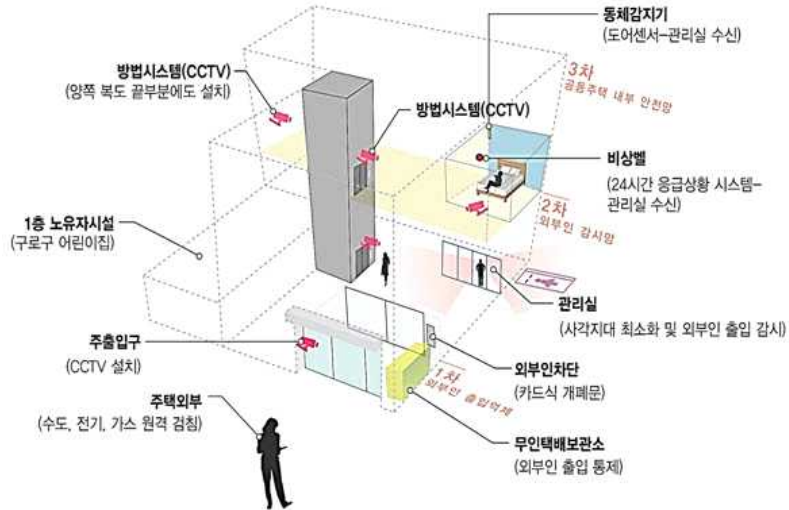
3)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한 안전한 마을 인증제 도입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 1인가구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CCTV를 증설하고, 골목길 내 가로등 설치를 확대, 곳곳에 비상벨 및 안전쉼터 등을 마련하여 비상 시 신고 및 지원요청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마을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 부평구에서 여성친화도시 구축의 한 사례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마을 구축의 시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하여 안전한 마을 인증제를 도입하여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입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안심주택
목 적	서울시가 14㎡ 규모의 여성 맞춤 주택을 임대받을 96명을 모집해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집이라는 특징에 맞춰 1인가구의 여성의 최대 취약점인 안전에 가장 신경 쓴 주택
내 용	전체 주택 96호 중 70%는 일반, 30%는 우선 공급형. 우선 공급은 주택이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해 6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일한 여성이 대상. 임대보증금은 736만원, 임대료는 월 12만원으로 저렴하다.



사 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빅데이터 스마트 여성범죄 예방
목 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범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인 여성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20%(3만2,481가구)나 차지하는 영등포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스마트한 여성범죄 예방 정책 마련. 여성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협업 플랫폼'을 구축
내 용	- 셉테드(CPTED)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재설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분석을 더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여성범죄 예방 정책.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협업 플랫폼'은 영등포경찰서·KT 등으로부터 범죄 데이터, 야간 여성 유동인구 데이터, 여성 1인 가구 데이터, 여성안심 스카우트 경로 데이터, 여성안심 시설물 정보, 기존 정책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활용. 이를 입체적으로 분석(머신러닝기법)해 주요 관리지역 및 안전지역을 도출하고 보다 세밀한 범죄 예방 정책 및 구민 체감 정책을 수립.



사 업	안심 비상벨
목 적	◦ 시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강력범죄를 예방
내 용	◦ 2014년부터 부산시민공원 내 화장실 11곳 103개 칸 전부에 안심 비상벨 설치. ◦ 안심비상벨의 작동 순서 : 위기상황 시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과 사이렌이 작동 → 공원상황실로 위기상황 신고 접수 → 청원경찰과 직원 출동
사 업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목 적	◦ 서울시 등은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 ~ 새벽 2시)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
내 용	◦ 서울특별시(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상황실로 전화하여 신청 ◦ 대구 남구(안심 귀가 서비스) :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신청자 거주지까지 대명 2동 자율방범대 문의 신청 ◦ 안산시(안심귀가 동행서비스) : 서비스 이용 20분전 시청당직실 신청 ◦ 영주시(심야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 서비스 이용 20분전 시청당직실(자정까지) 및 인근 지구대·파출소(자정부터 01시까지) 신청 ◦ 순창군(안심 귀가 지원서비스) : 해당 지역 읍·면 자율방범대에 문의 신청

04

경제적 환경(일자리 및 소득)

1인가구 일의 형태는 응답자의 43.5%가 상용근로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시간제/아르바이트(23.5%), 임시근로자(기간제 포함) 14.1%, 자영업(10.0%)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경제소득원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4.1%가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33.3%가 본인소득으로 나타났다. 여성, 50~60대 이상, 농촌지역, 중학교 졸업 이하는 정부 및 기관의 지원을, 남성과 20~40대, 도시지역, 대학 졸업 이상은 본인소득이 높았다. 응답자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49.0%가 5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50~100만원 미만이 32.2%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비중으로 응답자의 43.8%가 식생활비



로 꼽았고, 이어서 보건의료비(19.0%), 주생활비(15.3%), 의생활비(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비생활을 위해 향후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비 시장으로 소평형 주택이 16.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식료품(13.7%), 1인 가구 전용 매장(11.8%), 온라인쇼핑몰(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 중 다양한 일자리 제공에 대한 필요도는 83.6%로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필요도가 더 높았다. 1인가구로서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 대출지원 이용경험, 공공임대주택 이용경험, 1인가구로서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이용경험, 1인가구로서 안심택배서비스 이용경험, 1인가구로서 정신적 상담서비스 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필요정책분야는 생활 및 건강지원 정책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주거 및 안전지원 정책(34.5%), 경제지원 정책(2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생활 및 건강지원정책(43.6%), 남성은 주거 및 안전지원정책(3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 1인가구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미취업 상태인 청년 1인가구 및 중·장년층 1인가구는 취업 했으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청년 1인가구는 취업 및 이직을 원하고 있으나 국가 전반에 팽배해 있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현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취약한 경제상황에 놓여 빈곤문제를 겪을 수 있다. 중·장년층 1인가구 중 일부는 관리자, 전문가 등 고임금·안정적인 근로상태에 있으나 또 다른 일부는 은퇴 혹은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기도 하다. 중·장년층 1인가구는 임금과 고용상태의 안정유무와 상관없이 혼자 노후준비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1인가구의 직업전환 등을 위한 다양한 실비 직업훈련 교육 제공에 대한 필요도는 69.6%(매우 필요 14.4% + 필요 55.2%) 차지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마련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취업·창업지원 등과 같은 고용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을 뿐 일자리와 관련된 1인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취업훈련 및 일자리연계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취업지원 TO 사후관리 지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립의 완성을 위한 일자리이다. 본 연구의 1인가구는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독립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의존의 상태에 있는 독립과 의존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특히, 비자발적 1인가구의 생활은 빈곤의 위협이 매우 크다. 생활비도 매우 높고 노동시장의 위험도 클 수 있기(Bennett and Dixon, 2006)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들은 취업관련 전문교육 실시 및 일자리 연계 등에 그치고 있어, 취업을 한 이후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취업지원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취업지원 정책 활용도 제고

경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1인가구의 취업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취업지원 정책 또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북지역의 산업구조, 근로환경, 미취업자 등의 실태 및 욕구를 반영한 1인가구 취업지원 실태를 실시하여 정책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가 적극적으로 취업지원 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들을 위한 홍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원·김태현(2005). 질적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 차이. Family and Environment.
- 김도희(2012). 청년 1인가구 증가 요인에 따른 생활실태분석과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 1-27.
- 김현진 외 (2000).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살시도경험과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혜영(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9(2).
- 김혜영(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 김행신·이영호(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8): 59-67.
- 문소정(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47(2): 73-107.
- 박 건·김연재(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노후 준비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 배건이·정극원(2013). 1인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변미리(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 송인주(2015). 서울시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체계 협력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심 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안호용·김홍주(2000).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3: 89-132.
- 윤소영(2002). 독신의 시간사용과 여가활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09-217.
- 이명잔·최유성이·상수(2014). 1인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민홍·박미은(2014). 한국 고령 독거노인의 자기방임에 관한 연구. 41(1): 123-142.
- 이민홍 외(2015).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 전략, 보건복지부.
- 이성은·박홍주·유정민(2012).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여성가족재단.
- 이성은(2015). 비혼 여성의 생활세계 분석을 통한 새로운 가족형태의 탐색. 이화젠더법학. 7(2): 73-112.
- 이준우·장민선(2014).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 변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정경희 외(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명은(2002). 독신 가구의 주거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219-227.
- 최연실(2013). 한국가족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변화 양상, 맥락 및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17(4), 41-65.
- 최연실(2015). 한국 가족을 말하다. : 현상과 쟁점.
- 최정민·박영미(2012), 미혼 직장여성의 네트워크거주 실태 분석. 국토연구. 73: 63-82.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 Ackerman, R. A., Fries, G., & Windle, R. A.(2012).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07 to 2010: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1-80.
- Aldrich & Cliff(2003). The pervasive effects of family on entrepreneurship:toward a family embeddedness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573-596.
- Banks, Haynes, & Hill(2009). Living in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the risk of iso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4(1): 55-86.
- Bennett, J., & Dixon, M.(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1-47.
- Dixon, L., McFarlane, W. R., Lefley, H., Lucksted, A., Cohen, M., Falloon, I., & Sondheim, D.(2014). Evidence-based practices for services to families of people



-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Psychiatric Services.
- Hall, R., P. E. Dgden & C. Hill(1997).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one-person households in England and Wales and Fran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3(2): 161-181.
- Jamieson & Simpson(2013). *Living Alone Globalization, Identity and Belonging*.
- Kennedy & Forde(1990). ROUTINE ACTIVITIES AND CRIME: AN ANALYSIS OF VICTIMIZATION IN CANADA.
- Koesoebjono, S.(1983). Trends of one-person households in the Netherlands 1960-1978; a demographic analysis.
- Manzoli, Villari, Pirone, & Boccia(2007). Marital status and mortality in the elderl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Mincer, J.(1977). Family migration decisions.
- Ogden & Schnoebelen(2005). The rise of the small household: demographic change and household structure in Paris.
- Quintano & D'Agostino(2006). Studying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Four Developed Countries. Vol. 52, No. 4.
- Raymo, J. M.(2015). Living alone in Japan: Relationships with happiness and health. *Demographic Research*. 32(46): 1267-1298.
- Teerawichitchainan, Knodel, & Pothisiri(2015). "What does living alone really mean for older persons? A comparative study of Myanmar, Vietnam, and Thailand." *Demographic Research*. 32: 1329-1360.
- Witte & Lahmann(1988). Residential Mobility of One-Person Households.
- Yeung & Cheung(2015). Living alone: One-person households in Asia, *Demographic Research*. 32: 1099-1112.
- Zebhauser, A., Baumert, J., Emeny, R. T., Ronel, J., Peters, A., & Ladwig, K. H.(2014). What prevents old people living alone from feeling lonely? Findings from the KORA-Age-study. *Aging & mental health*. 1-8.



연구기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자

- 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발행명 |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발행일 | 2018년 9월 20일

발행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관 301호

전화 053) 817-6017, 팩스 053) 817-6018

디자인·인쇄 | 한솔기획인쇄 053) 422-1828

<비매품>